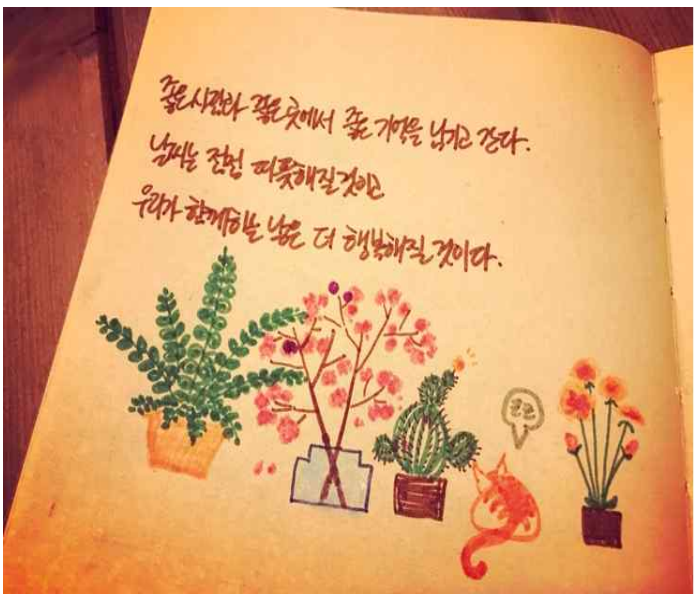
2022 사회복지경영계열 동행 문집

『따뜻한 흔적 Ⅱ』

-김한식, 김경숙 엮음-



대 구 공 업 대 학 교

『 목　　차 』

01 | **격려의 글** : 김한식 학과장

03 | **『졸업을 앞두고』**
▣ 졸업생 대표 인사말 : 김숙경
▣ 졸업을 아쉬워하며 : 시와 산문

107 |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라』**
▣ 재학생들의 시
▣ 재학생들의 산문

173 |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 재학생들의 산문

216 | **『 신문 기고의 글 』** : 김한식 교수

238 | **『 지도 후기 』** : 김경숙 교수

〖 격려의 글 〗

『네 안의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김한식 교수 (사회복지경영계열 학과장)

네 안의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본인은 2003년 3월, 16년 동안 꿈과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생소한 대구로 와서, 대구공업대학교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그동안 직장에서 배운 사회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자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학생들의 로드맵을 잡아주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우리 학생들은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했고 특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취약했다.

21세기는 자기표현의 시대이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데에도 면접 시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필요했고, 편입하여 진학하는 데에도 당당한 자기표현이 필요했다. 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되어 좌절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그래서 학과공부도 중요하지만, 나는 제자들에게 자신감과 승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먼저, 나의 제자들을 강력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관련교재를 만들고 외부기관에서 실전훈련연습을 하는 등,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장군스피치 동아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장군으로 성장시키는 필요한 자체 훈련교육을 시작하였다.

2006년에 처음 시작한 장군스피치 훈련교육은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도 3000여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후 모두들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여 독수리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여건과 시간 부족으로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장군스피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사회복지과 학생들 늘 마음에 걸려 가슴이 아팠다.

그리하여 수년전, 혼자서도 훈련할 수 있는 스피치훈련 교재를 세상에 내

놓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학의 모든 사회복지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 정식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화술과 스피치'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전국에서 유명한 스피치 강사님을 초대하여 학과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군스피치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 학기에도 화술과 스피치 강의를 함께 담당하신 김경숙 교수님 역시 30년 이상 교직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강의를 진행하셨던 분으로서, 교육청 장학사와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전국 교사들 중에서 단 몇 명에게만 수여하는 사도대상을 수상하셨고, 대통령표창도 받으시며 명강사로서 인정을 받으신 훌륭한 교수님으로서, 멀리 울산에서 우리학과 학생들 수업을 위해 매주 달려오신 열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다.

특히, 김경숙 교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학생들의 스피치 실력향상과 함께 대학시절의 추억 만들기로 기억 될 두 번째 문집인 『따뜻한 흔적 Ⅱ』 작업에 함께 해 주신 점은 타 교수들에게도 모범이 되리라 생각되며, 일일이 학생들의 원고를 한자 한자 컴퓨터로 입력하여 책으로 출간해 내신 그 고마움은 학생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간직되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글로 표현 할 줄 알고, 그것을 남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발표하였으며 또한, 그 추억의 시간을 문집으로 남기기 위해 애쓴, 사랑하는 우리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학생들의 열정에 축하와 함께 진심으로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렵게 대학생활을 했을텐데도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적극 협력하여 공부하고 참여해 주시던 모습들, 그간의 추억을 나 또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21세기는 100세 시대이다!! 그러므로, '네 안의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이 말은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과 재학생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변함없는 삶의 방향키가 되기를 바란다.

2022. 2. 8
사회복지경영계열 학과장 김한식 드림

첫장 : 졸업생의 시와 산문

『졸업을 앞두고』

대구공업대학교
DAEGU TECHNICAL UNIVERSITY

서문)　졸업 답사

사랑하는 후배님!
대구공대에 가슴 부푼 꿈과 무한한 신세계를 기대하며 입학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제자를 위해서 많은 가르침과 인격을 다듬어준 여러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학과장님이신 김한식 교수님은 언제나, 늘, 항상! 저희 등 뒤에 큰 산으로 남으셔서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학우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줄 압니다. 후배님들은 모두 지혜롭고 영리하셔서 선배로써 저는 마음이 뿌듯하며 걱정 없이 물려주고 떠나려 준비합니다. 학교생활 1년 더 공부한 선배로써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 동아리에 적극적 참여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공대는 여러 동아리가 있습니다. 독서 스피치, 일본어, 홈패션, 대구 봉사단, 창업, 컴퓨터 등 또한 평생교육원 장군 스피치도 있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장군 스피치를 하면서 많은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키가 쑥~ 자랐지요.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후배님들은 자신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입생 후배님들도 같이 참석하는 동아리는 선후배의 좋은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졸업을 하지만 졸업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빛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어리석은 사람을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줄 알면서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스쳐도 인연을 살린다는 명언이 있지요. 저는 김한식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의 손을 잡았기에 대구공대에서 2년을 보내며 많은 경험을 하고 성장하며, 인간다움을 배우며 즐겁게 공부하고 이제 후배님들께 모두 물려주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님께 어깨에 짐을 지워주고 떠나려합니다. 새로운 신입생 후배님들의 멋진, 좋은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구 공업 대학 사회복지 경영계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함께 가실 분은 후배님들입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멋진 학교생활 즐겁게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졸업생 대표 김숙경드림

졸업을 앞두고

2 - A반 김 난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에 입학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 다가 온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작년 초 입학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학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로 학교 선택을 잘 한 듯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 수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곳에서의 2년은 저를 더욱 성장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김 한식 교수님의 재밌고 유쾌한 강의는 많은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교수님의 깊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 항상 즐거운 일들 만 가득했던 듯합니다.
특히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함께 여행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퍼스 생활을 통해서 시야도 넓어지고,
저를 돌아보는 생각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큰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한식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2년간 함께한 동기분들도 어디선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과 골프

2 – E반 박 경희

인생,
뭔가 알 만하다 싶으면, 또 모르겠는 것
뭔가 할 만하다 싶으면, 또 부딪치는 것
잘살았구나 싶으면, 어딘가엔 흠이 나 있는 것
뭔가 해봐야겠다 용기를 내면, 조금씩 힘이 생겨나는 것
그게 인생이다

골프,
뭔가 알 만하다 싶으면, 또 몸이 기억을 못하는 것
뭔가 할 만하다 싶으면, 또 백개 치고야 마는 것
드라이버 잘쳤다 싶으면, 퍼트에 흠이 나 있는 것
뭔가 해봐야겠다 용기를 내면, 조금씩 함이 빠져주는 것
그게 골프다.

인생도 골프도 내려놔야 편하고
인생도 골프도 노력해야 나아지고
인생도 골프도 자신있게 해야 멋지다.

무제

2 - F반 문 규란

내가 아는 누군가
기쁜 일이 있다고
자랑하면

저 사람은 참 좋겠네
부러워하지 말고
축하를 해 주리라

좋은 일을 말하는 깊은 마음속에는
그동안의 아픔도
묻어 있을 테니까

내가 아는 누군가
속상한 일 있다고
푸념하면

영혼 없는 겉말로
위로하지 말고
가슴으로 안아주자

지금 네게 다가온 그 힘든 일들은
세월 가면 치유될
인생훈장이라고.....

취한 시

2 － F 서 무생

친구들아
나 술 못 마신다고 비주류니 어쩌고 하면서 핀잔주지 마라
어젯밤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속까지 흥건히 취했다.
내 시 내가 취해 무척이나 황홀했었다.
어찌 인생이 술에만 취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한 단어 한 획 한 행 한 행이
농익은 밀주처럼 어찌나 달콤하던지
이미 술기운이 감도는 달빛까지 벗으로 동석해 주었으니
우리 갓 쏟은 달걀 같은 뜨끈뜨끈한 시를 읊고 또 읊어댔었지

하온데 밤새 그토록 익어 오르던 그 달콤한 시
이 몽룡 같은 멋진 시는 어느 쪽문으로 달아나 버리고
남루하고 고루하고 걸쩍지근한 것이
이 아침 이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네.

코로나와 함께한 학창시절

2 - A반 김 난욱

봄바람에 벚꽃 잎 날릴 때 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대학교 입학 하였네

매미소리 울어대는 여름이 와도
코로나는 진행 중이네

코스모스 꽃잎사이로 잠자리때
숨바꼭질 하여도
마스크는 벗지 못하네

낙엽지고 찬바람 불어오는
한해를 보내면서도
마스크가 내 입과 코를 막고 있네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날줄 알았는데
졸업때도 마스크 쓰고 하겠네

마음을 다스리는 글

2 - A반 이 만술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굴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말 부드럽고 고운 말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이를 가까이 하라

어른과 아이를 사랑하면 덕 있는 이를 받들며
모르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고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며 일이 지나 갔음에 원망 하지말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수덕사 걸기중에서

사랑이 샘물처럼

2 – A이만술

닭장 속 닭들은 그 누구인지 계란만 훔쳐 내다보면, 그 닭은 늙어 가는 닭처럼 우리도 그 닭처럼 변해가고 있구려.

2020학번 중에서도 사회복지계열 2학년 A반 학우님 섭섭하다 생각마소
알 못 낳는 노계와 같은 처지지요.

그래도 우리는 친절하고 여유 있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학번에 좋은 친구이자 동창생 그중에서도 내당복지관에서 8주간 교육 잘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체험을 한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훗날에 영광일 듯합니다.

이 좋은 영광은 우리 학우님의 덕이요 베풀어주신 호의라 생각합니다.
또 한분에게 감사 말씀 잊지 못 할 것입니다.

갈팡질팡 망설이고 있을 때 교수님의 그 말씀은 오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을 써먹던 못써먹던 후회 없습니다.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한 1박2일 완도 졸업여행은 영원한 추억이 되겠죠.
전복과 새우가 우리를 반겨 주었다 생각하니 우리 학과장님이신 김 한식교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인 현우씨, 학회장님, 사무국장님, 총무님 그리고 학우님들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고 감사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대학 간다

2 - A반 이 운선

2019년 10월 어느 날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즐거운 입학을 기다리던 어느 날 불청객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소식을 먼저 듣게 되어 즐거운 입학식도 꽃피는 삼월의 학교 등교도 다 사라지고

서툰 솜씨로 컴퓨터 동영상을 보게 됐고 어려운 과제도 하게 되어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쯤 8살 손녀가 할머니 공부 왜 우리 엄마 시키냐고 따졌습니다.
할머니가 컴퓨터를 잘 못하고 엄마가 잘해서 좀 시킨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공부는 할머니가 하셔야죠, 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손녀가 너무 이쁩니다.

이제는 과제도 잘 할 수 있고 버스 타고 오는 등교 길도 즐겁지만
아직도 교문앞에 들어설 땐 가슴 설레는 열 아홉 들뜬 기분인데
졸업이 입박해 오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맘껏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부족하니 졸업후에 좋은 강의가 있으면 꼭 참석해서 긴 학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스피치 강의를 해주신 김 한식 학과장님과 교수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낙엽

2 - A반 이 운선

봄의 새싹이

여름의 짙은 녹음으로

모진 비바람도 끄떡 없더니,

가을 바람에

붉은 낙엽되어

발아래 사각 사각

한해를 마무리

긴 침묵으로 봄을 기다리겠지

2020. 10 어느날

나는 여기까지 왔고 기억은 저~멀리다

2학년D반 박 숙자

제목:봉선화 김상옥 지음, 낭독:박숙자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벌어,
해마다 피는꽃을 나만두고 볼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보면 하마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
손톱에 꽃물들이던 그날 생각하시고
양지에 마주앉아 실로 찬찬매어주던
하이얀 손 가락가락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에서 본 듯 힘줄만이 서누나.

나는 55년생이다. 국민학교(지금초등학교) 3학년때 쯤인것같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을 반정환선생님께서 위의 시를 외우는 학생은 3학년때에는 변소청소(화장실)을 한번도 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그 당시 한 학급 학생수가 63-65명 정도였다. 나는 그 말씀에 열심히 외우기 시작했고 제일먼저 손을들어 줄줄외웠다 우뢰 와 같은 함성과 박수소리에 선생님의 칭찬과 함께 기죽지 않았고, 학교생활을 잘 하면서 손을 든것에 자신이 있었고 힘약한 친구들이 변소청소하면 간간히 도와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지금의 나는 종종 이시를 되뇌이면서 장기자랑에서도 최우수상도 탔다. 왜냐면 이 시 구절로 인해 지금도 나는 기죽지않고 활발한 사회생활에 봉사하면서 멋지게 살고 있지않는가 나는 “화이팅”이다 . 이글을 읽는 모든분들의 행운을빌면서 ...
“힘들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라”시던 존경하는 김한식교수님!
무엇하나 버릴 것 없으신 야무진 이선교교수님!
갖고 계신 지식나누어 주시려고 애쓰시는 우병훈교수님,
지금은 흘려들어도 나중에는 새록새록 기억에 남는다는 이승희 교수님!
철학이 넘치시는 김창규교수님, 현장의 생생한 정보주시는 박지영교수님,

감사한 마음 건강을 빌며, 이문구 캠퍼스에 묻고 두고 갈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2 – D반 김 채연

저는 이 학교가 조금 특별합니다.
어릴 때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은 만학도가 되어 마음의 결핍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치유한 것만 같아 더욱 소중합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키우고 공부를 하였는데
교수님, 동기들에게 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것만 같아
지금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감정이 북받쳐 오르네요^ ^*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행여나 보이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서로 걱정해 주고, 공부하러 왔다가 이렇게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남기고 제 인생의 일부분 중 정말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헤어지지만 또다시 시작이라고 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의 한 자락을 남겨주셔서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 추억을 발판 삼아 우리 21학번 동기들 저 포함 모든 날의
축복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유

2학년 F반 최 정애

나는 아직 사회에 대한 목표의식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에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본다,

내 안의 알토란 같은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는 하나씩 꺼내어 필요할 때 도구로 쓰일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멘트에서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의 미각을 나타내는 맛은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등이 있다고
이 맛들이 한데 어우러져 오묘한 맛을 낸다고 했다.

매일 달달한 맛의 음식만 먹는다면 금방 질려버린다고, 우리 사는 세상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러하듯이 다양한 맛과 색깔, 또 여러 성향들이
한데 어울려 때론 부딪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이치가 아닌가
싶다.

또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목소리 높여야 될 때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한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 당당한 삶을 그 누구보다 꿈꾸고 누리고
즐길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가야 할 무수한 날들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과업이 있기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지표인 것이다.

졸업을 앞두며. 2021년 12월 5일

가을이 지나고 있다

2 - A반 신 현우

가을이 지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보이지 않는 가을이 서걱서걱 걸어가고 있다
바람이 그 뒤를 따라 지나고 나면
초록의 나뭇잎이 단풍으로 물든다

가을이 지나고 있다
꽃을 지나면 가을의 꽃이 피어난다
들국화가 피어나고
코스모스가 피어난다
가을꽃은 꽃잎보다 향이 먼저 붉게 번진다

내 가슴으로 지나는 바람 한 줄기
꽃비처럼 피어나던 사랑이
낙엽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린다

언제나 배경으로 서 있던 어머니
가을꽃 향기처럼 가슴으로 번진다
나를 지나고 있는 그림움
가슴의 갈피마다 끼워놓은 사랑의 잎들
가을이 오기전에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때다

비워서 채우는 법을 가르쳤던
겨울나무 같았던 어머니
당신의 사랑을 다시 가득 받아 드리기 위해
가슴의 그리움을 낙엽으로 내려놓고
가을의 들녘에 홀로 앉아 허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신현우, 신현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11월24일 3분스피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 낭송입니다
저는 도종환시인의 담쟁이 시 낭독해보겠습니다.

담쟁이　　/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이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벽 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삶의 여정이 고독과 싸울 때
담쟁이는 비웃으며
보이지 않게 오르고 또 올랐다
참 예쁘다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담쟁이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미술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담쟁이 넝굴을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며 신이 났습니다
잘 그린 그림은 교실 뒤 게시판벽에 붙여 놓는다는 말씀에

우리는 싱글벙글 왔다갔다 서로 보면서 친구들마다 각자 다른
담쟁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친구들마다 눈이 황소 눈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교실뒤 게시판에 붙여놓은 그림 때문이였습니다

우리반 학생 70여장의 그림들이 담쟁이덩굴처럼 교실뒤 벽전체를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그림과 그림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벽을 오르며 어깨와 어깨를 걸고 가파른 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두 잘 그렸다고 말씀 하시며, 잘 그린 그림이든
못 그린 그림이든 “담쟁이 넝굴처럼” 친구들과 손잡고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부터 친구끼리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구공업대학교 본관 건물벽에도 담쟁이 넝쿨이 그 높은 벽을 타고 올라
사계절의 자태를 뽐내며 어디든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학생들께
용기를 주고 있는 듯 합니다,

담쟁이넝쿨은 넝쿨식물이지만 감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오르는
구조로 다른 식물을 죽이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높게 올라가는 담쟁이넝쿨 아래에 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 집니다.
야러분 우리도 담쟁이넝쿨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이상으로 신현우의 3분 스피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 축제

2 – A 권 향숙

주문한 택배가 도착했다. 고추장에 찍어 옛날 맛을 떠올리며 음미해 보지만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다. 기억의 자투리가 떠오른다. 조각조각 이어져 예쁜 조각보가 되어 눈앞에 펼쳐진다.

“어~이! 어~이!” 바다 밑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야산에서 장정들의 목소리 들려온다. 두세 명의 크고 구성진 소리는 마을이던 들에서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도 동네 앞 모래사장에 대기 중인 후리배로 빨리 모이라는 비상소집이다. 멸치 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일손을 놓고 달려온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었다.

모래밭에서 시작되는 그물 끝부분을 잡고 있으면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배를 밀어 바다에 띄우고 올라탄다. 두 사람은 노를 젓고 서너 명은 실린 그물을 내린다. 뱃머리에 선 어부는 준비된 장대와 돌멩이로 미물들을 안으로 몰아넣으며 이 백 미터쯤 나가 반원을 그리며 포위를 한 다음 남은 어구를 내리며 육지로 돌아온다. 양쪽으로 갈라선 사람들은 뱃사람들이 잡은 반대편 끝자락을 받아 잡는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과 팔뚝에 불끈불끈 솟아난 근육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밀려 나와 퍼덕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햇볕을 받아 백사장 위에 은 꽃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 바가지 안에는 모래 반 멸치 반이지만 한 마리라도 더 줍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분주하다. 그물이 다 올라오면 참가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지지만, 참가하지 못 한 이웃까지도 한 바가지 정을 나누어주었다.

배가 정박을 하면 모든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물을 당긴다. 지네 발 같이 엉킨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차고 넘친다. 젖 먹던 힘까지 내어 어른들의 발길에 채이면서 아이들도 한 몫을 한다. 먹이를 따라 호위하듯 군무를 추던 갈매기 떼들이 어느 순간 수면 위로 낮게 날며 뜀박질을 한다. 물갈퀴가 달린 발을 아래로 내리고 부리를 쳐들었다가 수면 속으로 내리꽂아 날쌔게 먹이를 낚아챈다. 미물들의 발버둥이 파란 하늘에 번뜩인다.

온 동네가 은빛이다. 마을 뒤 문중산소, 동네 어귀 공터, 지붕 위 등 끓는 물에 데친 칼슘 덩어리를 널어 말린다. 바싹 말리어진 멸치들을 오일장에 내

다 팔면 농사만으로 빠듯했던 어촌의 유일한 돈 줄이기도 했다.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푼돈이 주부들의 비자금이 되고 남자들에게는 쌈짓돈이 되었다. 자식들에게는 밀린 회비로 불려 나가 움츠리게 하던 어깨에 힘이 되어 주기도 했다. 후리 배는 열악한 어구였지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50여 호의 집성촌인 그곳은 7번 국도를 가로질러 동쪽은 바닷가다. 뒤로는 소나무 병풍이 둘러쳐진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이다. 지금은 해안도로가 생겨 바다 낚시꾼들과 여행객이 자주 찾는 곳이다. 반대쪽은 소위 말하는 양반님들이 사는 곳이다. 아버지의 생각이 고지식해서 일까?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아버지는 조부님과 윗대 어른들이 사시던 동쪽으로 이사를 하신 적이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고향이다.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날이면 파도에 씻겨 반질반질한 조가비들과 모래밭은 거대한 놀이동산이 되었다.

친정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들었던 이야기가 어슴푸레 기억이 난다. 어떤 시절의 전쟁이었는지 모르지만, 피난을 왔다가 둥지를 틀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윗대 어르신들은 권가 성 값을 한답시고 배를 타거나 물질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해안마을의 수입인 짬(미역바위)을 옆 동네에 넘겨주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했다. 세월이 흘러 후대가 번창하자 농사만으로는 살 수가 없자 돌려받으려 했지만, 땅으로 치면 노른자위를 쉽게 넘겨줄 리가 없었다. 오히려 해안가에 떠들어오는 미역도 감시를 받으며 건져서 먹는 형편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순수했다고 한다.

지금은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문중산소도 없어지고 후리 하는 모습도 사라졌다. 멸치를 젓갈로 담아 두었다가 김장철이면 생광스레 쓰였다. 고추장에 찍어 먹던 도시락 반찬과 갓 잡아 회로 먹던 맛은 잊을 수가 없다. 새콤달콤하고 구수한 맛은 일미였다. 어렵게 살던 그 시절 보리 개떡도 꿀맛이었으니 오죽하랴. 시장이 반찬이라던 선인들의 말씀이 그 때를 말한 것 같다.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소탕 작전을 위해 그물을 손질하는 장정들의 손놀림이 진득하다. 괭이갈매기 떼들은 만찬 후의 여유를 특유의 울음소리로 합주를 하며 텃밭을 지키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철석! 쏴 아아’ 물거품만이 파도의 말이 되어 속삭인다. 모래 위에 팔딱이던 은 꽃가루 고것들의 추억은 입맛을 돋우었다. 저녁 반찬은 한 바가지의 정이었던 요것들을 요리하여 입을 호강시켜야겠다.

산수국의 교훈

2 – A 권 향숙

지인들과 팔공산에 올랐다, 삼단 같이 풀어 헤친 여인네의 머리 결 같은 싱그러운 바람이 송골송골 맺혔던 땀을 씻겨주었다. 하늘 정원에서 바라본 산천은 한 폭의 산수화와 같았다. 삭막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조화에 안긴 우리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멀지않은 곳에 산책로가 있었다. 수목들이 우거진 길섶을 따라 오솔길로 들어서자 계란 프라이를 닮은 개 망초, 나리꽃, 우윳빛 찔레꽃등 이름 모를 야생화 들이 정원을 꾸며놓은 듯하다. 많은 꽃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꽃이 있었다. 처음 보는 꽃이라 궁금해 하자 지인이 산에서 피는 수국이라고 했다. 꽃집이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풍성한 꽃잎을 가진 수국과는 너무 달랐다. 파란 나비가 환생한 듯 가냘프고 청초한 자태가 매혹적인 헛꽃이 받쳐주고 가운데는 은은한 향기를 머금은 귀엽고 앙증맞은 참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벌과 나비들은 헛꽃의 유혹에 날아든다. 토양과 시기에 따라 연두색 보라색 분홍색으로 꽃이 변한다니 벌 나비들이 유혹 당할 만하다. 헛꽃은 참꽃이 수정을 하고 난 뒤 겨울이면 씨방을 감싸고 하얗게 퇴색되어 말라버린다. 자기에게 오는 영양분을 열매를 맺는데 쏟게 위함이다. 꽃잎 들은 바싹 마른 체 매달려 있다가 이듬해 암꽃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봄이 되어 낙엽으로 생을 마감한다.

자연의 이치가 부모님의 희생을 말해주는 듯하다. 어머니는 십 일 남매를 낳았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식은 사 남매 뿐이다. 첫 자식부터 다섯 번째까지 먼 길 떠나보내고 여섯 번 째가서 기도와 지성을 드려 얻은 두 아들 중, 작은 아들과도 이별하고 오빠와 여동생 둘 네 자매가 남아있다.

어머니는 자식을 없앨 때마다 마다 충격으로 나날이 몸이 쇠약해졌다. 막내 남동생을 일곱 살이나 먹여 없애고 울부짖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다. 아버지의 고초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직장 가랴. 어린 자식들 챙기라하랴. 몸져 누운 어머니 수발하랴. 그 시절 겨울은 왜 그렇게 추운지. 겨울이면 당신의 손은 얼어 부풀어 터져도 군불 지펴 따뜻한 물로 세수시키고 어머니와 자식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침해가 왔다.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군 생활을 하는 오빠와 한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수발은 맡았다. 며느

리나 가끔씩 들리는 딸들에게도 손수건 하나 빨아 달라고 맡기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의 손에 맡겨져 눈살 찡그리게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예의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명언을 아버지는 이미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다. 올케에게도 친구도 만나고 친정에도 자주가고 취미생활도 하다가 오빠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다. 노부부를 모시는 것도 힘들 텐데 노심초사 하시다 내린 생각이리라.

태풍 매미가 휩쓸고 자나가던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병인 심장판막증으로 아버지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 연로해서 수술도 위험하니 약으로 치료하라는 의사의 권유로 약으로 치료하는 중이었다. 아버지의 빈자리에 어머니는 평소에 부르던 “오빠”를 찾아 집을 나서기가 일쑤였다. 오는 일은 애꿎은 경찰아저씨들의 몫이 되었다. 주치의의 말씀이 떠나보내실 준비를 하라고 했다. 선산은 비행장이 들어서서 모실 수도 없고 대구 외각의 납골당에 모시려 계약까지 마치고 애통해하고 있을 때 어머니를 자식에게 맡기고 차마 떠날 수 없었을까. 의식이 차츰 돌아왔다.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다 오신분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깨어나자 말자 어머니 안부 물었다. 아버지가 퇴원 하시던 날 어렴풋이나마 아버지가 어딜 다녀온걸 아는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맞으며 서 너 살 박이 같은 행동으로 어리광을 부렸다. 이제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다는 손가락 약속에 아버지의 눈물 보가 터졌다. 끈끈한 부부애의 상봉은 문병 차 들린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의 눈물콧물을 쏙 빼 놓았다.

부부는19살 동갑내기로 결혼했다. 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으로 연명하던 어머니는 금혼식까지 올리고 먼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형제간의 우애를 염려하시며 오빠에게 세 자매를 부탁했다. 당신이 계실 때는 매개체가 되어 자주 모였지만 떠나신 후, 사남매의 울타리가 흐무러질까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5년이란 세월을 짝 잃은 외기러기가 되어 어머니를 그리다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헛꽃 같은 삶을 마감하셨다.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 가는 가족을 보면 아버지어머니가 그리워진다. 깊은 산속 돌무덤이나 습한 토양에 피어나는 가냘프면서도 여린 꽃 이지만 종족 보존을 위한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은 자식을 낳아 당신의 몸이 사위어 갈 때 까지 돌봐주시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지천에 야생화가 피는 계절이다. 곱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만 산수국의생태를 알고 매력에 빠져 개하는 시기면 가끔 찾는다.

고개 숙인 사람들

2 – A 권 향숙

휴대폰이 과부하로 말썽을 피운다. 갑자기 정지되어 꼼짝을 않고 엉뚱한 화면이 나와 실행하던 것을 방해한다. 배터리도 충전해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소모된다. 답답한 나머지 자꾸만 손이 간다. 휴대전화가 없을 때도 잘 살아왔는데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다.

언제부터였던가…….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시험 철이 되면 집에서 못한 공부를 통학하는 차 안에서 열심히 외우는 학생들이 많았다. 전문 서적을 읽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는 그 모습들이 사라진 지 오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현란한 손놀림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 특유의 장기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점잖게 생긴 중년 신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머니도 통화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 시절 놀이문화를 생각해 보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도록 정겨웠다. 남자들은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 개인의 기량을 겨루는 놀이도 있었지만, 줄다리기, 차전놀이, 널뛰기 강강술래와 같이 여자들과도 여럿이 협동해서 하는 놀이도 많았다. 정월 대보름이나 단오절이면 마을 대항 체육대회를 열어 온 마을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놀이를 즐겼다. 우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온 동네가 축제 분위로 며칠씩 이어졌다. 이런 문화는 어린아이들에게 협동심과 위계질서를 배우는 장이 되어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로부터 내려오던 경험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던 때가 있다. 집안에도 마을에도 나이 드신 큰 어른이 수호신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청장년과 아이들은 어울려 지냈다. 젊은이들은 절기마다 농사법을 어른들로부터 배워왔고 그분들의 경험과 노련함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경

의를 표해왔다. 어른들은 젊은이의 힘을 빌려 상부상조하며 살았다.
배움에 목이 말라 서당에서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으면서 하늘 천 따지를 배웠다. 스승님의 그림자는 함부로 밟지도 못했다. 잦은 꾸지람과 회초리를 맞아도 누구 하나 이유를 달지 않았다. 선생님 말씀이 진리였다.

이제는 손안에든 작은 상자가 옛날 어른들의 경험과 스승을 대신한다. 알고 싶은 것은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면 해결되고, 수많은 세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한 기술도 손안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날 친구가 보내온 동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다. 금방 방천 뚝 을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 스마트 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강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영상이었다. 건널목을 건너면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에 빠져 사고도 유발한다. 듣기에도 혼란한. 피싱이니 스매싱이란 지뢰밭을 조심조심 걷고 있다. 편리한 만큼 문명의 이기가 난무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 기계가 절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놀이 대상도 사람이 아닌 기계로 옮아가고 있다. 혼자 즐길 수 있으니 같이 부대끼고 놀 친구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가 오늘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나만의 상념인가. 나 역시 과부하가 된 휴대전화의 용량을 비우고 SNS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들, 딸에게 쓰는 편지

2 – A 김 숙경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먼저 엄마의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는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단다.

자기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언제나 의젓하며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너희 남매를 보며, 엄마는 모든 시름 다 잊고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주위 또래 엄마들은 자식이 사춘기라 많이 힘들어 한다고들 하는데... 너희 남매는 사춘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나 갈만큼 인성 바르게 반듯하게 잘 성장 해줘서 엄마는 너무 고맙고 또 대견하구나

우리 아들! 어릴 때도 동생이 생겨 좋아하면서 항상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잘 보살펴주더니 , 서로가 결혼을 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룬 지금도
동생을 위하는 마음 한결 같아 엄마는 뿌듯하구나
동생에게 아이가 둘이라 집안 일이 힘들다고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 주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쓰는 아들을 보니 남매의 정이 두터워 보여 얼마나 그 마음 이쁘고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예쁘고, 현명하고, 애교 많은 우리 딸~
오빠보다 새 언니를 더 신경 쓰고 사이가 좋아서 만날 때마다 서로가 안아주며 친자매 이상으로 잘 따르며, 의논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냥 어린 아이 같았던 우리 딸, 어른이 다 됐구나 싶단다.
오빠를 위해 노력해줘서 고맙고, 엄마가 항상 사랑해.....

지금까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주고 이정표가 되었으며 행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며 웃게 만들어 준 우리 아들, 딸에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구나!
끝으로, 저의 아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 “ 부모는 자식의 거울!” 이라고 하는 데, 부모가 맑고 깨끗한 거울이 되려면 더욱더 ‘성실함’이라는 걸레로 열심히 지속적으로 닦아야 하겠구나.

우리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잘 닦을께!!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 엄마의 영원한 보석들아~*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2 – A 김 숙경

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편지를
늦었지만 불효여식 이렇게 써봅니다.

불러본지 어언 수 십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큰 존재 인지를.....

철부지 막내딸 어리광을 부리고, 말도 안되는 떼를 써도
그저 이쁘고 귀엽게만 보셨던 우리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모습 눈에 선합니다.
흰 양복에 백구두, 흰색 중절모까지 정말로 멋쟁이신 우리 아버지!

그 옛날, 엄마 집에 선보러 갈대는 말 타고 다니실만큼 원래 멋이 풍부한 분이셨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안 계신 저희 3남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달프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아버지 많이 힘드셨지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철들었으면.....후회해도 아버지는 이미 제 곁을 떠나 다시 못 오실 길을 가셨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 시집, 장가 보내보니 이제야 아버지의 깊은 그 속마음 조금이나마 헤아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면목 없고, 또 미안합니다.
아버지 계신 그 곳은 편안 하시지요? 어머니도 잘 만나셨지요? 반가우셨습니까? 그 곳에서 행복하시고 편히 계시리라 생각하며, 저희도 무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막내 딸,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아무염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편지 쓰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너무 불효막심한 딸인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뭐가 바쁘셔서 그리도 빨리 가셨습니까?

– 불효여식 숙경 올림 –

기다림

2 - A 김 숙경

투명하고 맑은 파아란 하늘을 올려본다
훌쩍 가버린 님 생각이 나도
슬픔에 잠기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바람에 떠밀려 가는 저 구름아
나의 소식 내 님에게 전해 주렴아
하고 밝게 웃었으면 좋으련만

푸른 초록 옷 벗고 어여쁜 색색의 색동옷 입은
나뭇잎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니

어느덧 한 잎, 두 잎, 떨어져 뒹굴더라도
쓸쓸해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잎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만
바라보며 늦가을이 슬퍼보여도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름다운 꽃 피고 예쁜 새들 지저귀는
따스한 봄날이 오거들랑 또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기다리며
행복했으면 좋으련만....

행복한 나날

2 - A 김 숙경

설레이는 마음으로 많은 기대와 꿈을 안고
대구공대에 입학한 일이다

난생처음 대학생이 되고 보니
어깨가 자꾸 으쓱 해진다
자랑도하며 다니고 싶어진다
혹여라도 누가 좀 물어봐줬으면~

아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공부
체면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내 인생에 신세계가 열리었다
우연히 좋은 인연으로 나의 곁으로 왔다

김한식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의 손을 내밀어 잡아 주셨다
어쩌면 교수님 인품과 매력에 빠져
아마도 대구공대에 입학했다고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어 진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서서히
옷이 젖고 있음을 느끼며 실감한다

대구공대에서의 행복하고 지식을 담으며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모든 일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영원히 사랑할란다

나의 어머니

2 - A 김 숙경

어머니! 그리운 나의 어머니!

천 번, 만 번 불러도 가슴 아린 그 이름
목 터져라 불러 보고픈 나의 어머니
끝없는 하늘 더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어머니

언제, 어디에 계시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도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지켜주세요

삶 속에 더러는 잊혀지면서
보이지도 않으면서
만져지지도 않으면서
늘 동행하고 바람처럼 끝없는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 안은 어머니

삶이 고단하고 외로울 때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 모습 떠올릴 길 없어 안타까운 심정
꿈에라도 나오시면 하고 기다려 봅니다.

꿈속이라도 따뜻한 그 품속
한 번 안겨보고 싶습니다.

사과들의 축제

2 – A 신 현우

한티재 넘어 둥글게 모인
돌담마을에 가을이면
사과 축제가 시작된다

결실 앞에서
익어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빈틈없이 흘린 농부의
땀방울 수만큼이나
넉넉한 풍경이다

한 줌 햇살에도
민낯으로 익어지는 사과들
그들은 아삭아삭한 향기로
영혼을 나눈다

둥글게 읽어가는 하늘에
구름 한 점 두둥실 흐르고

지난 겨울
눈바람 속에서 뿌리내린 고독의 시간도
달콤하게 익었다.

불타는 황혼

2 – A반 안 화출

‘화출아! 남문시장에 불났다!’
동네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엄마와 나는 미친 듯이 뛰어나가고 국민학교 다니던 동생들도 같이 뛰었어요. 시장 안 양장점에는 큰 동생이 가게 지키며 자고 있었지요.
양장점은 나의 분신이자 우리 가족 전체의 목숨줄이었어요. 나는 동생을 깨워 높이 걸려있는 옷감들을 당겨 둘둘 말아 소전가로 들고 가서 막내 여동생에게 맡겨두고 빨리 돌아오려 했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다니던 여동생의 손목을 꽉 잡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불구덩이보다 더 처절한 아우성으로 불의 아귀를 틀어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공업용 재봉틀을 동생과 둘이 맞잡고 반쯤 불에 데이며 소전가로 옮겨왔지요. 재봉틀의 발에 밟혀 동생의 발등이 짓이겨진 것도 몰랐고, 잠자던 복장으로 추운 날씨도 못 느꼈고 불구덩이의 뜨거움도 몰랐어요. 엄마의 처절한 눈물에 우리는 가슴이 뜨겁게 데었지요. 아버지는 두해 전 돌아가셨어요. 연탄 두 장을 외상 달라던 엄마에게 아버지 친구이셨던 연탄집 아저씨가 큰소리로 면박 주던 날, 그 날 일어난 불이었지요.

나는 엄마가 울까 봐 새까만 잿더미 위에 재봉틀 하나와 옷감 몇 장으로 다시 시작하여 동생들 대학까지 공부시켰지요. 그때 내 나이 22살 소녀 가장이었어요. 나는 일 년 내내 재봉틀을 돌렸고, 퉁퉁 부은 다리가 너무 아파 꿈에서도 헛소리를 했지요. 불이 나서 끼니를 잇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동생이 서울에 대학 입학시험 치러갈 기차비를 마련하지 못해 앞이 캄캄한 시절이었어요. 기성복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58년쯤 지난 일인가 봅니다.

"대학 졸업반인데 큰아들이 우리 모두 해외여행 보내주나? 위드 코로나도 될 건데, 언니야 졸업 선물은 뭐할까?" 중간고사를 마친 내게 여동생이 전화로 물었다.

명덕국민학교 졸업 후 공장에 다녔어요. 그리고 16살 때 양장 학원에서 한 달 배운 후 양장점을 차려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저희 아들 셋, 모두도 잘

키웠지요. 재봉틀 소리 들으며 대학을 졸업한 동생들과 세 아들 앞에서 나는 칠순이 지나도록 영어도 못 배운 서러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학교에 대한 열망이 커져 일흔에 중학교를 들어가 동생에게 과외지도 받으러 다녔어요. 한남 고등학교 3년 때, 수학 3차방정식을 동생이 애통터지게 고함지르며 설명해도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입술은 부르트고 시험 성적은 자꾸 낮아졌어요.
창밖의 서녘 마루에 벌겋게 달아오른 해가 안절부절하며 넘어가고 있었죠. 나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장은 두근거리고 긴장감으로 당황했어요. "이차방정식은 들으면 알겠는데 삼차방정식은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

동생은 특기를 살려 디자인과를 선택하라고 조언했건만 나는 듣지 않고 같은 처지의 남, 여학생들과 함께 사회복지과를 선택했어요.
이제 팔순인 나는 기말고사만 끝나면 졸업장을 받지요.
얼마나 서러운 졸업장인가!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팔순에 졸업장 받아서 뭣하냐고, 하지만 졸업장으로 어떤 것도 못하더라도 졸업 자체가 참 좋아요.
동생들은 나의 졸업식을 가슴 뜨겁게 기다리고 있지요.

나는 휴일이면 남학생들과 파크골프 치며 황혼을 보내고 있어요.
늦은 학교 생활이 나를 한 해씩 젊어지게 한답니다.

가을의 길목에 서서

2 - A반 장 하정

높고 높은 가을 하늘
맑고 맑은 가을 들녘

흙내음 풀내음
들꽃 향~
바람결에 다가오네

따가운 햇살과 가뭄에도
벼는 알알이 여물어

풍성함을 퍼주는
가을 풍경

메뚜기, 고디 잡던 친구들과
하하 호호 재잘거렸던 길

무심히 지나온 날들이
어느덧 여기 있네

살포시 눈감고
지난 날 떠올라 오네

나의 행복

2 – A반 최 귀순

아파트 건물 사이
걸려있는 햇살이
꽃피기를 기다린다.

어려서부터
나는
여름을 좋아했다.

모든 산천에
짙은 녹색의 풍성함이 좋았다.

그렇게
꿈을 그리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운명이
삶의 나무 위에 무성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며
기쁨의 친구들을
제 마음속에 걸어 두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간들

2 – A반 최 귀순

화창한 어느 날 집 앞 학산에 올랐다.
신선한 공기~ 풀 내음 향긋한 푸른 숲 속에 한 몸 되어 있는 나,
저마다 사람들은 품은 마음 다르지만, 운동하며 산책을 즐긴다.
나도 그 속에 일원이 된다. 함께 있음을 감사하면서.
산이 준 이 푸근함을 ...산 길 따라 나도 한 발 한 발 걷는다.

이런 저런 생각도 하면서 콧노래 부르며. . .까치도 노래한다.
올려다 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다. 좋은 날씨! 공기 맑은 산 속에 있으니 이 또한 행복하다. 걷다 보니, 걷다 보니, 아는 사람도 만나고 작은 만남도 즐겁고 코 끝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이 또한 감사하다. 내가 살아 있다는 존재에. .
.
산길 따라 가다보니 저~기 저~기 저~~곳에 대구공업대학교가 산 아래에 보인다. 왠지 그 건물이 정겨워 보인다. 내가 그 곳에 몸 담아 있다는 사실을. . . 붉은 벽돌집 나무가 아름드리 있고, 우리 마을에 있는 아주 큰 집

삶의 반 능선에서 찾은 그 집에 내가 다니는 대구공업대학교!
늘 갈망했던 대학교에 나도 대학생이라, 지금껏 살아온 시간 속에서
그렇게 고뇌하며 희망했던 이 시간들이
지금 너무 행복함을 진하게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벌써 졸업이라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생활도 조심스럽게 지낸 지난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어느새 떠나야 하는 시간이 왔음이
아쉬움과 그 동안 행복하게 학교생활 잘 마침을 감사한다.
새로운 시간에 만난 학우님들도 반갑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임을. . .

벗들이여!
건강함은 언제나 지나침이 없는 외침이라 **건강하~세~요~~~!!**

단풍 연가

2 – A반 방 갑향

홍자 빛으로 익어가는 가을
세상 모든 푸른 잎들이 꽃이 되는 이 즘
십일월의 봄 인가 합니다.

볕은 점 점 엷어져 나직이 비껴들고
나뭇잎 하나 헐렁하니 뒹구는 소기가
쓸쓸히 느껴지는 갈바람 속
볕이 고엣 던 자리에
화려한 낯 색의 산 빛은 따숩기만 합니다.

지난여름 불볕에 데여 놀란 초록들이
저리도 때깔 고운 단풍이 되었던 게지요
봄꽃 보다 더 고운 까닭입니다.

한 해의 절정을 아름답게 갈무리 짓는
사멸의 순간... 단풍

허니, 조기 빠알간 잎 하나 떼어 물면
꽃물 져 달뜬 마음에 아찔한 멀미가입니다.
있지나요. 나도요 단풍 들고 말았습니다.

만추지절 고적한 마실 길 싸묵싸묵 걸음 두며
분분했던 일상의 곤한 마음 줄일랑 살피고 볼 일입니다.

저무는 가을 밤 노오란 은행잎 한 봉 들어
고운 화등 하나 밝혀두어 봅니다.
대상 없이 흔들리는 서정에 사무치는
그대들 과 나의 가슴에 요

내 고향 비슬로

2 – A반 방 갑향

향기 그윽한 산길 따라
푸른 봄 위로 언 ~ 땅
빠져나온 꽃송이 리듬 찾아 비슬로로 모여든다.

산과 강 공단이 한 몸 되어
청 보리 밭 뚝 길~ 불 지르고
대견사로 올라서니 정상은 꽃이로다.

붉게 물들고
달성은 좋은 고을이라 소문났더라.
그러게 한 낱 이 사간들을 곱씹어 보니
나의 지나온 나날들이 아름다웠다고.

내가 가장 잘 한 일은
대구공업대학교에 간 것이고
그 곳에서 친구를 만난 것이고
이 시간
제일 행복을 몸 저리도록 감사함이라.

먼 훗날 아니 졸업 후 우리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희망사항임을. . .

벗들아!
모두 건강하시리라.

우리 모두 한 바탕 웃으며 껄껄 웃으며
자지러지고 싶다. 하하하하하. .....

2021. 12.

눈이 시리도록 보고픈 사람

2 – A반 임 기남

황봉학
땅거미가
강을 삼키고
들을 삼키고
마을을 삼키고
길게 하품하며
하늘로 올라가 잠이 들 때
눈이 시리도록 보고픈 사람
차마 그립다는 말을
한 편의 시로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여린 목숨까지 내어도 모자랄
애타는 사랑
그 무한의 사랑을 당신은
헤아릴 수 있을까
내 영혼의 빛이라도 바쳐야 할 당신에게
나,
가난하여 당신에게 드릴 선물이 없습니다
땅거미로 올라가 까아만 하늘에
내 그리움을 조각으로 띄워
파란 별빛이라도 되오리까
아,
눈 시리도록
보고픈 사람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

2학년 A반 육명숙

* 경전 공경과 공양의 공덕

“어디서든지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칠보로 탑을 쌓되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요, 또다시 사리를 봉안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이미 여래의 전신全身이 있는 까닭이니라.”

『 법 화 경 』

「법사품」

불자의 첫걸음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로 시작된다. 세상의 보배가 귀하고 귀한 것처럼 불교 집안에서 귀하고 귀한 세가지 보물인 三寶(삼보)가 있다. 부처님(佛寶)과 부처님 가르침(法寶)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승가(僧寶)를 말한다.

경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삼보 가운데 하나인 법보이기에 부처님 진신사리로서 법사리라고도 한다. 따라서 경전에서는 불상이나 불탑과 같이 공경하고 공양함을 권유하고 있다. 가령 불국사 석가탑 안에 모셔져 있던 『무구정광대다라니』처럼, 탑이나 불상 내부에 경전을 모신 것도 이러한 경전 말씀에 근거한 신앙 행위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무렵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다 법은 진리이자 진리를 표현한 부처님 말씀이다. 깨달은 자가 부처님이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진리라고 할 때, 불보가 바로 법보인 셈이다. 경전이 바로 부처님 전신(全身)이다.

이러한 부처님 전신인 경전에 대한 공경과 공양은 쓰거나 [서사書寫] 받아지니거나

[수지受持] 읽고 외우거나 [독송讀誦] 풀이하는 [해설解說]등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덕은 경전 여러 곳에서 언급한다.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여래가 부처의 지혜로써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아서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하리라.”
『금강경』

경전 한 글자 한 구절이라도 믿고 받아 지닌다면, 갠지스 강 [恒河]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목숨으로 공양한 공덕보다 크다고 하였다. 잠깐 생각해 보면 수긍이 가는 말이다. 서사 · 수지 · 독송 · 해설, 즉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는 행위는 부처님 가르침이 멸하지 않도록 널리 유통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렇게 경전을 널리 유통한 공덕은 매우 크다. 그리고 서사 · 수지 · 독송을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안다. 그 순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 앉는다는 것을.

* 대장경大藏經과 삼장三藏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팔만은 팔만사천법문에서 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팔만사천법문이라고 한다. 이때 팔만사천은 똑 떨어지는8만4천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팔만사천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팔만사천법문은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말한다.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모은 불교성전을 대장경이라고 한다. 대장경은 일체경一切經, 일대장경一代藏經, 대장大藏이라고도 한다. 대장경에는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훌륭한 스님들의 말씀도 함께 있다.

따라서 불교사전에는 대장경을 ‘경률론 삼장이나 여러 고승의 서적 등을 모아서 만든 불교성전’이라고 정의한다. 삼장三藏이라는 말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 때문이다. 그렇지만 삼장이 무엇인지 아는 일반인은 많지 않으리라.

오래전 ‘퀴즈가 좋다’라는 퀴즈프로에서 ‘삼장’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답하지 못해 거금의 상금을 놓친 이가 있었다. 삼장은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을 말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를 기록한 경전은 경장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기록한 경전은 율장이다. 이러한 경장과 율장에 대해 부처님 제자나 후대 스님이 풀이한 저서를 논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률론 삼장에 능통하신 분을 삼장법사라고 한다. 중국 역경사譯經史에서 대표적인 삼장법사는 『금강경』, 『묘법연화경』 등을 번역한 구마라집스님(344~413),

『반야심경』 등을 번역하고 『서유기』의 실존 인물이었던 현장스님(602~664)등이다.

* 경판經板과 판전板殿

부처님 말씀을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부처님 열반 후 200년까지는 부처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지 않고, 스님들이 암기하여 전하였다. 그때도 문자는 있었지만, 성인의 말씀을 문자화하지 않고 외워 전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다. 그러다가 나뭇잎 등에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도록 바윗돌에 새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국 등에서는 목판에 새겨 대대적으로 경전을 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바람이나 국가의 번영 또는 보호를 위해 경전을 베껴 쓰거나 혹은 더 나아가 경판을 새기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경한 경전이나 목판에 새긴 경판은 별도의 공간에 모신다. 불상 내부에 복장하거나 또는 별도의 법당을 세워 그 안에 모시기도 한다.

경전을 인쇄하기 위한 경판이나 경전을 모셔놓은 전각이 판전板殿이다. 대장전大藏殿, 장경각藏經閣, 수다라전修多羅殿 이라고 한다.

봉은사의 판전은 화엄경판 등을 보관하고 있다. 판전은 1856년 9월에 건립되었다. 1939년에 발생한 봉은사 대화재 때에도 불타지 않은 유일한 전각이다. 따라서 현재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불단을 제외한 삼면 벽에 설치된 판가販價(책꽂이 같은 판꽂이)에 나무로 된 경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판전은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남호스님(1820~1872)의 수행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판전' 현판은 추사 김정희(1786~1856)선생의 말년 글씨다.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한 판전에서 진행되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오늘날 중생을 위한 또 하나의 자비 방편이다.

해인사의 장경각은 고려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을 모신 전각으로 유명하다. 고려대장경은 몽고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시작은 극난 극복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경전 신앙에도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해인사 장경각 입구 문지방은 둥근 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춘분과 추분 무렵에 이 둥근 문지방과 기와지붕이 함께 어울려 연꽃 모양의 그림자가 장경각 안에 드리워진다.

이때 연꽃은 부처님 세계, 불국토인 정토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위 다락방에는 팔만대장경을 인경한(찍은) 경전이 놓여 있다. 장경각을 통과하는 이는 자연스럽게 경전을 머리에 인(경전을 정대한)공덕을 짓게 된다.

* 윤장대를 돌리는 공덕

대중을 배려하는 경전 신앙의 백미는 윤장대다. 윤장대 안에는 경전이 모셔져 있어 윤장대를 돌리면 그 안의 경전을 읽은 공덕과 같다고 한다. 이는 경전을 가까이할 수 없는 이를 위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다. '설마 윤장대를 돌린 것이 경전 읽는 공덕과 같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자. 분명히 경전에서는 경전을 수지 · 독송하는 공덕을 언급한다. 그런데 지금은 책이 흔하고 글을 읽는 사람도 많지만, 그 옛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그리고 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경전을 읽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글도 모르고 책도 없는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전 독송 공덕 어쩌고저쩌고 해 봤자 그에게는 달나라에 있는 토끼의 뿔이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말씀하였다. "이번 성지순례는 윤장대가 있는 모 사찰에 갑니다. 그 윤장대를 한 번 돌리는 것이 경전 한 번 독송하는 공덕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날을 위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할 것이고, 그날 윤장대를 돌릴 때도 지극정성으로 돌릴 것이다. 일심으로 지극정성 돌린다면 알음알이로 경전을 보는 것보다는 더 뛰어나지 않을까.

글 | 불교학자 목경찬 참조

나의 기쁨인 소년원 친구들

2 – A반 제갈순남

주일 오전예배를 마치고 국수 한그릇 후딱 먹어 치우고 동동 걸음으로 지하철로 향한다. 오늘 따라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기분 좋은 날이다.
친구들과 앞산 둘레길이라도 걷고 싶은 날이다 .
그러나 소년원에서 헴버거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망울들이 나를 더 기분좋게 한다.

신암 지하철에 내려 범어 교회차를 만나 10여명의 우리 일행들이 칠곡 소년원에 도착하면 아무나 들어갈수 없는 철문이 열린다.
법무부 허락으로 소년 보호위원 증명 명찰을 목에 걸고 아이들을 섬긴지도 10년이 넘은 세월!! 목사님 인도로 예배를 마치고 분반 공부로 각자 자기가 맡은 호실로 들어간다.

내 반은 수요일 마다 제판 받고 들어온 신입반 담당이다. 여기서 한달 동안 교화과정 끝나면 재판의 판사의 판결로 집으로 퇴원하는 학생과 6개월, 1년, 2년, 소년원 생활하는 학생들로 나뉘어 진다.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 들로 절도, 강도, 사기, 강간, 각종 죄목으로 팔과 온몸에 문신으로 자기나름대로 멋을 내는 아이들의 위압감도 있지만 한명한명 대화 해 보면 너무나 착해 보이고 정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박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기다리는 눈들이 어쩜 나보다 가지고 간 헴버거를 더 기다렸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맘껏 사랑해 주고 싶어 어떨 땐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아 판결을 받고 퇴원을 하면 옛날보다 더 가족과 주위의 우리 사회에 욕먹고 소외당하는 친구들이 아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변화되길 소망한다.

웅크리고 절망적이고 힘빠진 아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
어떠한 잘못으로 여기 들어 왔다고 형편없는 새끼로 말하지 말라.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이야 영접하는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성경은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한 권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 친구들의 어깨가 누가 당기듯이 스윽 펴진다. 빵을 먹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도 아름답다.

아이들의 인사를 뒤에 두고 돌아오는 발길이 날아갈듯 기쁘다.
그 어느 것도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뿌듯함이랄까?
이 친구들이 퇴원하면 변화된 모습의 친구들로 당당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친구들아 함께 힘내자. 너들 뒤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단다..

사랑해 !!
축복해 !!

가을 하루

2 – A반 강분이

맑고 고운 햇살 11월의 하루
가을 바람 결에 떠나가는 낙엽

마지막 나뭇잎 가을 햇살 속으로
한 잎 두 잎 춤추듯 떠나가네

잠시 잊었던 미래의 나를 찾아
오늘도 내일도 변해가는 나를 찾아

세월은 소리없이 살며시 떠나가고
나의 교정 하루 하루 떠나가네

팔공산 가을 여행 추억장에 남아 있고
아쉬움에 또 이렇게 하루가 떠나가네

연꽃

2학년 A반 권 향숙

촛불을 켜놓은 듯
꽃봉오리 숙연하다.
은은한 향기
저만치서 아득하다
지휘자의 손놀림에 눈을 맞추듯
어긋난 잎들의 햇빛 바라기

찢어진 삿갓이 물위에 떠있네
베트남 처녀의 모자가 바람에 날렸나
보일 듯 말 듯 가리진 얼굴
떨어지는 빗방울 옥구슬로 구르네.
진흙탕 속에서도 순결하고 고고한 자존

아비 눈을 뜨게 한
청 이의 화신인가
청 이를 닮으라는
조상님의 가르침인가
까맣게 익은 연밥1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
다음 세대의 청이 무수히 솟겠지

시간

2학년 E반 김경숙

똑똑 너는 왜 혼자 달려가고 있어.

같이 걸어가면 안될까

구름 보면서 낙엽 밟으면서

천천히 걸어가자

때로는 눈사람도 만들고 싶은데

너는 저만치 가고 있네

세월아 시간아 우리 천천히 같이가자

우린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

내 인생의 지향점

2 - E 강 은희

인간은 미완성으로 태어난다는 어느 분 말씀이 긴 세월을 지나면서 진리와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편견이요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만이다.
이 두 가지를 버리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인생이라도 위선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매 순간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상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세와 언어 표현은 나의 인격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세상일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자면 반성은 반드시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해암스님의 < 마음 비우기 > 글에 '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하는 것 ' 과 가장 어리석은 일은 '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 '이라 했다.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세태가 갈수록 높아진 현실에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편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창의력 계발은 퇴보하는 수동적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적 이슈인 일자리 창출은 나 같은 세대는 언감생심 언저리로 밀려 난지가 언제인가?
하지만 현실을 바로보고 시니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해 본다.
세상에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르고 관찰과 관점이 다르듯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리라.
아름다운 시니어로 사는 길은 자신을 돌아보는 관문에서 기쁘게 통과하여 남은 인생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꽃길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끝)

졸업

송 금옥

느려도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걸음
오래 걸려도 나만의 속도로 우직하게 나아가는 걸음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
배우고자 결심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면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길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나를 나아가게 할 힘이 되는 것

느려도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걸음
오래 걸려도 나만의 속도로 우직하게 나아가는
무엇보다 위대한 걸음

졸업이 다가오니

2학년 D반 이 태출

저는 상인2동 한 곳에서 55년째 살고 있는 올해 74세의 만학도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내 노후를 걱정하게 되고 내 주변을 둘러보니
나이 듦이 신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정적으로 많은 것들의
복합체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인지 예전에 주위
지인들이 노후를 준비한다고 때론 더 나은 노년을 위해 사회복지학을
배워 본다고 했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다가 한해 한해가 더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막상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려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하기를 몇 년.. 용기 내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도 늘 나 자신이 동기들에게 인생 선배로써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의욕은 앞서는데 아무것도 뒷받침 안 되는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지더군요.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한 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게 되고 다시 공부를 잡게 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고민을 하며 주저했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모든 것이 뒤처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지금 배우는 공부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주말 토요일 학교 가는 날이면 학업에 대한 부담감에 주저하게
되지만 학업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성실함이면 성적과 상관없이 괜찮지
않을까?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해 보자. 하는 나 자신에게
거는 최면으로 학교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최고 연장자인 나를 배려 해주고 많은 도움을 줘
지나고 나서 보니 많은 이들의 손길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득히 멀게만 생각했던 졸업이라는 것이 막상 코앞에 다가오니 지난 시간
들이 주마등처럼 느껴지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게으름을 반성 해 보기도
합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칭찬

전 인숙

말로써 칭찬하지 마요
그것은 우리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아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말로써 칭찬하지 마요
그것은 듣는 이를
자만과 교만의 늪으로 빠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칭찬은 마음으로 해요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칭찬을 해요

미소와 함께 마음으로 하는 칭차은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사심 없이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게 해주니까요

미소와 함께 마음으로 하는 칭찬은
칭찬받는 이에게
오히려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해주니까요

주는 이에게는 사랑을
받는 이에게는 겸손함을
모두에게는 따뜻한 기쁨을 가져다주니까요

살 다 보 니

2 – D반 양 다경

살다 보니 살다 보니
내 나이 50대 초중반을 넘어갈 즈음
대학에 입학을 하였더이다
살다 보니 살다 보니
23년여 만에 이사를 하였더이다

살다 보니 살다 보니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주홍글씨처럼 53여년 동안 나를 따라붙은 첫 이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새로운 나로 거듭 탄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더이다
살다 보니 살다 보니
대학 교수(님)들을 알게되 고
더불어 대학 동기생들이 생기더이다

졸업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길바닥에 뒹구는 늦가을의 저 노오란 은행잎처럼
푸르렀던 봄날의 기억을 추억의 이름으로 남기우고
저마다의 삶속으로 또다시 걸어가야하는 우리들

못내 코로나19의 여파로 캠퍼스의 낭만과
동기간의 우정 쌓기에 모자람이 아쉽지만
김한식 학과장님의 '장군스피치' 덕분에
나를 알림에 충분하였고

각양각색의 넘치는 매력으로 다가온
나의 동기 나의 학우(님)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됨에 감사하며

무릇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빌어드릴지어다. – 끝 _

과거를 접고 미래로,

2 – D반 전 인숙

우리 태양을 마주해봐요
우리의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
과거는 뒤에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과거를 보려 등을
돌리는 순간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바라보게 되요

그 시간에 우리의 앞에 펼쳐질
'바꿀 수 있는'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늘에 뜬 태양을 무서워하지 마요

내일의 어제가 오늘이라는 사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사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태양을 마주해요

아름다운 오늘이
찬란한 내일을 만드니까요

캠퍼스의 마지막 노란은행잎을 보면서

2학년D반 박 경숙

모든 사람들은 저 마다의 사연은 있겠지만 사람 사는 가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종이 한 장차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못 다한 공부에 한이 서려 이 늦은 나이에 만학도의 길에 들어섰다.
고민하던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강의 속에서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내속에서 지혜와 지식이 쑥쑥 자라났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가족한테도 못 다한 배움에 대한 열정, 갈망을 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고만 있었던 대학에 대한 로망을 이곳 대구공업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학기를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조금만 있으면 대학교 졸업생이다. 라는 것이다. 내 생의 최고의 봄날이라는 어느 가수의 노래가사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봄날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졸업하면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나의 이력서에 꼭 써 보고 싶었던 학력란에 대구공업대학교 졸업 이라는 글자를 써보고 싶다.
대학교 생활을 뒤돌아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다.
늦은 나이에 열망했던 대학공부도 끝마칠 수 있었고 내 인생에서 환산할 수도 없는 큰보물인 학우들도 만났다. 사랑하는 학우들과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대학생활하면서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한 거 같다.
졸업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대학생활을 이제 마침표를 찍을 려고 한다. 학우 분들과 존경하는 교수님들 이제 머리 숙여 인사드리며 졸업을 할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작곡가란 어떤 사람인가?(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최 예경

아들아!
훌륭한 작곡가란 어떤 사람인가!!
문득 이런 생각을 가져 보았단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농사꾼의 맏딸로 태어나서 지금은 들어보지도 못한 보릿고개의 시대에 나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모들과, 삼촌들을 위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오로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살았었단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살아가면서 그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삶들이 네가 태어남으로 이제는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 너무 고마웠단다.

네가 태어나고 엄마는 항상, 가난을 대 물림 해서는 안된다, 가난의 고통은 절대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좋은 음식, 좋은 옷, 먼리 하며 10원짜리 한 장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했단다. 그리고 니가 중학교때 공부를 잘해서 돈도 잘 벌고 존경받는 의사나 선생님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문득 음악을 한다기에 과연 음악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실망이 컸지만 아들이 한다기에, 나는 아들이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뒷받침 해야겠다는 마음에 외국으로 유학까지 보냈단다. 그런 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3년이나 방에서 백수로 있는 것을 보고 엄마는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그러든 어느 날 대구시립 국악단에 합격했단 소식을 안겨 왔을 때, 이 엄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리고 10년 동안 남들 즐기는 연애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전진한 결과, 네가 원하는 국립대학교 정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소식에 엄마는 온 세상을 얻었는 것 같은 기쁨을 가졌단다.

아들아! 이제 네 나이가 40이 되었구나, 이제는 결혼을 해서 그냥 그곳에서 음악을 하면서 남들보다 부유하지도 못살지도 않게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엄마는 네가 객지 생활하며 잘 먹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항상 걱정이여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 주러 갈려 했지만 너는 바쁘다며
엄마를 오지 말라고 해서 항상 마음에 걸렸단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네 몰래 부산대 근처에 가서 집을 알아보고 왔단다.

덜컹거리는 기차 칸 안에서 여태껏 아들의 먹는 것, 사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문득 네가 하는 작곡, 훌륭한 작곡가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 보았단다.

예술, 그리고 창작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덜컹이는 기차 차장안에서 화려하고 빛났던 황금 들녘이 추수가 끝나
싸늘하고 추하기 만한 누런 논바닥을 드러내듯이 작곡가, 예술의 삶은 겉은
화려하지만 안으로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더구나!

그러나 아들아! 너의 곁엔 항상 이 엄마가 있단다. 행여나 너의 예술세계가
힘이 들고 지치면 이 엄마를 떠올려라 내가 죽는 날 까지 널 위해 너를
돕고 너를 응원하니까 힘들어 하지 말아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해답이 없단다. 해답을 찾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인지 모른다.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엄마를 생각해라!
너의 외로움과 방황은 엄마가 모두 받아 주리라!

2021년 12월01일

내 인생에서 대학이란?

2학년E반 강 미자

작을 小, 가운데 中, 높은 高, 큰 大, 작은 데서 시작해서 높은곳을 지나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큰大자가 들어간 학교 그것이 大學 이었다

내 어릴적 아련한 기억 속에 자리한 할머니의 목소리. . .
뉘집 아들은 성공 해서 大처로 갔다네~~
저것은 집안 망치고 종내는 大국까지 망칠끼라~~~
大의 명분은 따라야지~~~

여기서 대처는 서울 이었고 대국은 중국 이었으며 구멍가게에 모여앉아 여로를 보며 시어머니 박주아를 두고 한 악담 이었다 대의는 명분이 있는일 이었다 이런 큰 대자가 들어간 대학교는 내게는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절대로 닿을수 없는 아픔이었다

봄처럼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우며 아름답던 내 청춘도 그 앞에선 기가 꺽였고 황금 같이 빛났던 내 젊음의 행진도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무엇이든 다 해낼수 있을 것만 같았던 피끓던 시절에 너무도 간절했던 대학을 갔었다고 세속에서 말하는 출세를 꼭 했다는 보장도 없었으면서 출세에서 멀어진 것이 그탓 인것만 같았다

지독한 대학의 열등감은 적어도 대학 이라면 연속극에서 장면이 바뀌듯이 "짠" 하며 내삶의 장면을 180도 바꿔 줄것만 같았기에 뜬구름을 움켜잡고도 간절했던 대학의 염원만은 반드시 실현 되리라 생각 하곤 했다 하지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상사화의 꽃과 잎처럼 나와 대학도 길다란 평생선을 그리며 그렇게 그렇게 멀어져만 갔다

내삶의 주어진 시간중 어디쯤 가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어느날 나는 대구 공업대학교에 만학도라는 이름으로 서있었고 그렇게도 그리웠던 대학에 발을 들여 놓았다

대학과 연상되는 내 마음속 심연에 흩어져 간신히 박혀있던 단어들을 하나씩 조심스레 들춰 내 보았다 선배들에게 쩔쩔 매면서도 희망으로 가득찬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의 오리엔테이션도, 힐링을 전제로 마음껏 기를 발산 할수 있는 엠티도, 나의 생각과 재능을 한껏 보여줄수 있는 프리젠테이션도,얼굴을 붉히면서도 배시시 웃을 수 있는 수줍은 미팅도 공부의 수고로움을 한방에 날려주는 장학금도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청춘이 지나간 미팅은 제쳐두고 하나씩 해볼수 있을꺼라는... 기대에 너무 행복했다

부풀은 내 마음은 날개가 돋아서 날아갈 것만 같았는데 웬걸 코로나 19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 인지도 모르면서 장밋빛 꿈은 이어졌다 이제나 저제나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갈 때 절망하고 싶었다 “난 맨날 왜 이래야 돼 테스형” 테스형은 너 자신을 알라며 헤어져 너덜거려도 넌 여전히 학생 이라고 일러 주었다

이렇듯 사연을 담은 교정을 이제 떠나야만 한다 참~아쉽다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가슴 찡하게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시린 가슴 한켠에 고이고이 접어 두리라
“ 난 대학 물 먹었어”를 외치고 싶다 그리고 이내 피식 웃는다 2년 이라는 절반이 나를 기다리니까~~~난 대학을 쭈욱 사랑할 것이다 그안에는 남은 2년도 평생대학도 노인대학도 있는 나의 연분홍 장미빛 대학의 꿈은 아직 진행형이다

어린 시절 안아주기

2학년E반 신 혜옥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 공기가 쌀쌀해지기 시작한다 가을에만 느낄수 있는 낙엽 내음을 맡게 되면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가끔씩 떠오른다.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이 가을 냄새는 어릴 때랑 똑같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아버지가 안계신 우리집은 일하느라 바쁘신 어머니를 대신해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오른다 고등학생 오빠는 힘이 쎄니까 나무를 잘라 모으고 언니와 나 남동생은 자루를 하나씩 들고 솔가지를 모은다
나무하러 가는 도중에 뽑아 먹었던 무맛은 달고 아삭하다 나무를 하다보면 양이 많아져서 자루에 담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때 언니는 나무를 버리더라도 담을수 있을 만큼만 담아서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힘들게 모아둔 나무가 아까워서 자루가 터지도록 담아서 가져왔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나를 보고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 혜옥이 욕심 많아서 앞으로 잘살꺼다” 라고 도리어 기를 살려 주셨다. 나무를 다한 뒤 집으로 가려면 꼭 지나쳐야 하는 마을길이 있다 친구들이 한명도 놀고 있지 않을때는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날은 많은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가 있다 그런 날은 산에서 안내려 가고 싶지만 다른 식구들도 있으니 나만 안내려 갈수도 없다. “제발 내가 지나갈 때쯤이면 친구들이 그만 놀고 집으로 돌아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내려온다. 머리에 자루를 이고 친구들 곁을 지나 갈 때면 나는 너무 창피하다 부끄러운 마음에 친구들과 눈도 안 마주치고 빠른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무거운 나무를 이고 오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내상황이 힘들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일 나가신 엄마는 집에 없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 있어도 밥먹으라고 불러주는 식구는 없다 가난한 과부의집엔 친척들도 왕래를 잘 안한다 외로움이 쌓여서 그런지 가끔 외할머니가 오시면 자고 가라고 울고 생떼를 부렸다 . 엄마가 어쩌다 집에 계시는 날이 있다 그런 날은 너무 좋아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간다. 많이 외롭고 사람이 그리웠던 시절 이었다.

어른이 된 지금은 내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힘들지 않다. 그건 바로 내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외롭지 않도록 안아 주는 것 이다 그것이 결국 나를 안아 주는 일이다

코스모스

2학년 E반 장 화자

한들 한들 코스모스
날오라 손짓하네

코스모스 꽃길 따라 작은 별들처럼
예쁜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으면
꽃길 따라 걸어가~~

손잡고 같이 가자고
예쁜 손 내밀며 한들거리네

바람이 휘이휘이 불면
한들 거리네

내 마음도 같이 한들거리네

학과장 교수님께

2학년E반 김순옥

김한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80세의 늦깍이 임에도 학교에 입학 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 했습니다.

학우님들과 여러 교수님들 덕분에,
저도 복지사의 꿈을 가질 수 있었었습니다.

어제같이 학교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서 이년이 지나 갔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우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졸업을 맞이했지만
앞으로도 교수님의 “와이낫”을 생각 하면서 노력 할겁니다

교수님들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며
모든 학우들의 앞날에도 지금같이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은공을 보답도 못하고 졸업을 해야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앉으나 서나 교수님의 가르침과 은공을 생각 하겠슴니다.

두서없는 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2학년E반 박은정

조금은 낡은 표지
그러나, 너무나 선명한 세 글자의 나의 이름
그 책명 아래
오늘도 나는 쉼 없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장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회의 한숨을 줄이려고
수정이나 삭제를 허락지 않기에
이 칸이 마침표가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51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50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도와 설렘으로 받은
커다란 원고지 한 장
페이지를 알리는
51이란 숫자만이 또렷한
열두 줄 365개의 빈칸들을
유채색, 더런 무채색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어제의 태양 아래
내일의 탑을 쌓아 올리는 오늘, 또 오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도
무릎이 피를 내뿜을 때도
단 한 번도 쉼표를 허락지 않던 매정한 시간

어느새 다다른 열두 번째 마지막 줄에 서서
첫 줄부터 훑어보기도
때론 앞 장을 넘겨보기도 하면서

언뜻언뜻 지우개의 마음이다가
이따금은 콧노래도 흥얼이며
몇 칸 남지 않은 51 페이지를
편집하는 중입니다

12월의 끝날 자정
많이 달라진
아니, 너무나도 닮은 나
조금 더 나다워지려 애쓰며 가꾸어온 나를
반가이 맞이하렵니다

그리고 잇따라 펼쳐질 쉰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위에
하얗게 비워진 칸들
오로지 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칸들을
알차게 엮어 가렵니다

스트레스

2 – F 심영미

새로운 도전을 할 때면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당신이 찾아옵니다.

당신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두려움, 불안, 두통이라는 반갑지 않은 친구도 함께
찾아오곤 하더군요.

허나, 당신과 멀어지면 성장과 변화도 멀어지겠지요.

당신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타협과 도전하면
성취감, 열정, 에너지라는
반가운 친구도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두발, 세발...

가로수 느티나무

김 남이

봄이 되면 연두색 잎을 선사하고
여름이면 진 초록색으로 그늘을 우리에게 주어
시원하게 해주는 고마운 느티나무

가을이 되면 갈색 낙엽이 되어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낙엽은 나비가 되어 팔랑팔랑 날아 오른다.

나는 그 많은 낙엽 나비들 속을 달리면
마음이 즐거워진단다.

매년 감사하구나

올겨울도 무사히 잘 지내고
내년에도 변함없는 그대로를 보여주길 바란다.

느티나무야

가을 겨울 그리고

2 － F 권 성옥

햇살은 옅어져만 가는데

바람은 짙어져만 간다.

사랑이었던 계절은

그리움의 계절로 간다.

마지막 남은 커피빛 낙엽이

하늘 위에 눈꽃 피우고 나면

이내 봄의 머리맡에 내려앉는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김봉옥

동네 공원 여기저기에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계절을 알린다.

깊어가는 가을, 가장 짙은 오색의 빛깔로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아름답게 제 빛을 발하고 떨어지는 단풍잎을 볼 때면 우리의 인생도 나뭇잎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늘 청춘일 줄 알았는데.. 세월이 야속하다 여겨진다.

한때는 푸른 향기 가득한 형형색색의 삶을 살다가
볼품없이 생을 접고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의 삶이 나뭇잎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늘 가을의 끝자락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늦가을의 향기가 가슴을 저리게 한다.

고향생각

김남이

저는 산 좋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늑한 산골 동네에서 자랐어요.
7남매 중 맏이로 태어난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은 할 수 없었고, 남동생을 진학시켰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일에 부업으로 겨울에는 가마니를 짰는데.
저는 새끼 꼬기를 도와야 했고,
고종사촌 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조모님, 부모님, 우리 7남매, 고종사촌동생까지 식구가 11명인지라
학교 다니는 동생들 도시락과 식구 수대로 밥을 풀 때면
손목이 아플 정도로 푸어야 했고,
빨래는 도랑에 가서 빨아야 했으며, 오후에는
동네 공동우물 물을 물동이로 이고 와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부업으로 대나무를 쪼개어
미꾸라지 통발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길쌈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목화로 무명을 짜서 옷을 만들고,
여름에는 대마(삼)를 키워서 삼베를 짜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일만 하시던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우리 7남매가 다 부지런히 잘 살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던 공부를 70대에 시작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늦게라도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하늘이든 어디에서든지 보시면
내 딸 장하다. 수고했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안 춘화

하느님 사랑
어떤 아픔도 녹여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 주십니다.

간사한 마음 때문에
미워하고 비판하며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지극한 사랑
온전히 받아드리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죄인이지만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참회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 안에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기 위해
하느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나의 대학생활

한 미경

어느새 학교의 교문을 들어서면 반겨주는 은행나무 잎이 나날이 노랗게 변해 이제는 남아있는 잎보다 떨어진 낙엽이 더 많은 늦가을입니다.

처음 입학할 때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하면 '맘 좋은 이모님'이 되리라. '나랑 비슷한 연배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동급생과의 첫 만남은 1학년 1학기 기말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긴장감으로 교실에 들어서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첫 만남의 강렬한 느낌.
나이 80이 넘었다는 머리 하얀 언니,
70이 넘었다는 머리 까만 언니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며 책에 빼곡히 필기해 놓은 60 넘었다는 언니
나랑 비슷한 연배로 보인다며 다가온 우리 반 막내 40대 후반 동생
저는 '맘 좋은 이모님'이 아닌 많은 언니를 모시는 우리 반 동생이 되었지요.

모두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제야 시작한 대학공부
일주일에 3일이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언니들의 열정 어린 모습과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삶의 지혜로 똘똘 뭉친 언니들의 모습에서 단순히 대학 졸업이나 사회복지사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삶을 배웠습니다.

시험을 끝내고 함께 한 치킨파티, 장구치고 흥겨웠던 F반 장기자랑, 노란 반티와 함께 한 졸업여행, 우리 반 추억의 사진들
이제 졸업을 앞둔 지금, 함께한 즐거움이 큰 만큼
좀 더 함께하지 못한 나날이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함께한 2년이 있었기에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또 다른 꿈을 꾸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F반 모두 사랑합니다.

님아 님아 낭군 님아.

박 봉자

얼마 전, 할머니들이 모여 계시는 노인의 집을 찾았다.
그 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치매 노인이셨고
몇 몇 분만 본인의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다

어떤 치매 할머니는 나의 손을 어루만지시며
아 유 곱고 예쁘기도 해라
요로 콤 이쁜 새댁이 어디서 왔노?
밥 묵었나? 집은 어데 고 ?
차타고 왔나? 걸어왔나?
느거 아부지 죽었나 살았나? 모 심기는 다 했다 카드나?
이말 저말 섞어가며, 마구 퍼 붓는 질문에
나는 웃음과 눈물로 마주 않아서
그 할머니의 야위어진 손 만 만지고 있었다.

그때 한쪽 구석방에서
한 할머니의 노래 가락이 흘러나왔다.

님 아 님 아 낭군님아
나를 두고 어데 갔 노
북만 삼천리에~~에
돈 벌러 갔는가~~
하루 속히 얼 릉 온 나
너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보자.

(다음 곡)
세월 아 세월아 갈라 거든
이대로 가거 라

어찌하여 날 데리고
자꾸만 가려느냐.

단순 하면서도 오래전 일찍 떠나간 낭군님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
가는 세월이 자신을 이토록 늙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노래.
노래 두곡을 들으며 노래 가사를 메모해 보았다.

젊디젊은 꿈 많던 예쁜 아가씨를
이런 늙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막을 수 없는 세월 앞에
원망과 아쉬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냥 순응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다시금 가는 세월 앞에 숙연해 진다.

할머니 연세가 얼마세요? 묻는 나에게
97 살 이라고 하신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살며시 손을 놓고 돌아서 나오는데
원인모를 울컥 임이 목젖을 아프게 했다.

해 지고 어두워진 황혼기,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은 느낌 .
그래, 가는 세월은 분명히 우리들을 데리고 가니
아직도 젊은 우리들 나이에
더 많이 사랑하고, 많이 느끼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

인생의 찬바람 부는 겨울 끝자락 올 때에
참 잘 살았노라고 말하며
후회하지 않는 날들을 만들기 위해
아직도 젊은 날 열심히 뛰어야지.

들꽃 손에 가방 . .

박 봉 자

호야 아빠 !
올 한해도 한 달만 남겨두고 낙엽 다 떨어진 겨울로 들어왔습니다.
얕은 산야엔 풀기 잃은 갈대가 가는 세월의 아쉬움 때문인지
설레 설레 고개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만나서 살아온 날들이 벌써 43년이 되는군요.
그 43년 동안 한화생명의 설계사로 살아온 세월도 33년이 됩니다.
아침마다 출근 하느라 허둥대며 식사도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하고
때로는 고객님과의 약속으로 저녁식사까지 혼자서 해결하도록 하였지만
당신이 이해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 나이 37살 되든 해, 당신이 말기 위 임파선종양 이라는 진단을 받던 날.
의사 앞에서 나는 실신을 하고 말았지요. 10살과 11살 두 아들과, 나이 어린 시동생, 그리고 70대 노모님, 우리 모두를 어찌 하라고
태산 목 같았던 당신이 누워 버렸는지.
가족들 몰래 돌아서서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당신은 모르셨을 겁니다.,

의료 보험도 없던 시절. 병원비를 구하며 간병을 위해 수개월 병원을 뛰어 다니던 어느 날, 텅 빈 우리 집 쌀통을 보게 되었답니다.
비워낸 쌀통에서 2인분의 쌀은 얻을 수가 있었지만,
가족 6인분의 쌀은 얻을 수가 없더군요.

이스라엘 나라의 아 합 왕 시대 때에 찾아온 기근으로 인하여서,
사 렙 다 동네의 한 과부는 가루 통에 남은 한 줌의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까 하노라고 자기를 만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내 집안과 수중엔 먹을 것을 염려해야하는 텅 빈 상태가 되어있더군요.

당신은 요구르트 한개도 먹지 못하는 생사를 오가는 힘든 질병과의 싸움 이

였고, 나는 가족을 끌어안고 목숨을 이어갈 삶과의 싸움 이었지요.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사실이 현실이 아닌 꿈 이기를 바라고 바랬지만
그러나 눈만 뜨면 꿈이 아닌 현실이 앞에 놓여 있었기에 내 앞엔 매일
매일 절망의 늪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큰 울타리로 여기며 의지하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
모두들 염려의 말을 건네 왔지만
많은 병원비와 우리 집 쌀통을 채워줄 그 무엇도 하늘 아래는 없더군요.

그때에 절망에 빠진 힘 없던 나의 손을 잡아준 따스한 손이 한화생명 이였답니다. 150cm의 작은 키에 40킬로그램의 몸무게,
얼굴에 기미가 새까맣게 낀 모습으로 한화생명의 문 꼬리를 잡던 날.
모두들 무척이나 좋아하며 나를 반겨 주더군요.
입사한지 한 달 후 89년2월 첫 월급 (이십구만 팔천 칠백 원), 급여를 받아든 그 날 내손이 얼마나 떨리고 떨렸던지 펑 펑 울어버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 합니다.

첫 월급으로 텅 빈 쌀통도 채우고 단칸방 데워줄 연탄도 쌓을 수가 있더군요, 아이들을 먹일 라면도 살수가 있었고 노모의 흐려진 동공에서 빛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우리가족의 목숨 줄 이였으며 당신의 병원비였고 두 아들의 희망의 통로였습니다 .

참으로 인생길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의 불청객...
그 불청객은 오붓한 내 가정에도 찾아 오더니
어제같이 땀 흘리던 장정들에게도 찾아오고
젖먹이 둔 새 어미의 가정에도 찾아 오더군요.

소꿉놀이 하던 단발머리 소녀에게 와,
꿈 푸른 가방 맨 소년에게도 찾아 오더군요. .
나와 같은 가정이 없기를 바라고 바라며
동분서주 뛰어 다니며 고객들과 울고 웃었던 긴 나날들.

당신은 늘~~ 좀 쉬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준비의 필요성도 모르는 염려스러운 가정들이
내 눈에 수없이 보였기에 쉼을 가지지 못 하였던 이유를
당신이 어찌 다 알까요.

먼 거리에서 된장국을 끓여 와서 현관문에 걸어 놓고 가시는 분,,
볼품도 없는 내 손을 잡고 도와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 입니다.인사하며
손을 놓지 못하시던 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잡은 가방을 내려놓지 못하였답니다.

당신과 내가 만난 지 43년,
강산이 네 번 바뀌고, 우리는 머리가 반백이 되었네요
감사 하게도 당신과 자녀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뚝 서 있는 지금
사람들은 잡초 같은 나를 보고 부자 라고 말 하더군요.
부자~~그렇죠. 정말 우린 부자죠. .
죽음 속에서도 살아있는 삶의 현장의 소중함이, 배 고픔의 밑바닥에서 배부름을 아는 고마움도, 신뢰하며 바라봐 주는 좋은 사람들의 눈동자 까지도,
모두 다 가진 우리는 물질의 풍부함보다 더 값진 보배를 가진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이제, 내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으며, 남은 인생의 여정을
당신과 함께 하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새로운 길.
실타래처럼, 귀하고 소중한 인연들로 얽혀서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잘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야 아빠 !
지금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우리가족들 곁에 있어주어서 고마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2021년 11월 27일 ~~ 당신의 아내드림~~♡♡♡

만학도 풍경

서 명자

안뇽!
안녕! 반갑다.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반갑다!

나이야
좀 더 있든~ 덜 있든~
우리는 한 반 친구
차 한 잔 앞에 두고
멀 그리 재잘되시나~

그러다
책 펼쳐지고
교수님 말씀 말씀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 놓칠세라
눈빛은 열정이다.

꿈을 꾸시나!
꿈을 품으시나!
얼굴은 무지개 빛
만학도 가슴은 뜨겁다.

서리

김복자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 보석을 훔쳤다

가슴속 한 가득 채워진 보석으로

이 새벽 마냥 행복하다

붉은 보도위에

산호 같은 거대한 보석덩어리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눈이 부시다

그를 머금은 길 섶 풀더미와 가랑잎들도

기분좋게 반짝인다

나도 함께 반짝인다

이불

박 봉 자

토요일 조용한 틈을 타서
몇일 전 빨아서 두었던 이불을 꿰매기로 하고 마루에 펼쳤다.
요즈음은 이불 꿰맬 때에 바늘이 필요 없도록
이불 옆쪽에 지퍼를 달아서 편하도록 해 놓았고.
우리 집 모든 이브 자리는 모두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나 유독 내가 아끼는 이불 한 채는 바늘이 필요하다.
덥지도 않으면서 장롱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지가 40 여년.
더러워지게 되면 빨아서 꿰매어 또 장롱 속에 넣어둔다.

 이것은 바로 내가 시집 올 때에 나의 어머니가 해 주신 이불이다.
꽃 분홍 양단 바닥에 파란 깃을 붙여서 만든 큼직한 요이 부 자리로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또래 친구들의 장롱 속에도 꼭 있을 것 같은 이불이다.

 나의 결혼식 날을 받아놓은 어느 따스한 가을 날
시골집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여름동안 따고 타서 모아 두었던 목화솜을 가져와서
이불 속으로 넣으며
옆집 성주 댁 , 뒷집 봉살 댁, 앞집 김천 댁이
,저마다 바늘과 실을 가져와서 돕고 있었다.

지금도. 봉살 댁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다.
형님 ! 딸은 쪼끄만 한데 이불은 왜 이리 큰 것을 해 주셔요?

그때 울 어머니 하신 말씀.
평생 죽만 먹여온 내 작은 딸 시집보내는데
겨울에 추위에 떨지는 않아야지.....

못 먹이면서 키운 작은 딸 시집보내며
이불 하나 만이라도 큼직하고 따뜻한 것을 해 주고 싶으셨던 어머니.
그분은 지금 떠나고 없으시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이불은
지금도 나의 마음을 덮고 있다.

터주 대감처럼 안방 장롱 속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매년 꺼내어서 빨고 꿰매고를 반복 할지라도
아마도 나는 이 이불을 평생 버리지 못 할 것 같다.

~~~~따스했던 나의 어머니~~~~그리워라.
~~~~

졸업을 앞두고

정태옥

대학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대학 생활을 대부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었다.

교수님께서 졸업문집 책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글을 적으라고 하셨다.
졸업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느껴졌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 오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기에
2년이라는 시간이 더욱 짧게 느껴진다.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좋은 교수님과 학우들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만드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교수님..... F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졸업의 꿈 “꿈은 이루어진다”.

백 승연

흰 눈이 내리는 겨울
조용한 농가에서 나는 태어났다.

평범한 가정에서 별 탈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해야 하지만,
뿌리 깊은 부모님의 유교 사상과 철없는 나의 생각으로
중학교 진학을 접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고향을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배우지 못한 설움이 어떠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워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과 자녀 양육,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 쉰이 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꼈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경야독’이 아닌 ‘야경주독’으로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학교로
성인반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을 졸업하였다.

드디어 나의 목표 ‘대학 졸업’이라는 꿈을 위해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이라는 마지막 꿈의 장소 입학을 하였고
훌륭하신 교수님과 다정한 교우들의 덕으로
대학 졸업이라는 나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꿈’ 생각과 노력에 따라 다르지만 졸업으로
대구공업대학이라는 교정은 떠나지만

나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할 나의 모교는 ‘대구공업대학’이다.

추억

권 남숙

둘이서 다섯
옆에는 행복이
마음엔 사랑이
떨림에 연속이다
추억한다 나의 30대를

뒤돌아 볼 시간도 없이
바쁜 일상
옆에 있던 행복이
시련으로 내 앞에 다가섰다
견더 이겨보자 이겨냈다
추억한다 나의 40대를

막내가 대학 졸업
어깨의 짐을 조금 내리고
여유를 즐기자
여행 참 많이도 다녔네
에펠탑, 뉴욕, 앙코르와트

늦은 대학생활도 설레임이다
갈가에 꽃들이 응원하듯 웃어준다
추억한다 나의 50대를

그리고 기대한다,
나의 60대도....

추억의 사진첩

신 정규

핸드폰에 '10년 전 추억 떠올리기'란 문구에
갤러리에 들어가 옛 사진들을 들추어 보았다.

일에 얽매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훌쩍 가 버리고
환갑이란 나이가 되어있다.

문밖 낙엽들은
알록달록 물들어 하나 둘 땅바닥에 나뒹굴고,
무언가 허전한 마음을 느끼는 이 가을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의 병이 발동한다.

저 멀리 플랫폼에 들어오는 기차 머리를 생각만 해도
가슴에 쿵쿵거림이 생겨
가까운 부산이라도 열차 타고 떠나고파 친구에게 전화도 해 본다.

지난해 가을, 엄마를 먼 길로 떠나보낸 후부터
알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하며 힘들었는데
그마저도 세월이 약이라더니 무뎌지고
죽음이라는 단어마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정리할 여유와 마음을 다스림 한다.

내가 공부하면서 몰랐던 분야의 많은 지식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내려놓는 연습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한다.

많은 추억을 만들며.....

♣ 나에게 쓰는 편지 ♣

가을이라 하늘은 바다 여행하는 것 같이 파랗고 구름 흘러가는 모습이 이뻐서
괜스레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다.
너는 지난 세월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본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옆이나 뒤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어!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 뭔가 바쁘고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평범한 일상이었던 내가 나이들어 대학 캠퍼스 생활하고 이젠 조금의 여유를 가져본다. 지금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생활도 힘내 보자. 사랑많고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노년을 기대해본다. 나이가 들어가니 혼잣말이 늘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다. 한숨과 뱉어낸 후회엔 여지없이 답장이 온다. 물론 환희로 뱉어낸 희망의 편지를 쓸때도 있다. 가뭄에 콩 나듯 뱉어대는 환희의 순간에도 답장은 여지 없이 온다.

100세에 가까운 어느 노교수가 말했습니다 과거로 돌아 갈 수 있다면 60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인생의 황금기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관념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65세부터라고... 나도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황금(黃金)기로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잘 계획된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 세월은 잡아둘 수가 없다. 하루하루가 중요한 인생이니까 매일 값지고 멋있게 살자.

'지금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며 항상 너 자신을 믿어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멋진 삶이 될 꺼야' 배움과 경험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
매일 매일 사랑하는 나(너)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 사랑해.

2학년 F반 - 이정순 -
2021년 11월 21일 새벽녘에

캠퍼스의 마지막 노란은행잎을 보면서

2학년D반 박경숙

모든 사람들은 저 마다의 사연은 있겠지만 사람 사는 가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종이 한 장차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직장생황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못 다한 공부에 한이 서려 이 늦은 나이에 만학도의 길에 들어섰다. 고민하던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강의 속에서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내속에서 지혜와 지식이 쑥쑥 자라났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가족한테도 못 다한 배움에 대한 열정, 갈망을 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고만 있었던 대학에 대한 로망을 이곳 대구공업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학기를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조금만 있으면 대학교 졸업생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의 최고의 봄날이라는 어느 가수의 노래가사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봄날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졸업하면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나의 이력서에 꼭 써보고 싶었던 학력란에 대구공업대학교 졸업 이라는 글자를 써보고 싶다.

대학교 생활을 뒤돌아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다.
늦은 나이에 열망했던 대학공부도 끝마칠 수 있었고 내 인생에서 환산할 수도 없는 큰 보물인 학우들도 만났다. 사랑하는 학우들과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대학생활하면서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한 거 같다.

졸업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대학생황을 이제 마침표를 찍을 려고 한다.
학우 분들과 존경하는 교수님들 이제 머리 숙여 인사드리며 졸업을 할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졸업을 앞두며

한 승 희

학교 입학 한지가 엊그제 인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늘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을 다니면서
나도 늦게나마 학교에 갈 수 있을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대구 공업대 사회복지학과를 알게 되면서 원서를 넣으면서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이 문자로 올 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에 가게 됨 가서 동아리도 들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리라 마음먹고 입학을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생각한 데로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지 못 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낮에 일하며 학교 가는 시간이 설레었습니다.
단어 자체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해도 되고 수업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게 되면서
학우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실습기관에서의 체험은 나에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용자분들을 위해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시는 복지사분들을 보며,
나도 졸업 후 저렇게 열정적으로 내 가족이상 그 분들을 위해 헌신 하겠다
다짐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매 강의마다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학교에서의 공부는 저에게 깊이 있는 지식과
앞으로 내가 나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김은주

딸아!
엄마가 학교를 졸업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학교냐며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너는 나에게 용기를 주며 나의 결심을 반겨줬었지.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오히려,
학교를 가고자 선택한 나를 잘한 선택이라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던
너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까 생각한 것보다 난관들이 많았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니 컴퓨터에 서툴던 내가
이사람 저사람 한테 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힘들더라.
그럴 때마다 네가 서툰 엄마대신 하나씩 도와주며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어찌나 다행이다 싶었는지 아니?

그렇게 한두 개씩 배워가면서 하는 방법을 익히니까
나름 너의 도움 없이도 엄마혼자서 하게 되는게 느니까
나 자신이 뿌듯했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막상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공부를 하니까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의 재미도 느끼고
학교 교수님과 동기들과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웃고 떠드는 재미에 학교생활이 즐겁더라.
학교 생활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으면서
다니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딸아,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엄마의 지금 계절은 가을이 아닐까 싶다.

노력 한만큼 결실을 맺어가고 있고
수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 말이야.

이 수확이 내가 원한 만큼 굉장히 풍성한 수확은 아닐지라도
봄여름 동안 열심히 가꾸었던 곡식이
나름 알차게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은 드는구나.

내가 열심히 밭을 일구어서 가꿀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하게 지원을 해준 든든한 딸아.
네 덕분에 엄마가 무사히 2년이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구나.

종종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이 나의 마음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구나.

엄마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환한 미소와 큰사랑으로 이 말을 해주고 싶구나.
사랑한다, 내 딸아.

- 대구 공업 대학의 학과장이신 김한식 교수님과
그 외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 해주셔서..

나이 많은 학생들 지도하시느라 말 못할 고충이 있으셨을줄 압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꿈은 20대로?

최숙희

4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굳이 꿈이라기보다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행복과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정도였기에 내 꿈을 생각 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면 너무 염치없는 일은 아닐까?
그러나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이나 시스템 변화를 알게 되면서 꿈에 대한 생각도 다소 막연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을 즈음 절친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본인도 퇴직을 하면 뭔가 보람 있으면서 즐거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공부고 내가 졸업하면 내년에 꼭 둘이 같이 시작하자고 했다. 일도 공부도 할 만큼 했던 터라 퇴직하면 재미있게 놀러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공부라니? 난 절대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다짐했건만, 친구의 말은 이러했다.
"소싯적에 야간대학 다니면서 맨날 헐떡거리면서 학교가고 첫째 시간은 늘 지각하고, 피곤에 찌들어 강의시간에 졸다오기 일쑤고, 돌아서면 시험 준비한다고 바빴고, 4년간 축제를 한 번도 제대로 즐긴 적이 없고, 대체 언제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했는지 남은 것은 앨범과 졸업 증서 뿐이고 컴컴한 밤에만 다녀서 캠퍼스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대학생활의 추억도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들어보니 맞는 말이긴 했다.
친구의 꼬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또 했지만 마음은 어느새 혼잣말로 결정 모드로 쏠리고 있었다.
"그래 퇴직하면 20대에 제대로 못 밟아본 캠퍼스를 친구랑 함께 거닐며 옛날 얘기 나누면서 낭만도 다시 느껴보고, 성적 잘 받기 위해 죽어라 시험공부 하지 말고, 느긋하게 즐기면서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면 어떻겠냐는 친구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따사로운 형형색색 봄꽃의 미소, 하늘을 찌를 듯 싱그럽게 자란 여름 나무의 힘찬 매미소리, 알록달록 단풍진 가을 캠퍼스의 발밑에서 바스락 거리는 빨강, 노랑 예쁜 잎들을 밟으며 20대에 못 느껴본 캠퍼스의 낭만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우리들의 20대를 대신해 줄 요즘 젊은이들의 향연을 바라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 또한 즐겁고 보람되게 사는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두둥실 떠오른 풍선처럼 한껏 부풀어 오른 새로운 꿈에 도전해 본다.

졸업 소감문

-김정희 -

2020년 삼월 꿈에 그리던 대구공업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캠퍼스도 밟아보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면서 늦깎이 만학도는 대학생으로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내기 첫 학기가 시작 될 무렵 'COVID 19'란 전염병으로 인해 캠퍼스 수업은 조금 힘들어지게 되어 아쉬운 마음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교수님의 강의를 원격으로 수업하게 되면서 새로운 과정을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처음이었지만 교수님의 차근차근한 가르침과 여러 학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엔 교수님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내당동 복지관에서 1일 장애인이 되어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이 되어 불편함을 겪어보니 나의 선의가 때로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알 게 되었습니다. 강의실 내 또는 원격학습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과 직접 체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과업이 있음을 배우게 되어서 그 날 저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었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과제를 하는 도중 모르는 것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전공을 통해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특히 김한식 학과장님의 '장군스피치'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발표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 학우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소리내어 보고 나니 이제는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식 교수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마지막 학기도 끝이 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많은 가르침 속에서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제 2의 인생을 설계해 보며 －

2학년 E반 이 윤 자

어려웠던 옛 시절을 가만히 눈감고 떠올려 본다.
아련함 속에서도 똑똑히 떠오르는 일도 있고, 흐릿한 기억 속에 뭔가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것들도 있다.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하늘을 보며 글을 적어 본다.
산과 들에는 오색 단풍들이 너무 아름답다. 예쁘게 미소 짓는 높은 가을하늘도 잠깐 지나고 나면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 옷을 벗고 외로이 있겠지. 나 역시 육십 후반 인생길에 내일 모레면 칠순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감사하게도 만학도의 기회로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 로망을 이곳 대구공업대학에서 이루고 있다. 입학하고 대학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지식도 배우고,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 좋다.
같은 연배의 만학도와 강의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받은 부분도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학우님들을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사랑하는 학우님들과 존경하는 교수님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제 곧 졸업이다. 이젠 나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아서 알차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좋은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 가면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더 다짐을 해 본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될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새롭게 멋진 건물을 지어도 보고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 해보고 싶다. 경영도 한번 해보고 싶다. 용양원이나 요양시설을 경영해 보고 싶다.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행복하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순간을 우리는 간직하고 아름다운 이 교정을 뒤로 할 것이고, 나는 나의 새로운 두 번째 삶을 살아 갈 것이다.

학우님들과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두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재탄생

2학년 C반 박선애

수업시간에 충격적인 동영상 장면을 봤다.
독수리가 노화과정에 들어가 더 이상 자연적인 생명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6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노화되고 길어져 먹이를 먹을수 없는 부리를 돌에 짖찧어 깨서 뽑아 버리고, 뻣뻣해져 무거워 날 수 없는 깃털을 하나 하나 뽑아내고, 무디어 먹잇감을 움켜잡을수 없는 발톱을 뽑아내 새로운 세포재생을 유도해 다시 태어나듯 살아가는 것이었다.

새로운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신체 일부를 깨고 뽑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기 삶을 개척해 내는 용기와 결단력과 노력이 내 가슴을 때렸다.

업무상 필요해서 공부를 하러 왔지만 몇 달만 지나면 공부하러 다닌 기간이 무색하도록 하얗게 지워지는 두뇌환경에 두손을 들고 싶었다. 어쩔수 없이 필요한건 무조건 필기 해두고 전공책이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될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며 서서히 포기 생태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 보게된 영상! 내 모습이 바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독수리와 똑같았다. 내가 독수리만도 못했구나. 인간은 훨씬더 발전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마음먹고 노력하면 그보다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마지막 학기라고 혼자 돌게 내버려뒀던 동영상 강의 소리를 키워본다. 자세히 들어보니 필요했지만 알지 못했던 지식들이 쏙쏙 귀에 들어온다. 저거는 저럴 때 활용하면 되겠고 이거는 이럴 때 쓰면 되겠고, 재미까지 있다. 의욕을 가지고 활용도를 생각하며 들을 때와 숙제 같은 의무감으로 들을 때의 차이가 참으로 크다.

독수리의 행동이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 크지 않은 자극일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 샘이다. 60대, 서서히 노화의 과정에 들어서 변하는 신체기능을 확연히 느끼며 일을 접을 준비를 해야 하나 싶던 마음에 새로운 꿈을 만든다. 더 높은 곳을 올려다 보며 도전 결심을 한다.

입학동기

처음에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일과 공부를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늦은 나이에 시간을 낭비 하는 것은 아닐까, 공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많아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꿈이 어려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살에 부모님을 갑자기 돌아가셔서 꿈을 포기하고 생활하기 위해
취업을 했고,
그렇게 분주하게 삶을 살다보니 꿈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대구공업대학교 야간반을 알게 되었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입학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 좋은 교수님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너마나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기에,

아마 포기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면
정말 후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가지게 해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간의 대학생활

박경선

내 나이 환갑, 아들 딸 모두 결혼 시키고 이제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 하던 중 우연히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친구가 만학도로 대학생활을 하며 나에게도 대학진학을 권유를 했다.
막상 대학에 입학하려니 망설여졌지만, 남편이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라며 자기발전을 위해서 대학교를 가라고 응원해 주었다.

힘껏 용기를 내어 대학교에 원서를 쓰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너무 설레고 가슴이 뛰었다. 나도 드디어 대학생이 되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론 이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다.
등교첫날, 교실에 가보니 내 나이는 중간쯤 되는 것 같았다. 조금 위로가 되었다.

처음 공부하게 되는 과목들과 책 제목은 비슷비슷하여 헷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막상 전공 공부를 하니까 재미있고 등교 하는 날이 기다려지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 설레 콧노래도 나왔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과대표까지 하게 되었다. 학창시절에 반장을 했었고 우리반 학우들에게 봉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과대표를 시작했다. 그저 우리반이 단결되고 화합하는데 도움을 주고 모범적인 반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막상 과대표를 해보니 여고생 때 반장과는 영 딴판이었다. 다들 만학도 이라서 그런지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자기주장이 강하여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왕 맡은 일이라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을 다졌다. 처음 대학생활이라 생소한 것도 많은데 과대표까지 하려니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학교의 여러 지시사항과 전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모바일로 학우들과 의견 조율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복해서 일일이 전화로 설명을 해야 했다. 정말 잊지 못할 너무나 바쁜 1년을 보냈다.

게다가 하필 이 시기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문에 한 학기는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공부를 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시사항을 잘 따라하니 이 또한 적응하여 알찬 공부를 했다. 2학기는 대면 수

업을 시작하였다. 학우들과 조금씩 얼굴을 익혀가면서 대학생활의 맛을 조금씩 느꼈다. 점심시간에는 햇살고운 캠퍼스에서 사진도 찍고 학우들과 정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공 공부를 하며 사회복지학과는 일상생활과 접목되는 부분이 많아 공부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니 더 디테일하고 어렵고 공부할게 너무 많았다.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씩 이라도 지식이 쌓이는 게 가슴이 뿌듯하였다. 또 항상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위로로 힘을 주시는 특별하게 스피치를 가르쳐 주시는 학과장님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다.

또 잊지 못 할 것이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이었다. 실습기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에 아동복지센터에 실습을 나갔다. 하지만 실습을 하면서 해맑은 아이들과 따뜻한 정도 나누고 교감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2학년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여고시절 수학여행 전날 밤을 설치고 들떴던 마음처럼 만학도인 지금 나도 똑같이 설렜다. 새벽부터 여행채비를 하여 집을 나서는데 전날 과음을 하고 잠에 취해 내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 40년 만에 졸업여행가는 아내에게 노잣돈도 안 챙겨 주는 야속한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너무 미워 대문을 쾅! 닫고 나와 버렸다. 학교에 도착하니 학우들이 벌써 알록달록 예쁘게 치장을 하고 모여 있었다. 모두 들뜬 마음으로 관광차에 몸을 싣고 출발하였다. 선출된 사회자의 넘치는 재치에 차속은 웃음소리 가득하고 즐겁게 청산도로 향했다. 청산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넓은 바다를 보니 가슴속에 답답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대학시절 진한 추억을 만들며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 했다.

아직 몇 차시의 수업들이 남았지만 잘 마무리 하며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사회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울 엄 마

곽 미향

울 엄마 50초반에 아버지가 멀리멀리 가셨다.

하루아침에 우리에게서 아버지를 엄마에게서 남편을 앗아 가버린 교통사고.
다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가시던 아버지는
뒤에서 오던 자동차 사고로 너무 크게 다치셔서 응급실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단무지 공장을 다니시고 아침, 저녁 짬 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울 엄마.

지금의 내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당연하게 혼자 살아야 하고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게 엄마의 삶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왜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까?
같은 여자로서도 엄마가 힘이 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가끔씩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생각과
돌아가실 때의 아버지 연배의 작고 왜소한 어르신을 보면
아버지가 그리워 진다.
우린 엄마가 계셔서 의지가 되었는데 엄마에게 우린 힘이 되었을까?

내 나이 오십이 넘어서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삶이 힘들고 버겁다고 넋두리 할 곳 하나 없이~~
자식에게 조차 할 수 없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지~~

내 자식들이 스무 살이 넘어가니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보고
벌써부터 맘이 허전하고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
엄마는 혼자 살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의지할 곳도 이야기 할 곳도 없었다는 걸 얼마 전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70이 넘은 동생 손을 잡고
“혼자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갈고” 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보고
더 가슴에 와 닿았다.

당신은 벌써 20여 년 전 부터 혼자 살아왔으면서.
그걸 우리 앞에서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이날까지 살아왔나 싶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러웠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고 엄마의 외로움, 고독을 모르고
아니 모른척하고 살아온 것 같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마음을 모르고 지금껏 살아온 못난 자식들이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 준 엄마처럼
이제부터는 꽃구경도 같이 가고 바람 쐬러 더 많이 같이 가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요.

사랑해요, 울 엄마~~~

늦깎이 대학생활

2학년 D반 송현주

2020년 3월,
코로나와 함께 늦깎이 대학생활을 시작하여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내 인생에 있어 대구공업대학교 진학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입학이 아쉽기도 하지만,
동기들과의 즐거운 만남으로 소중한 추억들이 생겼고,
지금도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
바쁜 삶으로부터 학교의 각종 행사, 동아리 모임은
여태껏 부딪혀 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들이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성실해진 느낌이다.

개성도 강하고 성품도 제각기 다르지만,
나이 들어 만난 학우들이라 그런지 다들 배려심이 깊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았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소속으로 어우러져 단합하는 모습이
그저 아름다웠다.
언니, 오빠, 친구, 동생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바라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난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가며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머지않은 남은 대학 생활을 더욱 알차게 보내려 한다.
탁월한 선택을 한 나의 경험들을 발판삼아,
나는 좀 더 발전성 있는 성숙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기차게 살아 가려한다.

소중한 대구공업대학 사회복지경영학과 주말 D반 동기들이여!
승승장구 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잊지 못할 졸업 여행을 간직하련다

2학년 D반 김수남

자~ 아 떠나자 남해바다로
까마득한 옛날 어릴 적 소풍갔던 기억이 머리를 스치고
소풍과 졸업 여행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서 잊혀진 단어라 생각했다

모든 역경들을 이기고 생활과 삶에 철학이 생겨
웬만한 것은 혼자서도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지막 기회로 대구 공업대학교에 입학했다

같은 연배의 만학도와 같이하니 공감된 부분도 많고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가진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도 북돋아 주는
멋진 대학생이다

하루를 알차고 보람된 날과 좋은 추억 차곡차곡 쌓아가는
나는 멋진 대학생이다

노란색 은행잎이 물들어 갈 쯤 잊지 못할 졸업 여행은
나만의 좋은 추억 앨범으로 남는다

동심으로 돌아간 추억의 포즈
이런저런 포즈로 여태하지 못했던 수많은 행동과 언어들을 구상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했다

완도 청산도의 졸업여행은 나만의 좋은 졸업앨범이다
사각모를 쓰지 않아도 포장이 예쁘게 싸여진 앨범이 아니라도
내 마음의 포장은 세상,
그 어떤 재질보다 멋지고 훌륭하다

나의 행복을 찾아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내일을 보낼 수 있는 날들을
확실한 지금을 믿어 주는 것이다

나는 지금 좋은 학우들과 함께 있고
좋은 인연이 찾아왔다

은혜를 주고 다독여 주는 대구 공업대학교의 버팀목이신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은가

졸업 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걱정되고 궁금하여
작은 것이라도 연결 고리 만들어, 안부를 전하려 애쓰시는 이선교 교수님
찬찬한 그 마음씨와 맵시에 늘 감탄하니

받아둔 날짜는 잘도 간다는 옛 말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순간을 우리는 간직하고
아름다운 이 교정을 뒤로 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학우와 존경하시는 교수님
영원히 명성을 알리는 대학교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늘 건강 하세요

가을에

이상남

이제는
꾸미지 않으며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다.

이제는
내 작은 체구에 걸맞은 옷을 걸치고
가을의 시골길을 걷고 싶다.

조용하게 흐르는 시냇물 곁에서
가식의 옷을 벗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다.

매운 세상의 바람이 가슴을 치는
무수한 삶의 감정들에 뒤엉켜
저마다 손을 높게 치켜들고
더 많은 자기를 표시하려는 아우성 속에서
들었던 손도 내리고
내 순수했던 어릴 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세상에 살면서 내 세울 것 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아 아쉽기는 하지만
더러는 어렵게 성취한 것들 중에도
내 것이 아닌 것들은
이제 돌려보내자.

그리하여 세상이 내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더라도
맑은 물이 자신의 속을 숨기지 않듯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가을 소풍

2학년D반 박 지현

소풍 가고 싶다.
바구니 가득 김밥, 과일, 음료수, 과자 담아서
국화꽃 가득 핀 수목원 한 귀퉁이에 돗자리 깔고
물들어 가는 가을 품에 안겨서 나도 물들어 갔으면..

소풍 가고 싶다.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사랑 하는 사람 손 잡고
낙엽 깔린 흙 밟으며....
커피 향기 가득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호호 불며
뜨거운 향기 내안에 품고 놓지 않게

소풍 가고 싶다. 하늘이 파래서
노오란 나무가 예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네가 있어서

곧 끝날 가을의 축제를 뒤로 하고
너를 보내기 위해서
소풍가고 싶다.

학과장님 덕분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유익한 수업을 들었고 이선교교수님, 김영자교수님, 이원주교수님, 전영진교수님, 김창규교수님, 이승희교수님, 우병훈교수님, 이영미교수님, 곽보인교수님, 이은정 교수님, 박지영교수님, 졸업을 하고도 은사님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시절을 지나 인연을 맺게 될 앞으로의 만학도분들도 학과장님이 계셔서 잘 헤처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곧 교정을 나가지만 대구 공업 대학교에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50의 인생 참 잘 살아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많은 이들이 함께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또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구 공업 대학교에는 너무나 매력적이며 열정적이신 학과장님과 유능하신 많은 교수님들께서 계시다구요. 교수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배움이 항상 아쉬워서

2학년 C반 권 귀 자

어려서 어머님께서 아주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님 얼굴도 모른체 자란 나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 가슴속에 내내 차지하고 있었다.
8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은 모르고 할아버님 사랑과
언니, 오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다행히 어릴 때 부터 착하게 자란 나는 향상 귀여움을 받았다.
누구의 이쁨을 받을려고 그리 착하였을까?
어머님이 안계시니 자연히 가정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나의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다.

8남매 장남한테 시집와서 집안대소사 형제들의 뒷바라지만 하면서 나의 삶은 나의 생활이 아닌 시댁식구들의 뒷바라지만 하면서 나의 삶은 없었다.
시누이, 시동생, 나의 자녀들 모두 자기의 가정을 자리 잡고 나니 이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학원과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만학도의 길을 노크하게 되었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 부푼 꿈이 있었지만 입학하자마자 코로나19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학생활 온라인강의가 너무 낮설고 어려워서 괜히 왔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2년이란 세월도 후딱 다가왔다.

내년 2월이면 졸업을 앞두고 지금은 너무나도 학교에 왔는 것이 대단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교수님들의 열정적이신 강의, 학우님들과의 교류, 많은 정보들을 배운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과의 소통, 소외된 청소년들과의 소통과 봉사를 하면서 삶을 좀 더 알차게 보낼 것을 다짐 해 봅니다.

가을 겨울 그리고...

권성옥

햇살은 옅어져만 가는데

바람은 짙어져만 간다

사랑이었던 계절은

그리움의 계절로 간다

마지막 남은 커피 빛 낙엽이

하늘 위에 눈꽃 피우고 나면

이내 봄의 머리맡에 내려 앉는다.

【재학생 스피치 원고 : 시】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라1 』

대구공업대학교
DAEGU TECHNICAL UNIVERSITY

헌시)

대학생 되던 날

1A 김상아

꽃 피던 춘삼월 어느 봄날
꿈에 그리던
대구공업대학고 대학생 실현되던 날

부푼 꿈을 안고 대학 캠퍼스 맘껏 누려볼 생각에
마냥 들뜬 기분으로 시작한 대학생활

시작은 좋았지만
꿈꾸던 대학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시험이라는 어려운 난관도 있고
하지만, 시험이라는 난관이 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기는 하다.

호락호락 하지 않은 대학
나에게는 꿈을 주는 대학

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
좋은 성적 나올수 있도록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자
아자, 아자 파이팅

교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화술과 스피치 수업 시간

1A 추미숙

이침부터 두근두근
내 가슴이 방망이질
하는걸 보니
오늘도 그날이다.

처음 신랑을 만날 때
느꼈던 두근거림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인지...
오늘도 그날이다

다른 두근거림
다른 설레임
오늘도 그날이다.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줄지
아님 나에게 힘듦만을 줄지
조금 더 밀당을 해봐야겠다

그날엔.....

대구공업대학교 1학년

1A 김정란

난 대구공업대학교 새내기 1학년이다
나이 많은 새내기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한다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아줌마인 나는 이제는 학생이 된다

예쁜 꽃무늬 가방을 메고
학교에 온다
교문을 들어서면 다짐을 한다
오늘도 잘 듣자 잘 보자
마음대로 잘 안된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멋진 학생이 되어간다

교문을 나설 때는 난 다짐을 한다
내일은 더 멋진 내가 될 거라고 안녕

12월

1A반 손경희

힘들었제?
고생했다

1월의 다짐과
6월의 고통과

9월의 행복이
다 지나가고

12월이다
수고했다

모두 잘 살았다

어느 멋진 삼월에서 가을로

1B 김순애

뾰족이 싹 틔우던 너
눈을 몇 번 감았다 떴더니 잎이 서너개
어느 듯 꽃봉오리를 터뜨려
온 세상이 꽃비를 뿌리더니

모진 비바람 폭풍 뙤약볕 아래서도
무럭 무럭 자라
온 세상에 푸르름 자랑하더니
무더운 여름 목마름 잘도 참아내고
열매 맺어 모두의 마음 풍요롭게 하더니

이제 싱싱한 푸르름 배경으로 밀어내고
곱고 화려하게 물들어가고 있구나
골짜기 계곡마다 울긋불긋, 몽실몽실
단풍,
어쩌면 그렇게도 고운 자태, 고운 빛깔로 황홀할까

그러나, 가을 바람이 못내 힘겨운지
우수수 떨어지는 목소리
수북수북 쌓인 너희들....

바바리 코트 걸친 외로운 나그네
밟고 지나려는데
너의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가을 노래
텅빈 가슴 가득 채워주는구나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인가, 너에게 묻고 싶다
낙엽, 너는
원래의 고향 흙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새순으로 돌아오겠지.

억새꽃

1B 김순애

화려한 꽃잎도 없는
누구도,
이쁘다 말하지 않아도 수수한 겨울 꽃
거친 세파 더듬어온 고단한 일생이지만
외롭진 않아

부질없는 옥심 다 내려놓고
굽힐 줄 아는 지혜가
그녀의 가냘픈 허리를 지켰나 보다

칼바람과 하모니를 이룬 군무는
찬서리 내려앉을 때까지 계속되리

숨죽인 시간
빛바랜 삶의 무게가 갈색추억으로 여울지고
마침내 석양이 실루엣을 그리면
환상적인 몸매는 절정으로 일렁인다

억새는 오늘도 꽃으로 속삭인다
바람부는 대로 흔들리며
그리 살라고...

하늘

1A 김정란

우연히 하늘을 쳐다봤다
참으로 예뻤다
참으로 오랫만이었다

오랫동안 잊었던 하늘인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울컥한다 하늘아, 너는 날 지켜보고 있었지
쳐다보고 있었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넌 항상 있었지
참으로 고맙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내편이 되어줘서

하늘아
가끔 오늘처럼 널 쳐다보겠지
그때도 넌 항상 그대로 날 안아줘

하늘아
오늘도 참 눈부시네

나도 눈부신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하늘아 오늘도 같이 가자

내 안의 또 다른 너에게

1B 김혜숙

너는 누구니? 질문을 던져본다
도대체 뉘신지 오늘도 나를 찾아와
이리 훼방을 홰방을 놓는 것이오

너로 인해 하루는 웃고
너로 인해
또 다른 하루는 눈물을 보이는구나

아, 괴롭다고 애기하면 들어줄라나
아, 힘들다고 예기하면 떠나줄라나

너로 인해
하루에 수십번 울다 웃다하는 모습에
잠시 지쳐 멍하니 앉아있네

부탁이오,
밝은 내 인생에
답답하고 깜깜한 어둠은 가져가시오
우리 서로 떨어져 지냅시다

내 안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
혼란을 꺽고 싶지 않구려
우리 그냥 각자의 인생대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내 마음에 바람이 불었다

경주 불국사

1A 전석순

경주불국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알록달록한 단풍이 펼쳐져
평화로운 자연 속 들어가 보니
먼 곳으로 단풍여행 다녀 온 기분이네

가을 단풍과 아침빛의 따스함
함께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등산길을 걸으며
천년의 역사와 만나본다

웅장하고 멋진 다보탑과 석가탑
처음으로 보는 건
경주에서의 큰 행운

불국사 돌계단은 많이 높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빌고 있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네

마음속의 소원 부디
꼭 이루어지길 바래보네

청춘에게 물어본다

1A 강원미

낙엽아
네게는 언제가 청춘이었니?

봄날 분홍빛 아침이었니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었니?

봄날도 여름도 아닌
나의 청춘은 지금인데
노랗게 물든 지금이 나의 청춘인데

누군가는 청년의 때를 청춘이라 말하지만
나는 언제나 오늘이
청춘이란다

가장 아름다운
나의 청춘이란다

배움

1A 윤이자

동지섣달 기나긴 밤
이른 새벽잠에서 깬 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누워서 기와집 몇 채
멍하니 공상 속을 헤맨다

생각하면, 할 것도 할 일도
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배움에는 끝이 업소 어려운 일들도 너무 많아
벅차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누른다

누가 뭐래도 내 발전을 위한
어차피 시작한 배움의 길

스스로 벌려놓은 늦깍이 공부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잘해야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다

엄마의 장독대

1A 윤연희

엄마표 간장, 된장, 고추장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양지바른 곳 엄마의 장독대

가족들의 입맛 밥맛 챙겨 주시느라
사랑과 숨결이 담긴 곳

얼마나 애지중지 챙기고 닦았을까
가을 날 잘 익은 홍옥보다
더 반질반질하다

어느 날 엄마의 장독대
담장 아래로 이사를 했네
아, 엄마가
늙으셨구나

햇살 좋은 날
엄마의 장독대 앞에서
모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시간도 얼마나 남았을까

엄마도 늙으셨고 어느 새
나도 이만큼

이 가을날 눈물이 난다

연꽃 밭

1B 배영자

우리집 앞에는 아주 크고 넓은 연밭이 있다
연밭 가는 길 양쪽에서
연꽃과 연잎들이 살랑살랑 자태를 뽐내며

아침에는 스미는 햇살 속으로 고요를 빨아들여
꽃잎을 활짝 피우며 웃는 모습이다가
저녁에는 아물어지는 것이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나는 해맞이를 하는 것 같다

아침마다 연꽃 길을 걸으면
백련은 기다린 듯 반기고
자오련 봉우리들 연밥 익히며
나와의 대화를 하자고 반겨 미소 띄어주니
내 마음속에도 꽃이 핀다

연꽃은 메마른 영혼을 서늘한 연잎으로 감싼 채
때로,
조용히 나를 기다린다

어느 비 많이 오는 날
우산 쓰고 연 밭길을 걸을 때
우산위의 빗방울소리와
연잎위에 내리던 빗방울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어

나는 조용히 숨 고르듯
천상의 하모니를 즐기며
비속의 여인이기도 하였다

노을처럼 단풍처럼

1B 박경희

해질녘
아름답도록 슬픈 저녁놀

찬서리 내릴 무렵
슬프도록 아름다운 단풍

내 찌든 한뉘, 언젠가
저물고이울 때,
저녁놀처럼 나도
아름답도록 슬플 수 있을까

단풍처럼 그렇게
슬프도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

곱디곱게 나도
놀처럼 단풍처럼
물들 수 있을까

여든 살 울 어머님

1B 이정순

여든 살 울 어머님
당신 몸도 못가누며
쉰살하고도 세 살이나 더 먹은 나를
못미더워 극성이다

차조심 길조심 불조심 몸조심
자식의 자식들까지 걱정으로 지내신다

여든 살 울 어머님
마음 여린 모성애로

꼬부랑 허리이고 가쁜 숨 몰아쉬며
못사는 아들 딸 가슴 아파 하신다
알뜰 살뜰 잘 살아라

여든 살 울어머님
지능은 어린아이

내가 어서 죽어야제 말과 속은 다르시고
돈 없는데 뭘 또 사오노 하시면서도
잘 잡숫고

다들 잘 사는 것 보고 가셔야 할 텐데

가을의 소리

1A 현연희

가을아 온다는 말도 없이 오고
간다는 소리도 없이 가버린 날들

어릴 때는 단풍잎을 책갈피에 넣어
추억 쌓기도 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책갈피 열어보곤 했는데

지금은
단풍이 곱게 물들면 그저 감동하는 가을

어릴 때 단풍과 같은 나무인데
왜 이리 감정이 달라지는가?

가을아
잘 갔다가 내년 이맘때 또 오려무나

이제 기다릴께

따뜻함

1A 권현조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뜻함이

친구들과 커피 한잔에
느껴지는 마음의 따뜻함이

가족들과 마주앉은
저녁 밥상의 따뜻함이

내 마음속 따뜻함이
오늘도 행복으로 차오른다

겨울바람

1A 박영국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운 겨울바람
살을 에는 추위를 벗어나려는 순간
내 걸음을 멈추게 하는구나

주황빛 불빛 아래
함께 붕어빵을 굽고 있는 부녀

우리 딸도 붕어빵
참 좋아하는데

순식간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따스한 공기로 바뀌고
미소로 번지고 있다

산

1A 김미옥

나를 행복하게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나를 아프게도 하는

산
지금 너의 품속으로
달려가고 싶다

얼릉 꼬리뼈가 잘 붙어야지

산아
너의 품에서 내가 다쳤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무지 그립다

산아
기다려라
곧 내가 간다

오늘의 마음 가짐

1B 박민경

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오늘은 놀고 내일 하지 뭐’
생각하고 하루를 넘긴다

그 다음 날에는
‘제출 기간 안에만 끝내면 되지 뭐’
하고 또 하루를 미룬다

그러다 보면 어느 새
제출 기간이 다 되어서
허둥지둥 끝내기 마련

오늘의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일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매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인생

1B 김서희

인생이란 계절따라 변하는 날씨와도 같으다

뜨거운 여름같은 열정을 그리움으로 꾹 꾹 누르고

가을타는 마음은 외로움의 비수에
말로 상처 베이고, 글로 상처 베이네

가끔
겨울 칼바람이 내미는 가시덤불 손에 할퀴어
결박당한 삶들이 겨우내 쌓였던 눈처럼
녹아 스러질 것 같아도

곧, 따뜻한 봄처럼
좋은 날은 오고야 만다

바람소리

1A 이미수

계절별로 날씨별로 다른 바람소리

봄바람은
여성들의 마음을 살랑 살랑거리게 만들고

한여름밤에 솔솔 부는 바람은
단비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하고

가을에 부는 바람은 낙엽을 흩날리며
내 마음도 흔들리게 하네

겨울에 부는 차가운 바람은
내 마음도 움츠리게 한다.

사랑하는 마음

1A 임영선

사랑을 하면 포근하며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고

잠결에도 꿈에도 사랑을 하자
착하고 예쁜 마음 사랑을 하자

하느님 물려주신 최대의 행복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너랑 나랑 지켜야 할 의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멋진 미래에 무지개 색이 되도록

비의 기억

1A 방영희

어린 날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들었던
들기름 듬뿍 품은 부침개 소리는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 하다

나뭇잎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대나무 순 아래 그 청량한 소리
지금도 눈을 감으면 들리는 듯 하다

저녁 빗소리 그 때 그비가 아니어도
비만 오면 같은 일상이 저무는 지금

잠시 멈추고 시간을 바라보면
기억은 자주 그곳으로 달려가고는 한다

빗소리는 추억을 먹는다

코로나 19 예방

1B 민규리

사람들은 말한다
“손만 잘 씻어도 코로나 예방 할 수 있어”

사람들은 말한다
“마스크만 잘 써도 코로나 예방 할 수 있어”

사람들은 말한다
“소독만 잘 해도 코로나 예방 할 수 있어”

사람들은 말한다
“1차, 2차, 주사 맞아야 예방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예방 잘 하는데
왜 확진자는 자꾸 늘어날까

가을

1A 강옥화

길거리의 가로수들이
물들어가기에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은 계절

아침에는 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하루를 열어주며

한낮에는 맑은 햇살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멋진 시간의 연속이기에

오늘도
사랑과 햇살과 바람을
가득 느끼면서

가을의 주인공으로
한잔의 따뜻한 차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내 마음의 계절

1B 노지현

겨울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침 저녁으로 내 몸을 감싸 줄
두터운 외투를 찾는
내 마음의 계절은 겨울이다

손이 시려우면 장갑이 필요하고
목이 서늘하면 목도리가 필요한
내 몸이 계절도 겨울이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보내는 이 시간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가 생각나는
내 마음의 계절은 겨울이다

그러나
이 겨울이 지나가면
나에게는 새로운 봄이 또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이 겨울이 너무나도 좋다

풀꽃

1B 신영제

비가와도 눈이 와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피어있는 풀꽃

바람이 크게 불때면 풀꽃끼리
옹기종기 붙어있네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더 이쁘게 피어나는 풀꽃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피어 하늘을 바라보네

풀꽃은 외로워 하지 않고
햇빛과 바람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며

나랑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풀꽃이 말을 하네

햇빛

1B 조민지

해바라기 피는 무렵에
따스한 빛이 내릴 때면
햇빛이 해바라기를 바라보네

해바라기는 따스한 햇빛을 보며
더 크게 자라나네

햇빛은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네

따스한 햇빛아래 새싹들도 춤을 추네
햇빛을 새싹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네

따스한 햇빛을 받아 무럭 자라나렴
새싹들은 햇빛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네

온도

1B 박부건

사람의 체온이 항상성을 가진다고 해서

저마다의 합이 이루어 질 수 없더라

감정이 데워지고 추억을 쌓아도

마음의 온도는 같을 수 없더라

너와 나는 다르구나

게임

1B 권용건

게임 너 참 싫다
이기면 좋고 지면 짜증나는
너 참 싫다

게임 너 참 싫다
돈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너 참 싫다

게임 너 참 싫다
못하면 욕 듣고 잘하면 칭찬 듣는
너 참 싫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같이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게임 너란 녀석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가진 너란 녀석
참 신기한 녀석

게임 너란 녀석
오늘도 열심히 나랑 놀자

【재학생 스피치 원고 : 산문 】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라 Ⅱ』

대구공업대학교
DAEGU TECHNICAL UNIVERSITY

경희야 사랑한다

1A 손경희

대 대단한 인생을 살길 바라진 않는다, 경희야!

구 구름처럼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공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업 업이 많은지 니가 평~생 봉사할 팔잔가 보다

대 대식구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와 고생고생 하다가

학 학교도 이제야 다니고 있지만

교 교수님 덕분에 요즘처럼 이렇게 나를 되돌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경희야! 그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자
경희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1A 김상아

김상아, 난 너가 참 좋아!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너가 나는 대견하고 뿌듯해...
비록 키는 작지만 마음은 크다고, 사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작은 거인 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니?
무슨 일이든 잘 해결한다고 해결사라고, 긍정적으로 항상 생활한다고 생각은 거인이라 들 하지. 여지껏 살아오면서 작은 키 때문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도 많이 쓰였지만 키 작다고 남보다 못하는 게 뭐 있냐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지....
키 작은 덕분에 외모에도 항상 깔끔하게 할려고 노력했었지 키 작은거 빼고는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본적이 거의 없는 거 같다.
음식도 공부도 사회생활도 이정도면 그래도 만족할만하다.
김상아! 키 작다고 기 죽지 마! 세상에 큰일 하시는 분들 대개가 키 작은 분들이 많더라, 김상아 파이팅...

한 가지 성격을 고치려면 남들이 부탁하는 걸 적절하게 거절 못하여 많이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학문으로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앞으로는 덜 피곤할거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사랑하는 김상아! 긍정적으로 매사에 임하며 살다 보니 그래도 지금 와서 지난 세월 되돌아보니 잘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니 친구들 좋아하던 남편도.. 언젠가부터 내편이 된 것 같고 자식들도 그 정도면 사회 요직에서 생활하고 건강한 가정 꾸리고 잘살고 있고 이정도면 괜찮지 않니?

앞으로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건강 챙기면서 즐겁게 살면 될 것 같구나.
난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 특별한 사람이다.
음식도 잘하고, 식물 잘 키우고, 사진도 잘 담고, 육아도 잘하고, 요가운동도 잘하고, 계획적인 시간표로 생활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비록 키는 작지만 잘하는 것도 많으네 김상아.....
그동안은 가족들과 사회봉사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 는 나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즐겁게 남은여생 건강하게 살아보자꾸나.....
김상아 사랑한다, 많이 많이 사랑한다. 김상아 파이팅.....^.^

내가 나를 불러서 꽃이 되려고 하니

1B 김서희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길~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예쁜 계절에, 오롯이 나를 돌아볼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김경숙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과제가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라"인데,
저는 고백은커녕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내 이름을 스스로 불러본 적도 없었고, 단 한번도 "사랑한다"고
속삭여 본적도 없었습니다.
서희야... 서희야.. 김서희! ㅎㅎ참~ 어색합니다.
네가 나를 불러주어서 꽃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불러서 꽃이 되려고 하니 ... 참말로 어색합니다.

To. 서희에게.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의 서희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어느 듯 여름이 지나 벌써 가을..... 계절의 윤회는 어김이 없구나
중, 고등학교 때 서희는 습작을 즐기고 감성이 풍부한 소녀였는데
뭔가를 끄적거려 보는것도 잊은지 까마득....
일기를 써 본지도 일억년 전.....요즘 적는 글이라고는 마트 가면 사가지고
올 간단한 메모뿐이고 그마저도 적은걸 깜박해서 두고 나갈 때도 있는데
이런 와중에 1주일마다 스피치 과제를 써야하니 많이 어렵지?

지금은 감성도 감흥도 많이 메마르고 .. 아니~ 그것만 메마른 게 아니고
피부도 점점 건조해지고....에휴..(._.`)세월이 뭔지....
서희야,
지난번 학교 비대면 강의를 듣던 중에 과제를 내야 한다 해서,
어제의 문은 열지 말아야 한다고 꼭꼭 닫아두었던,
옛날 생각이 슬며시 떠올라 그 빗장을 열어봤어!

멋진 발레리나가 되려고 무용과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하며 학창시절을 보낼 즈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지.
동생들도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엄마 혼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너의 레슨비랑 등록금은 감당할 수가 없을거라며, 맏이인 너가 스스로 꿈을 접고 학업을 포기해야할 수밖에 없었지.
꿈을 접는 것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철이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었었지만, 만약, 그때 나쁜 선택을 했더라면 가족들에게 크나큰 아픈 상처를 주었을거야.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그땐 죽고 싶을 만큼 간절했던 그 꿈이 살면서 수십 번도 더 바뀌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너만의 전설이 되었지.
서희야, 그 절망의 시절을 잘 버티고 잘 이겨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청춘은 아프다하고,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했던가 본데. 어느새 너는 어른이 되어서 아프면 병원을 가야할 나이가 됐구나.

서희야!
살면서.. 또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마주한다 해도,
너는 가족의 에너지임을 잊지 말고, 그때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건 다 경험일 것이고 추억일 것이니까...

오늘 내가 서희를 '나의 소중한 사랑'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날개 짓하는 널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줄게.

인생... 먹고 싶은거 먹고, 하고 싶은거 하고, 보고 싶은거 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거라 했어. 건강관리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서희!! It is best , it well be best. ❤ I love you.
[최고 이며, 최고일 것이다.]

이상으로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라' 스피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사랑해! 사랑해!

1A 김순애

김순애 사랑해, 사랑해!!
난 오늘 너에게 고백하고 싶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순애, 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언제나 웃으려고 노력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가슴 아파하고,
힘없는 친구 만나면 용기 주고 사랑을 주었지.
아픈사람 만나면 지극 정성으로 돌보아 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 드렸지.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다고 칭찬해 주었잖아.

네 몸이 고장나는 줄도 모르고 일만해서 미안해!
배움이 부족하다고 기죽어 살아서 미안해!
또, 아프면 죽어버리려고 했던 것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고생시키지 않고 예쁘게 가꾸어 줄께!
많이 배우고 지식 쌓아서 어디에 나서던지 똑똑하고
당당하게 꽃길만 걸어서
김순애,
너의 향기 널리 널리 온 세상에 뿌려 줄게

김순애. 사랑해 라고 고백하며.....순애가

사랑이란 참 힘든 단어입니다

1A 김미옥

음.... 사랑이란 참 힘든 단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랑이란 단어를 말한게 몇 번이나 될까요?
저는 살아오면서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어릴 때 '사랑해!' 하고 한 것 말고는...물론 남편과 연애할 때도 결혼해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네요. 제가 사랑을 몰라서 말을 못했을까요?
이처럼 '사랑' 은 저에게 참 말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번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라 발표 수업으로 처음으로 이리 많이 말해 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힘들게 저에게 고백을 해 봅니다.
옥이에게...
이제는 제법 은행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가는구나. 학교 정문을 들어 설 때마다 '시간 참 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옥아, 예전에 너에게 '너는 왜 태어 났니? 태어나지 말았음 좋았을 걸"라고 말을 자주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너무 어린 10대에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 부모님의 이혼, 새엄마와의 동거,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고사, 새엄마와의 이별... 그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너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치였잖아. 어린 너에게 인생이란 것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어. 밤마다 환하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웃음소리, 속닥속닥 얘기 소리가 들려오는 집들을 지나칠때면 '너에게도 저리 따뜻하고 푠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그저 희망사항이었지. 그래도, 옥이 너는 좌절하지 않고 어긋나지도 않고, 목표를 세우고 바른 길로 가려고 무지 노력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산 거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괜찮은 남편을 만나고, 이쁘고 착한 세 아이를 skvrh 너가 희망하던 따뜻한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고 있잖아... 옥아, 너가 어느날부터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서, 너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지 않니? 머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옥아, 이제 너도 인생의 절반을 살았네!! 지금까지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의 인생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의 밝은 모습 잃지 않고, 너의 열정도 꺼지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계속 만들면서 계속 쭈욱 나아가 보자!!
옥아, 나는 너를 무지 사랑한데이!!~**

나는 누구인가?

1A 강원미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라! 제목부터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펜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언컨대,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입니다.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 나이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에 단 한줄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이 가당할까요?

나의 이기심으로 여지껏 스스로를 괴롭히려 했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질책까지 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사랑 고백은 잠시 미뤄볼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합니다.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을 질책하거나 괴롭히지는 않겠다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란 것을...
즐거움도 서러움도 원망도 행복도 '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아픔만 고생만 주었던 '나' ,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원미야!! 거친 삶을 열심히 잘 참고 살아왔던 너가 대견하고 고생했다.
이만하면 100점이야 하고 칭찬해 주고 싶구나.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은 마음 수련이 다 되었을 무렵에는 꼭 해줄께!!
기다려 그리고, 미안해 원미야!!

끝으로,
다같이 '사랑해요!' 라고 함께 외쳐 보아요.
'사랑해요' 한 마디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학우여러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멋을 부립니다

1A 권현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가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추워지네요.

나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서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얼굴에 분도 바르고 예쁜 립스틱도 발라주고 마스카라도 올려줍니다.
통통한 몸매임에도 예쁜 옷을 입으며 멋을 부려봅니다.

더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못했을까 후회할까 봐, 후회하며 살기 싫어서 오늘도 거울 앞에서 멋을 부려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후회하며 살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 분들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웃고 멋부리니 주위로부터 엔돌핀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내 성격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현조에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지만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사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현조야,
지금처럼 열심히 살자, 사랑한다!

추운날 건강 관리 잘들 하시고 모두 파이팅합시다!~*

오직 한명 뿐인 소중한 나

1A 방영희

영희야, 안녕...
누군가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도 학교에 와서야 자주 듣게 된 낯설은 이름!
누군가의 무엇이기만 했던 나였기에 이름도 자주 듣지 않게 된 세월....
하물며,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은 더욱 하지 못했다.

자존감이 높지 않게 살아온 나날, 과거의 괴로움을 계속해서 마음 속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남의 시선만 신경 쓰는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살아왔다.

지나치게 남의 시선에 신경 쓰는 건 자신이 없기 때문..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나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야지...

누구나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한다.
정말 잘했어! 너는 최고야! 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니, 내가 나를 칭찬하자. 커다란 무엇이 아닌 소소한 작은 것들에서부터..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당연시 했던 이런 것들도...

오늘도 영희야, 열심히 사는구나, 잘했어!
작은 것들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가능한 것이거늘..

살아보자,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가이 가득함에 감사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에 집중하자!

이 드넓은 세상에 오직 한 명 뿐인 나,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마음을 토닥거려 주고 싶은 날이다.

사랑한다. 영희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데 누가 나를 사랑할까

1A 문상선

항상 내가 싫었던 나,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부지런 할 때나 게으름 피울 때도 싫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해도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언제부터 내가 싫어졌을까 생각해 본다. 어릴 때부터 맏딸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 온 탓일까? 자신에게 물어본다.
어느 날 너무도 싫은 내가 있고, 착한 인연에게 상처 주는 나도 싫고
내 안에 내가 싫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서,

어느 날부터 내가 싫은 나를 조금씩 마음을 비워보기로 한다.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꿔보기로 하고 지금은 예쁜 나로 살기 위해 노력중인데,

교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라'는 글을 쓰라고 하시니
아!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데 누가 나를 사랑할까 생각해 본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 줘야지!
상선아, 이름은 예쁘지 않지만 정말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앞으로는 더더욱 아껴 줄께!

항상 너에 마음을 너무 부정해서 정말 미안해!

사랑한다, 상선아,
앞으로는 내가 나를 즐겁게 해 줄게...

삶에 대한 첫째 방법, 나를 사랑하자!

1B 이정순

삶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를 사랑하자’이다.

나 이정순에게,
고생했지, 애썼어, 지금까지 잘 해 왔어! 라며 위로하고 응원을 보낸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또, 나이 50이 넘고부터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건강하자‘ 이 말부터 먼저 하게 된다. 나를 사랑해야 맨탈도 세지고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결혼을 하고 부터는 우선 순위가 남편, 아이들었지만,
지금은 나를 제일 사랑해야 하고 내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100세 시대에 나를 잘 데리고 살려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늘리고,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학우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내일도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싶구나

1B 김혜숙

“혜숙아 고맙고 사랑한다. 어제보다 오늘, 다가올 내일을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싶구나! 지금껏 열심히 달려온 너에게 큰 박수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너를 믿기에 네가 가는 길을 항상 응원한다는 말도 전하고 싶다”

사랑스런 나의 두야, 올린 머리 했을 때, 색깔 입혔을 때 어쩜 그리도 잘 어울리고 예쁘니? 항상 밝은 생각과 기억으로 나를 이끌어 주는 네가 있어 난 언제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단다.

이쁘고 아름다운 눈아, 늘 세상을 좋은 빛으로 바라봐 준 네가 있어 정말 고맙다. 살아가면서 이쁜 모습들만 보고 싶겠지만 가끔 보기 싫은 모습들을 보더라도 너의 밝은 눈으로 좋은 것으로, 이쁜 것으로 바라봐 주면 어떨까? 그래도 세상은 좋은 것만 보고 살아가기에 있는 시간도 부족하니, 우리 함께 좋은 빛으로 좋은 환경 만들어 가며 살아 보자 꾸나.

이쁜 눈아...내얼굴에 네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징? 네가 있어 그래도 이쁘단 소릴 듣고 산단다. 고맙다 내 이쁜 눈아~~

매일 온 가족의 바쁨을 듣고 행동하는 바른 귀야, 아침부터 “엄마, 엄마” 찾는 소리를 듣고, 가끔 신랑의 애정 어린 속삭임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소리의 소중함을 매일 알려주는 네가 있어 오늘도 너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세상과 이웃과 친구, 가족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같은 역할을 해준 네가 있어 난 오늘도 힘차게 하루일을 시작할 수 있단다.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네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해줘서 고맙고, 친구들과 수다방을 펼칠 때 그 얘기를 듣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 네가 있어 정말 좋구나. 이쁜 내 귀야...이제껏 맡은바 임무를 잘해온 네게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될까? 살아가면서 정말 속상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듣거든...우울해 하지말고, 속상해 하지 말고, 네가 살아감에 있어 좋은 충고를 해준다 생각하고 새겨 들을 수 있는 힘을 길러다우....

아름다운 입맞춤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입아, 거울을 보며 나에게 입맞춤을 보낸다. (쪽 쪽~) 키스하고픈 내 입아, 오늘도 알지? 무심코 내뱉은 내 감정의 말로 주위의 사람, 또는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말의 기운이 얼마나 크고, 작아짐이 있는지 너는 잘 알지 않느냐.. 경험으로 충분한거니 하루의 시작을 부드러운 말로, 희망을 주는 말로,

긍정으로, 진실된 말로 생활하다 보면 나의 마음을 살찌우는 길이오 주변을 살리는 길임을 너는 알고 있잖아. 이제껏 그리 해왔으니..입꼬리 올리고! 항상 웃는 입! 그리하면 입에서 전해오는 말들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백세인생에 아직 절반도 못산 우리잖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연들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좋은 언어로 세상 훈훈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
매일 바쁘게 뛰어다닌 나의 육신~ 팔 다리야, 오늘도 부지런히 는구나...자 그만하고 통통한 체격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닌다고 고생이 참 많다. 아니 정말 열심히 뛰는데 왜? 매번 늦는거야? 왜 그러니...더 많이 뛰어라, 더 빨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이 먹기 전에 근육질 몸매도 도전해 보는 거야. 김혜숙 할 수 있어..파이팅!!!
그리고 뚝딱뚝딱 음식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내 예쁜 손...고마워, 너 덕분에 음식 잘한다는 소릴 들으니 나도 참 좋다...신랑한테 이쁨 받은 것 중에 네가 한 몫 차지 한다는 거 알고는 있징. 네가 있어 늘 내 어깨가 으쓱하단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아!** 오늘 아침에도 너희들은 위해 난 행복한 아침을 많이 먹고 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첫 새벽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시작으로 가벼운 빵과 과일로 너희들을 달래본다. 비록 아이들이 먹다 남은 과일로 배를 채웠지만 이 또한 너희들을 위해 내가 행한 거니 내 속에서 소화를 잘 시켜주리라 믿는다. 난생 처음 내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고백해 본다. 너희들이 있어 내가 편안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단다. 나도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싸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사랑하고, 활동하며 많이 웃어 줄 테이니 너희들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삶을 누려보자 꾸나...
내 안에 건강하게 있어줘서 정~~~말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저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저 안의 모든 기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았습니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노라 외치며 살면 이보다 좋은 일도 없겠지만, 때론 누군가에겐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너무 사랑하려고 애쓰거나 힘들게 살면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대로의 자금 이 순간의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끝인사를 해봅니다.
우리 서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죽도록 사랑하는 멋진이가 되어 봅시다.
“우리 학우님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저의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을 향해 외쳐보는 진정한 저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는가?

1B 배영자

나는 거울을 볼 때 내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나 옷을 입을 때 단정한 모습인지 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는 데 항상 미소를 지어보기도 g고 슬플때도 엉엉 울고 나서 거울을 ㅂ기도 하며 일상 생활에서 거울같이 예쁜 내 얼굴 노래 가사도 있듯이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사랑해'하고 다독일 때도 있다.

사람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는가? 내 삶에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 생각하면 가족이 나를 울게 했고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딸, 아들 남매가 잘 성장해서 아들은 미국 동부 보스톤에서 본인의 전공을 연수했으며 현재는 일본에서 가스 회사에 책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딸은 네이처 과학 저널에 좋은 점수로 논문을 올리기도 했고 개인 특허도 7개나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 과학자회 이사이기도 한 유능한 과학자이다. 이들은 지금도 내 말을 잘 공감해주고 지혜로운 우리엄마!
칭찬도 아끼지 않는 편이라 나는 가족에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무슨일 일 있을 때 잘 대처를 해 온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자원봉사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광역시에서 6년간 무보수로 봉사를 하며 출.퇴근했고 그 곳에서 나눔과 사랑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 많았다. 그 때 많이 성장하고 마음 폭도 넓어진 것 같으며, 그 친구들은 아직도 연락하며 20년 이상 서로 봉사활동이 진행 중인데, 나는 포털시스템에 3천 시간이라는 봉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대학 졸업 후 노인 상담 봉사를 하고 싶다.

나는 자신이 경험 해 본 일이 많지 않아서 잘 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 데, 무엇이든 시작해 보면 그리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다. 탁구도 10년 쯤 쳤고, 시니어 선수 출전도 했으며 탁구장에서는 일등이다. 컴퓨터도 잘 하는 편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서툴지만 은근과 끝기로 해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칭찬과 박수를 모낸다.
늘 자랑스러운 배영자, 사랑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1B 박경희

1월인가 싶었는데 어느 새 가을이 깊게 물들어 가고 있다. 가을은, 산과 들만 물 들이는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물들이고 있는 듯 하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했던가.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경험도 부족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늘 누군가를 위한 사랑은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너무 인색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다 자신의 성장과정이었던 것 같다. 세월의 빠른 흐름 속에 자신을 되돌아 볼 틈도 없이 바쁘게 달려온 나 박경희!! 대견하고 너무나 사랑한다.
인생길 굽이 굽이 돌고 돌아보면 언제나 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려온 순간들을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의 충전을 못하고 사네'라는 노래 가사가 있다. 나는 대구 공대 사회복지과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내 삶의 충전은 시작된 것 같다.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 학우님들과 우정도 나누며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께 사회복지 학문적 분야도 익히고 더군다나, 스피치를 통해 강사의 길로도 가게 되었다. 실버 강사로 주간 보호센터에 수업 나갔을 때 인지가 조금 떨어진 어르신들이지만 너무나 고마워하며 두 손을 꼭 잡아 주실 때 내 가슴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너무나 뿌듯하다. 그 동안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나에게 이러한 변화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에 대한 에너지 충전이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다.

경희야! 잘했어, 기특하다! 사랑해~*
지금은 100세 아니 120세 시대라고 한다.
재수 없으면 150세까지도 산다 하지 않는가?
'마음 안에 항상 10살짜리를 데리고 살아라'는 김경숙 교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이제 부터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게을리 않고 더 노력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더 많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다.
경희야, 고생했다. 잘 견뎌 주어서 고맙고 사랑한다!!~**

토끼를 잡더라도 범을 잡듯이 하라

1B 강옥화

불현 듯 나에게 물어본다.
옥화야, 너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글쎄, 이렇게 되고 보니 사랑하긴 한 거 같어.

몸을 아끼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어?

갑자기 할머니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토끼를 잡더라도 범을 잡듯이 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요즘 공부가 어려워 토끼 잡기처럼 한다.
남편과의 갈등도 있어서 더 힘이 든다. 나는 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얽히고 설킨 매듭은 자르기 보다 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부는 만나면 침묵이 전부인데, 나 혼자만 말하는 것도 이젠 지쳐가고, 하지만 더 헝클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다.

또,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소소한 일이지만 설거지 할 때는 고무장갑 끼고 하고, 화장품도 아끼지 말고 듬뿍 바르려고 한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잠시 같고,
하나 밖에 없는 이 몸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껴 사용해야겠다.

그래, 알겠어, 옥화야!
나는 너를 무척이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지현아, 진심으로 응원할게

1B 노지현

사랑하는 지현아,
요 며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살랑하니 바람도 불고, 오후에는 구름도 높은 가을 하늘을 보니 내 기분도 요즘말로 짱이구나.

지금이 딱 등산하기 좋은 날씨인데 2년전 교통사고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많이 안타깝구나. 몇 해 전만해도 친구, 언니들이랑 내장산, 마이산, 청량산 등으로 높은 하늘과 울긋불긋 예쁜 단풍들도 눈에 넣으며, 산타기 좋아하던 너는 저 멀리가고 안보이니 그 때의 니가 가끔은 보고 싶기도 하다.

그래도, 지금의 너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늦었지만 새로운 공부도 시작했고, 새로운 운동과 취미들을 찾아가며 니 인생을 즐겁게 즐겁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니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니가 하고 싶은 것, 니가 먹고 싶은 것, 니가 보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길 내가 진심으로 응원할게.

지현아, 지현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난 널 사랑해.

2021년 10월 어느 가을날

경기민요 57호 전수자 손춘옥, 사랑해

1B 손춘옥

익어가는 가을 속에 기쁨이 있듯이 우리 학우님들 웃음 '속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래요. 오늘 주제 내용은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라입니다.

춘옥아, 너는 잘하고 있어.
나 자신이 대견스럽다고 생각해.
살면서 나 자신에게 칭찬해 보지 않았는데,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 보니 정말 너에게 칭찬해주고 싶어.
춘옥아, 사랑해~

여태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견디고 두 아이들을 잘 키워 출가를 시켰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부모로써 의무를 잘 감당해 낸 너 자신이 대견스러워 그 점을 또 사랑한다.

늘그막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도 커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 대학교에서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하는 나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워! 용기를 가지고 내 꿈을 이루어 가는 너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 춘옥아!

그리고, 너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취미로 열심히 배운 경기민요 57호 전수자 받은 거 정말 대견하고 대견하다. 코로나 때문에 봉사는 당분간 못하지만 대학교 졸업하면 요양병원, 양로원 그런데 가서 어르신들 민요도 불러줄 계획이야.

춘옥아, 너 인생 참 잘 살아왔다.
지금부터는 남들처럼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기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 손춘옥을 훌륭하고 화려하고 예쁘게 가꾸어 줄게. 더욱 즐겁고 보람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할게.

손춘옥 사랑한다. 파이팅~**.

나를 사랑하는가, 이제 질문해 본다

1A 윤이자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이자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뭉게구름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기”입니다.
서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부터 참 망설여지는 주제입니다.

저는 제목을 듣고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 동안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문에 답은 정확하게 ‘나는 나를 사랑한다’입니다.

교수님께서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으로 전달되지만,
‘글에서 제목이 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기사에서도 제목이 반을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다가 이번 스피치 주제로 의문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스피치의 주제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나에게 의문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 의문에 대하여 나에게 고백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것도 학교에 등하교하고부터였다. 생각이 변한 것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 내가 보는 주관적 관점보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그 관점의 답이 내가 아니라 우리다‘ 로 생각이 변해감도 실감하는 요즘이다.

전에는 내가 생각해 봐도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하는지? 에 대한 물음의 답은 ‘나를 사랑한다’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윤이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본다.
윤이자,
나는 너를 사랑해!~*

속정이 많아 가슴이 따뜻한 나

1A 현연희

가을이 왔나 했더니 며칠 사이 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과제는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라' 이지요.

저는 겉으로는 표현을 잘 하지는 못해도 속정이 많아,
가슴이 따뜻한 나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쌀쌀맞다고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침착하고 다소곳한 나를 사랑합니다.

남편은 제가 만든 반찬을 다 맛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된장국을 참 잘 끓이는 나를 사랑합니다.
학우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국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돌지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된장국 한 번 대접하고 싶네요.

딸들의 인생 선배이자 엄마인 나는,
계절마다 제철 과일을 싱싱할 때 먹으라고 잘 챙겨주는 나를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는 합천 황토밭에서 갓 캐낸 고구마를 딸들에게 보냈는데 잘 받았다고 전화가 오면서 "엄마는 상품 값도 다 주고 사면서 선별작업이 안된 걸 보냈어요"라고 야단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농촌 일손 구하기가 힘든 모양인가?'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지인 분들과 딸들에게 미안했지만 어쩝니까.
저는 제가 손해보고 사는 것이 맘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자'라는 주제로 적어본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딸들의 좋은 친구, 조금은 손해 보며 세상을 살려고 하는 여자
현연희!
연희야, 사랑해!

늘 자신을 저평가하며 살아왔던 나였지만

1A 백승호

오늘 주제는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저 자신을 별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한다면 오히려 늘 저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선출직 간부를 맡아서 올해로 8년째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협 대의원이나 이사 등 치열한 선거에 여섯 번 출마해서 다섯 번 다 당선되었습니다. 한 번도 낙선하지는 않은 거지요. 같은 출마자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자신도 성취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마음은 다시금 저 자신에 대해, 나는 여러 면에서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가게 됩니다.

지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마음은 원인은,
끝없이 도전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해병인의 정신이
저의 몸에 깊숙이 배여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백승호, 너는 해병 출신으로
현역 때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방 의무를 다했으며,
전역 후에는 사회의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백승호, 사랑해!!~*

나훈아의 '붉은 입술' 불러도 될까요

1A 박영국

안녕하십니까, 유럽에서도 유명한 영국신사 박영국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김경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근면하지 못한 자신보다는,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에도 자신보다 가족과 가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맞다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나 자신에게는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네요.

여러분 하지만, 요즘 100세 시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배움에 나이가 없듯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영국, 스스로를 사랑하자~
저도 앞으로는 남은 인생 가족과 가정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두서없는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의미에서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훈아의 '붉은 입술'
여러분 앞에서 한 번 불러 봐도 되겠습니까?

상선아, 남은 인생도 잘 부탁한다.

1B 이상선

상선아, 사랑한다.
너에게 사랑한다고 처음 고백하는 것 같구나.

오늘따라 하늘은 유난히 푸른빛으로 가을의 숨결을
앞마당에 가득 퍼부어 놓았네.
가을의 하늘은 높고 들판에는 오곡 과일이 무르익어 가며
울긋불긋 나뭇잎도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는구나.

상선아, 사랑한다.
그 동안 별 탈 없이 잘 살아 온 것이 정말 고맙구나.

상선아, 고맙다,
67세 나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데
대학이란 곳에도 왔다니 말이다.
상선아, 용기를 칭찬한다.
대학 공부 하겠다고 온지가 어느 덧 몇 개월이 지나간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가에 주름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조금 아팠는데,
지금 생각하면 세월의 흔적인 것을....

상선아, 미안하구나.
마스크를 벗으면 너도 더 아름다울 텐데...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왔노라
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겠지.

상선아, 고마워!
남은 인생도 부탁한다.
지금처럼 마음은 풍부하게 누리며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사에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자고 약속하자꾸나.

다시 한번 '상선아, 사랑한다' 고백해 보며....상선이가 상선이에게

미수야, 난 네가 좋아! 쓰담 쓰담~

1A 이미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라”를 발표하겠습니다

대구공업대학에 입학해서 스피치 수업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 찬찬히 되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신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 합니다.
저 역시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니, 어쩐지
손발이 오글거리는 느낌입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약간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다른 집들처럼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서 무슨 일이든 알아서 해야 했고,
고민도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러다보니, 제 자신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고 뭐든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노력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미수야, 난 네가 좋아”라고 마음속으로 쓰담 쓰담 해 준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잘되고 잘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면 어쩔 수 없이
제 자신이랑 비교가 된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 내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남들이 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내 행동을 비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순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지금의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랑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야, 사랑해! 쓰담 쓰담~*

사랑을 듬뿍 받은 어느 10월에

1A 김정란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을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갖 울긋불긋한 꽃들이 반겨줍니다. 오늘은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라'는 주제인데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래 가사 중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슴을 설레이게도 하고 오글거리게도 하고, 희망도 주고 때로는 슬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문자와 카톡으로도 하고, 하트도 보내고 엉덩이도 토닥토닥하며 고백하면, 고등학생 우리 딸은 싫어하면서도 나두~ 라고 하트를 보내줍니다. 저는 이 맛에 열심히 표현합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해 봤습니다. 몇 손가락 안 드는 사랑 표현입니다. 신혼 시절 이후로는 별로 말한 적 없지만, 가족끼리 왜 이래가 아니라 오늘은 집에 가서 살짝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합니다.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은, 올해 초에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지께 사랑한다 말한 것이 사장 슬픈 말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해드릴 걸 하면서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많이 해 보았지만 정작 저에게는 인색한 말 어색한 말이었습니다.그저 하루 하루 열심히 살고 그 때마다 닥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나에게는 한번도 고백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고백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사랑이라는 꽃으로 도배를 하고, 사랑이라는 밥상을 차려주고, 사랑이라는 이불을 덮고, 사랑이라는 꿈을 꾸게 헤 주고 싶습니다.
'데디 고'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정란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거다,
예쁜 정란아! 정말로 I love 다'

사랑을 듬뿍 받은 어느 10월에 정란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오늘부터!

1A 임정숙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함을 자책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를 자꾸 고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 탓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해봅시다.
자신을 엄격한 판사의 눈으로 평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대하듯,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떤 면에서는 출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나를 사랑하며

1A 마정희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행복해 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 나를 사랑합니다.
책을 가까이 두려 노력하는 나를 사랑합니다.

많지는 않아도 속 깊은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고
자주 연락 없어도 가끔 생각나서 전화해 봤다는 친구가 있는
나를 사랑합니다.

문득 문득 죽음을 떠올려,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나를 사랑합니다.

모자란 나에게 엄마라는 이름의 아픔과 기쁨을 알게 해 준,
아이들이 있는 나를 사랑합니다.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살고 싶은 나를 사랑합니다.

영화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가진 것 하나를 열로 나누면 십분의 일로 줄어드는 속세의 수학과 달리
가진 것 하나를 열로 나누었기에 그것이 천이나 만으로 부푼다는 하는 나라의 참된 수학, 끊임없는 나눔만이 행복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 행복의 정석을. 톤즈 아이들을 만나 배우게 됩니다 '라고 말씀 하셨지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는, 끊임없는 나눔의 행복도 알아가는 나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좋은 학우분들 앞에 서 있,
지금의 나를 사랑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1A 추미숙

가을이 깊어져,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있는 지금 나의 계절은 어디쯤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엄마로 살면서,
오롯이 `나`를 생각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원래 별을 좋아하고 예쁜 찻집도 좋아하고,
오솔길을 거니는 걸 좋아하는 봄 같은 시절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 결혼하면서,
쌍둥이를 낳고 불꽃 튀는 여름 같은 시간을 보냈다.
쌍둥이를 모유 수유하느라 잠은 포기해야 했고 아이들이 울 때면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안고 몇 시간을 달래야 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가끔씩 엄마 마음을 몰라 줄때도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하지만 몰라줘도 괜찮다.
누구나 아이는 키우지만 아무나 쌍둥이는 못 키운다고 스스로 대단하고 장하다고 칭찬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유로운 내 삶의 가을.....
누구보다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된 우리 딸들을 잘 키워낸 나는,
이제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고 한다.
나는 앞으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되 뇌이며 잘 헤쳐가리라 생각해 본다..
지금도 나날이 늘 행복할 수 없지만,
평범한 하루하루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박한 내가
쑥스럽지만 사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 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 갈,
추미숙, 사랑한다. 사랑해~*

너무 자만하지 않고, 감사함의 표현과 함께

1B 권용건

안녕하십니까, 권용건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라' 라는 주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 청소년기 시절, 제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 질타를 받게 하였으며,
어리석은 제 행동으로 저질렀던 수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 손으로 놓쳤고,
제 몸에 수많은 상처들을 보듯이,
제 자신을 그 동안 너무 함부로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 자신을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칭찬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저는 칭찬을 들으면 그 정도는 아니다, 부끄럽다 라는 표현을 하며 부정하고 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들이 칭찬을 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고,
감사함의 표현과 함께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제 자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제게는 무척 유익한 주제였고,
들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1B 신영제

이모, 삼촌, 누님, 형님,
안녕하십니까. 신영제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추우실텐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안들리게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라'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걸 무척 싫어했습니다.
누구나 공부하는 걸 싫어하겠지만,
저는 유독 공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지랑 친해졌습니다.
민지랑 친해지니까 민지가 또, 공부 좀 하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민지의 말을 무시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학기 성적을 보고
민지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민지가 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후회를 하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아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제, 파이팅!~*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바꾸고 나니

1B 조민지

안녕하세요, 조민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학우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요즘 코감기, 목감기가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구요.

학우님들,
저는 지금 모습과 다르게 초, 중, 고등학교 때에는
소심이 중에 왕소심이었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던 저는 오늘처럼 발표라는 거 자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발표를 하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제 모습이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대학교 가면 꼭 적극적이고 목소리 크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제가 이런 다짐을 하게 된 이유가 소심한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의 언니와 동생을 보며 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니랑 동생은 소심한 저와 달리 너무 활발해서 저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나의 소심한 성격을 바꾸겠다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대학생이 된 후 소심했던 성격이 말 그대로 시끄러운 성격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야가 요새 와 이리 시끄럽노!' 라고 할 정도이지만 그래도 저는 시끄러운 성격 덕분에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 만족, 대만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밝고 자신있게 꿈을 펼쳐 갈 조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쁘게 잘 커주길 바래

1B 민규리

안녕하세요, 민규리입니다.
저는 그 동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를 준비하는 기회를 통해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무척이나 소심하고 말도 잘 없는 사람이었고,
용기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앞에 나와서 발표 하는 것조차 떨려서 용기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활발한 친구를 사귀면서 제가 먼저 다가가 말도 걸고, 소심하고 말도 없는 나였지만 친구와 대화할 때는 잘 웃고 말도 많아지고 활발해진 나 자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무슨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규리야,
점점 성장하면서 성격이 바뀐 너의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앞으로도 소심한 너의 모습은 버리고,
활발하고 용기있는 규리가 되자!
규리야, 많이 사랑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쁘게 잘 커 주길 바래~*

여러분,
다들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1B 김나연

안녕하세요, 김 나연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안녕? 나연아.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힘들지?
면허 필기 준비 중인데, 시험 칠때마다 자꾸 떨어지니까 더 자신감이 안 생기고 너 자신이 싫어지지?
그렇지만 잘못하더라도 용기만은 잃지 않았으면 해.

남자 친구랑은 잘 사귀고 있어?
군대 있으니까 잘 만나지도, 연락도 안되고 마음도 지치고 많이 힘들지.
그래도, 학교 잘 다니l면서 군대 간 친구 기다리면 더 행복해 질 거야.
자신감 떨어진다고 헤어지면 서로 힘들고 본인도 밉고 싫어 질 거니까 말야.

요즘엔 또 너 외모가 싫어서,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안 예쁘고 괜히 짜증이 많이 나지?
그리고, 부모님이랑 싸울 때면 외동딸이라서 너의 편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만 뭐라 해도 너를 싫어하는 것 같지? 하지만, 뭐라고 해도
엄마 아빠는 널 싫어하는 것이 아니야.

나연아,
너는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
앞으로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연아, 사랑해!
앞으로는 더 많이 행복할거야~*

【재학생 스피치 원고 3】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대구공업대학교
DAEGU TECHNICAL UNIVERSITY

막 피기 시작하는 너의 인생 모든 것을 응원한다!

1B 김서희

“시몬..너는 들리니 낙엽밟는 소리가...”
엄마의 학창시절에 많이들 좋아했던 시가 생각나는 가을 아침이다
엄마 아들~~ 안녕^ ^

우리 아들 현이가, 군 훈련소 입소했을 때는 거의 매일 인터넷 편지를 써 보냈었는데 자대 배치 받고나서 부터는 휴가를 자주 나와서 편지를 쓸 겨를이 없었지. 그 후로 지면으로는 오랜만에 써보는구나..

엄마가 알고 있는 우리 현이는
리더쉽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따뜻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지.
여태 동생과 한 번도 다툰 적도 없었고 먹을 게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동생을 너무 잘 챙겨주어서 많이 고맙고 든든했다

18년간 키운 우리 루루도 얼마 전 떠나고
엄마의 적막함과 이별의 슬픔이 너무 커서 너의 슬픔을 섬세하게 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가 데리고 온 녀석이라 어쩌면 엄마보다도 더 슬픔이 컷을 텐데
엄마 걱정부터 해주며 이제는 너희걱정은 그만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며
엄마의 늦깍이 공부를 늘 응원해주고 용기 주는 울 아들 많이 고맙다

엄마는 요즘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때 학창시절에 이런 공부를 하였다면
너희를 키울 때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키워주지 않았을까 라는 욕심에 미안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을 실감하곤 한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너희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삶을 꿈 꿀 수 있게 엄마는 현명한 시어머니,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 한다

아들아~
인생에서 초보와 선수는 없단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무섭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다.

엄마가 먼저 걸어서 지나온 인생길은
착함만 가지고는 전쟁 같은 세상을 살기엔 너무도 험난한 여정이기도
하더구나.
그래서 늘 착하고 정이 많은 아들이 걱정이 되곤 한단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과속으로 다른 차를 추월한다고 운전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던 빠르던 다른 차와의 속도를 맞추어 흐름을 잘 타야만 하는 것처럼
인생 또한 흐름을 잘 타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말고, 어려운 사람에겐 나눔도 할 줄 알아야하며
남을 너~무 믿어서 내가 가진 화투 패를 다 보여주는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관계의 적정거리를 두어서 현명하게 직장생활을 잘 하길 바란다.

그리고, 늘 책을 가까이 두고 하루 몇 장이라도 읽는 버릇을 들인다면
훗날 그건 좋은 습관이 되어서 성장의 좋은 토양분이 될 것이다.

너가 가는 길은 앞으로도 항상 열정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너의 인생 모든 것을 응원한다!

가을 바람이 불쑥 코끝을 스치니 목감기 잘 앓는 너가 걱정되는구나
부디 아프지말고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자..

너무도 당연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너를 많이 사랑하는 엄마로 부터~♡♥

사랑이라는 말이 부족 할만큼 소중한 내 딸들에게

1A 이미수

먼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어느 순간 눈을 한번 감았다 떴더니,
너희들은 대학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더구나.
엄마도 너희들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지금 너희에게 닥치는 일들이 힘들고 고민이 되겠지만 그것은 훗날
너희가 이루어낼 좋은 결과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할 많은 시간,그 시간은 짧지도 않지만 결코 길지도 않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시련도 있을 것이다.
그 시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일수도 있고 가족,직장등 여러 가지 일들과 너희가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딸들아~
살아가는 동안 아쉬움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단다. 왜냐하면,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란다. 현명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고, 남에게 속지 않는 것은 지혜란다. 청춘을 만끽 할 권리가 있다면 늙음도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의무가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한다.
사랑하는 딸들아~
삶에 있어서 만남과 헤어짐은 다반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또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단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이별이 아니고, 돌아 올 수 없는 인연의 끝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의 끝, 이별은 새로운 삶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과 같단다, 그러므로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란다.
이별도 만남도 사랑만큼이나 아름답게 할 줄 알아야 한단다.
이 세상에 사랑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것은 없단다.
이것은 모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에서 나오는 행동이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너희들 삶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20일 초겨울날
사랑하는 내 딸들의 삶을 항상 응원하는 엄마가

결혼식 축사를 대신하여, 딸에게

1A 박영애

정아,
결혼식 축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이 엄마가 그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축사 대신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너에게 보낸다.
아마도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는 건 처음인 것 같구나.

널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가슴이 저려온단다.
어린나이에 너무나 많은 것을 겪게 한 것 같구나. 아버지의 부도로 여러 차례 이사와 전학, 그리고 큰 아버지 집에서 혼자 두 달을 살게 했고 7살 터울의 동생까지 맡기기도 하였구나. 일에 지쳐서 온 날 보면 엄마 오늘 화나는 일 있냐고,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널 볼 때마다 안 그래야하지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 너에게까지 화를 내곤 했단다.
정아, 이제야 너에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정말 너 마음을 보듬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

그리고 정,아 너의 사랑 찾아 떠나는 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했었다. 하지만 무뚝뚝한 아빠와 정반대되는 자상한 지호를 만나 떠난다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단다. 딸, 하나만 부탁할게.
멋진 사랑의 결과처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엄마는 너희들과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고, 여행도 가지 못했던 게 후회되지만 너는 너의 자식을 낳으면 3살까지는 꼭 엄마 품에서 자식을 키웠으면 좋겠다.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교수님들께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는데, 3살까지는 초자아형성시기라서 엄마의 품안에서 사랑으로 키우는게 중요하단다. 따라서, 네 자식은 네가 키우고 엄마에게 맡길 생각일랑 하지는 말거라.

마지막으로 정아, 너가 선택한 사랑의 결실이 영원하고 ,늘 아끼고. 이해해주고, 의논하고 살았으면 한다. 한편으로는 다정하고 늘 알아서 뭐든지 잘하고 널 제일 많이 아껴주는 지호가 있어서 너가 부럽긴 해. 엄마는 그렇게 못살아 본 것 같다. 엄마를 늘 생각하면서 넌 더욱더 잘살아. 알겠지?

사랑한다! 내 딸 연정아. 늘 행복하거라... 엄마가~*

엄마 딸 민영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1A 마정희

엄마, 엄마 ,엄마~~~
제발 그만 좀 불러!!
종일 재잘재잘 참새가 이렇게 수다스러울까?
하긴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엄마도 어릴 적에 시골 가는 버스에서
몇 시간을 쉬지 않고 조잘조잘 했다더구나. 엄마 딸 확실하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딸~ 엄마가 체력이 안되어 다 받아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해. 그러니 넌 결혼을 한다면 아이는 꼭 일찍 낳으렴~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친구가 속상할까 싫어도 다 받아주는 우리 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산다고 해.
늘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독이는 사람이 되었음 한다.

책이 좋은 것인지 잠을 자기 싫은 것인지 잠자리에서 1~2시간은 기본으로 엄마에게 동화책을 읽어달라는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반쯤은 동화구연가가 되었구나.
엄마의 이런 작은 수고로움으로 우리 딸이 책을 가까이하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래~

엄마 같은 시행착오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린 너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늘어만 가는 듯하네.
그러나, 백마디 말보다 그저 묵묵히 엄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볼게.
우리 딸 민영아, 사랑해~ *

그림 13 사진 출처) 블로거 '자갈치 아줌마 이야기'에서 빌려옴

사랑하는 딸, 아영이에게

1A 김정란

사랑하는 딸, 아영아!
오늘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주제로 너에게 편지를 쓴단다.
아영아, 안녕 엄마야!
아영아, 이름만 불러도 좋네!

오랜 기다림의 끝에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 너를 만나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다 표현 할 수가 없구나. 너가 걸을 때 말을 할 때도 온통 신기하였어. 그런 너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이제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을 가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구나 아영아, 그래도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너도 알게 될거야. 엄만 맛있는 것으로 응원해 줄게!
아영아, 엄만 아직까지도 인생이 진행 중이라 너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한 가지만은 이야기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열심히 살아왔단다. 일이 잘 안되고 힘들 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 하려고 해!
아영아, 너는 엄마보다도 더 현명하고 지혜로와서 앞으로도 니 앞에 주어진 삶에 대해 잘 살거라 믿는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즐길 줄 알며 슬플 때는 조금만 울고 다른 길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줬으면 해.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고운 사람이 되었으면 해.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기도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엄마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면 기도를 했단다. 그 기도의 힘이 이때까지 엄마를 지켜 주고 있는거야. 아영아, 너도 그러길 바래. 지금은 많이 힘들거라고 생각해. 엄청 노력 하는 것 알아. 혹시나 잘 안되더라도 실망 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이 엄만 더 좋아.

아영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만 줄일게. 아영아 사랑해!
추위도 많이 타는데 따뜻하게 옷 입고, 엄마가 너 올 때쯤이면 따끈한 붕어빵 사 놓을게 ! 오늘도 파이팅!! 안녕, 엄마가~*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1A 손경희

아들아, 사는 게 많이 힘들제?
생각한 것처럼 술술 잘 안풀리제?
그게 인생이란다....

엄마도 아버지를 만나 너희 낳고 아장아장 걸음아를 걷더니 뛰고
달리고, 눈발 날리던 대학 수능 날 갓 바위 가서 빌던 때도 기억이 나고
큰애 결혼식 날 눈물 흘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손자가 벌써 고등학생이네!
참 사는 게 유수와 같고 눈 깜짝 할 새다. 사업부도도 있었고 IMF도 격었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족만의 행복한 일들도 많았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이란 것은, 삶이란 것은 참 답은 없더라.
내가 산 삶도 정답이 아니고, 대통령의 삶도 잘 산 삶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너에게 간디가 말하는 5가지의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탁한단다.

첫째, 생각을 조심해라
둘째, 말을 조심해라
셋째, 행동을 조심해라
넷째, 습관을 조심해라
다섯째, 인격을 조심해라
이 다섯 가지가 모여 너희들 인생이 되기 때문이란다.
인생엔 답이 없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 만이라도 지키고 산다면
중간은 하지 않을까 싶다.

엄마는 너희가 큰 고난 없이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램이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더냐. 고통 넘으면 분명 좋은날이
기다리고 있단다.
아들아! 결코 쉽게 좌절하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늘 고맙고 사랑한다....엄마가

너의 인생을 응원하며, 엄마가..

1A 추미숙

내 사랑하는 딸 혜원아 보렴.
가을이 깊어져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왔구나!
벌써 고등학생이 되는 너를 보면 세월이 빠름을 새삼 느낀다.

네가 처음 태어나던 날 누구나 그렇듯 첫아이에 대한 감동과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낸 것 같구나!

어릴 때부터 야무지게 무슨 일이든 잘해냈던 큰딸..그래서일까?
장녀라는 부담감으로 뭐든지 동생들의 본보기가 되려고 애쓰는 딸..
혜원아,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너'자신이야.

너가 있고 이 세상이 있으니,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꽃피는 봄에는 오솔길을 따라 새소리도 들어보고 더운 여름이면 큰 나무 그늘아래서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볕이 좋은 가을에는 곡식이 익어가는 들판에 서서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사람..
눈오는 겨울에는 골목에 나가 눈사람을 만드는 동심을 잃지 않는 순수한 사람..그런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끝으로 얼마 전에 엄마가 읽은 글 중에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글이 있어 적어본다
사람이 길을 가다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 너의 인생을 응원하는 엄마가 -

비전을 갖기 위해 도전해라

1A 강원미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주제로 발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였다고 생각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의 핀잔 한마디 듣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학우님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의 말에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며 살아온 학우님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란 정말 어려운 직업인 거 같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다면 아마도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부모가 되어있고 또, 부모의 역할을 반이나 해온 상태라 이제는 사표를 낼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면 이런 과제를 수행 할 일이 없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편지 형태로 전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범희, 준희야!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이지만 늘, '바르게 서라, 공부 잘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부모님 말씀 잘들어라, 다 너희들을 위해서'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었지. 너희들의 행복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삶을 선택하도록 강요도 했고,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할 줄만 알았단다. 지난 날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엄마인 나는 지금에 와서야 후회를 한단다.
새삼스럽게 너희들에게, 인생을 잘 살아라 고 말하고 싶진 않구나, 너희들은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고 너희 삶을 위해 당당히 걷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거둔다 해도 비전이 없는 삶을 성공이라 말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꿈을 꾼다면 아주 크고 원대한 꿈을 꾸라고 말해 주고 싶구나.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 도전하라고도 말해 주고 싶구나. 지금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끝으로, 너희들에게 진심어린 말 한마디,
사랑하는 우리 범희, 준희야!! 내 아들로 태어나 줘서 너무 고마워!!~*

고귀하고 소중한 아들,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1A 김상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너를 낳으러 병원으로 가던 날이 생각난다.
무더운 어느 여름 날 새벽녘에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깨어나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달렸다. 병원 가는 잠시 동안이지만 배가 아파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 주시더구나. 그 때는 그 음악이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구나, 기사분이 센스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만 했었지, 음악 제목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단다. 그 기사분은 아마도 영업하시면서 쌓은 많은 경험이었겠지... 잠시지만, 산모의 통증을 진정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셨을거야...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서 새벽 2시 25분경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소중하고 고귀한 우리 아들이 태어났단다. 아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힘들었는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눈을 감고 있더구나. 그렇게 태어난 너는 크면서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잘 자라주었으니 정말 대견하고 장하고 고맙다.
고 3때였지, 해군사관학교를 친구 3명과 같이 가겠다고 결정하는 아들을 엄마가 말렸지. 아들이 안경 쓰기 때문에 바닷물에 힘들 것 같아서 엄마는 말렸단다.

결국, 그렇게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간 너가 1학년 때는 학교에서 4년 전액 장학생에게 보태 주는 무료 미국 어학연수 1달도 포기하고, 새로 해군 사관학교 시험 치겠다고 해서, 아들을 설득한다고 엄마도 힘들었단다. 그러던 중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엄마가 잘 말렸다고 그때서야 좋아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아들 모습을 보고 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지.
그 후에는 공부하기도 바쁜데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따로 공부하여 장교로 임관되어서 군 생활도 알차고 보람있게 잘하고, 제대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꽃목걸이 걸고 군용차에 연병장 카프레이드까지 한 멋진 아들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하는 울컥하는 마음에 가슴 벅차기도 했단다.
제대 후에도 리더로서의 자질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안고 끝없이 공부하는 아들이 대견하고 장하단다. 아들아, 엄마 말 듣길 잘했지!!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지 않니?
아들아, 너는 석, 박사니까 학문적으로는 엄마보다 월등히 뛰어나겠지만 그

래도 엄마는 세월에 익은 경험으로 쌓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아들보다 한 수 위란다. 아들, 세월 무시 못한다!!^ ^* 그러니까 아들,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학식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단다.

엄마는 60이 넘은 이 나이에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특히, 스피치라는 과목을 좋아하게 되어 새삼 많은 걸 느끼며 배우고 있단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생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 않니?
특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킴블리 커버거의 <지금 알고 있는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정말 마음에 와 닿더구나.
엄마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너희들 키울 때 그 때도 알았더라며 싯구의 내용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좀 더 자주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용기를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라는 공부를 해보니까 엄마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봉사하는 데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그리고, 얼마 있으면 태어 날 너의 아들 복덩이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열정으로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돌봐 줄 수 있지 않겠니....

아들!! 엄마가 늘 말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늘 명심하고 항상 어른들 공경하고 무슨 일이든 신중하고 겸손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들!! 부모 욕심은 끝이 없나 보다.
좋아하는 해외 여행도 못 나가고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코로나 19, 언젠가는 종식되지 않을까. 코로나 19 종식되는 그때 온 가족이 해외여행 한번 가자꾸나.
항상,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어떤 말이든 실천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재태크 투자는 엄마에게 꼭 의논하고 실행에 옮기면 좋겠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만큼 엄마가 좀 더 낳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
고귀하고 소중한 내 아들!
엄마는 항상 응원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파이팅!!~*

아들아, 너의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란다.

1A 전석순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주제의 과제를 통해
엄마가 몇 가지 부탁을 해 보려고 한단다.
아들아, 너는 결혼 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는 택하지 말거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거라. 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이 엄마는 만족한단다. 그리고 혹시, 며느리가 엄마 흉을 보거든 니가 속상해 하지 말고 엄마에게 옮기지 말거라. 엄마도 사람인데 기분이 좋겠는가 싶어서 하는 말이다. 모르는 게 약이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널 배고 낳고 키우느라고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서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지만 너 아내는 그렇지 안다는 걸 조금은 이해 하거라. 너도 네 장모를 위해서는 엄마인 나에게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지만 혹시, 엄마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다오. 널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이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아들아, 명절이나 엄마 아빠의 생일을 챙겨줘서 고맙다. 그리고, 매달 꽃을 보내주는데 이제부터는 용돈을 매달 주면 좋겠구나. 너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는 엄마의 욕심이란다.
내 아들아, 피 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란다. 혹시,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된다면 나를 잊어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아깝지 않다. 물론, 서울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까?
이제는 우리의 삶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우리는 힘들게 산 인생이란다.
그러니, 너희들 힘든 것은 너희들 스스로 헤쳐 가다오. 그러나, 다소 늙은 엄마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쳐 따라 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들도 이해해 다오.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약이란다.
그리고, 손자 돌봐 달라는 말하지 마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내 인생도 중요하단다.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는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단다.....세상에 하나 뿐인 엄마가....

딸들에게,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다오

1A 현연희

형형색색 가을 꽃 단풍도 낙엽이 되어가는 요즘, 학우님들 건강하시지요!
저는 오늘 딸들에게 부탁하는 제 맘을 편지 형태로 전해 보겠습니다.

나의 보석 같은 딸들아.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 건사해가면서 잘 지내고 있겠지?
너희들 어릴 때 어린이날을 맞아 두류공원에 나들이 가려고 택시를 잡을 때 아이 셋이라고 기사님께서 태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타고 가서 사진을 남긴 것을, 지금도 보면 그때의 생각이 나는구나.

엄마는 공무원인 너희 아버지 박봉에 옆도 한 번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벌써 수십 년째이구나. 그래서, 더 망설이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리도 원하던 대학에 입학도 하고 좋은 학우님들 만나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 지나온 세월이 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구나. 이 늦가을 날씨에 단풍잎 대롱하나 달린 삶처럼 눈물이 날 때도 많았지.

사랑하는 딸들아,
나는 앞만 보는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은 나이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렴. 옆도 뒤도 한 번씩 돌아보면 계절마다 피는 꽃이 각각 다르듯 뭔가 세상에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소녀 같은 티가 난다는 얘기를 듣는데 때로는 그 말이 듣기 싫을 때도 있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러 방면으로 경험해 보면 조금은 후회가 덜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인생 선배로서 너희들에게 권해본단다. 너희들도 지금은 젊다 싶어도 어느 새 시부모가 된단다. 수도 없이 당부한 것처럼 시댁 어른들께 친부모 대하듯이 잘해주면 좋겠다. 나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뵈면 미래의 아니 내일의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는 이 나이에도 내 몸을 가꾸고 우아하게 삶을 마감하고 싶은 심정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엄마가 정신이 조금 있을 때는 집에 도와주는 사람을 데리고 살고 싶고, 정신 줄을 놓았을 때는 요양병원에 보내 다오.
딸들아, 고마워!! 엄마는 늘 너희들이 잘 되기만을 바란단다. 사랑해!!~*

대학생이 된 엄마에게 준 딸의 선물

1학년 B반 6599718 김 혜숙

“ 엄마! 깜짝 놀랐지? 나 큰 딸 수인이야.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바로 필통, 필기구, 그리고 다이어리겸 노트 ㅋㅋㅋ...
엄마가 가방 챙기는걸 보고 놀래서 준비했으니까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해! 우리가 쓰던 학용품으로 가방 정리 다 했다며 밝은 엄마의 표정을 보고 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마처럼 일이 많으면 하고 싶은게 있어도 포기하게 되는데 그걸 하고, 해내는 엄마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 그리고 내 엄마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해. 필통의 문구는 ”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글귀야. 이 글을 엄마에게 보내며 앞으로 우리 엄마의 멋진 학교생활과 행복함으로 가득채울 많은 날들을 응원합니다!!. ....엄마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큰 딸 수연이가....”

사랑하는 내 딸 수인이에게!
딸램...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천사!!
오늘도 열심히 친구들과 수다 떨며 하루를 보냈을 천사 딸에게 학기 초에 보내준 딸램의 응원편지에 엄마도 보답이라고 해야 하나 몇자 적어보려 해.
딸아, 그때 엄마는 학교에서 가방 문을 열었을 때, 진짜 많이 놀랬고 밀려오는 감동에 눈물이 흘렀지., 다시 회상해도 그때 감동으로 눈물이 고이네. 정말 고마웠어 이쁜 딸, 어쩜 생각하는 맘이 누굴 닮아 그리 예쁜지? 당연 엄마라고 말하겠지..ㅋㅋㅋ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우리딸 최고라고!!
하지만, 딸에게 글로써 많은 감정들을 표현 할려니 벌써 부터 벅차오르는 마음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네. 뒤에 누군가가 서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느끼질 못했으니...엄마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한참을 바라본 동생 연욱이가 엄마 어깨를 만지며, “엄마 누나한테 편지쓸려고...아~~누나 울컥할텐데....편지 제목 자체만으로도 눈물 날려고 해” 하고 말을 한다. 누나가 감수성이 정말 풍부하다는 걸 동생도 아는 거겠지. 사랑하는 우리 딸!!

딸과의 추억에 잠기다가 제일 먼저 수능 치러 가던 날 모습도 기억난다. 너가 많이 긴장하고 떨렸을텐데, 고사장 들어가며 걱정하는 엄마 모습보고 “엄마 걱정마..나 안 떨고 잘 하고 나올테니 아빠 폰에 커피 쿠폰 보내놨어.

아빠랑 커피마시며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느긋하게 오늘 하루 보내고 있어요...김 혜숙 여사님....” 이라 말하며 고사장 들어가는 당당한 너의 모습 보고 참 누가 어른이고 얘인지...한참을 생각하고 바라봤었지.
고3이면 자신만 생각해도 될 그 날에, 너는 하루 종일 마음 조리며 있을 엄마와 아빠를 생각했구나... 이렇게 까지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울 큰 딸^^ 지금껏 이리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이 말만 마음에 되새기며 고사장을 돌아서 왔단다. 엄마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맙고, 엄마라는 이름을 너를 통해 갖게 해줘서 고맙다....시간은 유수와 같다더니 언제 이리 컸는지...쳐다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는 내 딸... 그 동안 고생 많았어. 엊그제 카운트 다운이 시작한 거 같은데, 딸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의 관문을 지나갈 종을 울리게 됐네.. 고3 아이를 둔 엄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에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엄마는 늘 미안했다. 그냥 울딸에게 엄마 아빠는 가만히 지켜봐 준 것 밖에 없는데 씩씩하게 모든 걸 혼자서 잘 해낸 울 딸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지금 이 씩씩함이 계속 이어지길 엄마, 아빠는 간절히 바래본다.

수인아, 그리고 청소년 대표로 남구에서 봉사상을 타던 날도 생각나네.
부모 동행하에 표창장 받으로 갔을 때, 엄마는 나의 15살때를 생각했었지..
그시절 난생처음 봉사라는 걸 시작했었는데 너의 모습을 통해 지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역시 엄마 딸 맞구나” 하는 생각과
그때 할머니의 마음도 지금의 엄마 마음처럼 그리셨을까?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루였단다. 그 날은 울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엄마 어깨도 뽕이 가득 들어간 아주 기분 좋은 날이였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엄마보다 더 능숙한 너의 모습과 생각들로 엄마는 울 딸이 항상 자랑스럽고 그 존재만으로 더없이 큰 기쁨 이란다. 그리고 쉿!!! 이건 비밀인데.....ㅎㅎㅎ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행동하는 너를 통해 엄마도 많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그거 하나만 알려줄께! ㅋㅋㅋ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어느 날도, “엄마~엄마~미안한테 차좀 세워 줄 수 있어? 하고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차를 도로 제일 끝편에 세워 비상등을 켰었지...차에서 내린 네가 달려간 곳은 사거리 도로 한복판...엄마는 순간 깜짝놀라 ”뭐야 뭐야 하고 차 문을 열려고 한 순간 다른 차를 빈틈 사이로 보이는 할머니 한분...리어카에 가득 실은 폐휴지가 사거리에서 다 쏟아진 걸 넌 먼저 본거야. 순간 망설임 없이 뛰어가

는 널 보고 엄마는 안도의 한숨과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었단다. 신호는 곧 떨어질 것 같아 엄마는 끝차선 모퉁이에 차를 세워놓고 도와 줄려고 했더니 행동 빠른 울 딸...할머니의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나오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탄밖에 안나오더라....울 딸이 엄마 아빠 딸이라는게 진짜 자랑스러웠다.
어디서 그런 이쁜 맘들이 나오는 건지....인성은 타고나는가? ㅋㅋㅋ 아님 진짜 엄마를 닮은거야? ㅋㅋㅋ 이런 말들을 주고 받으며 우린 또 웃음꽃을 피웠지...엄마에게 그 날은 다른 어떤 날들보다 더 울 딸만 생각하면 웃음과 행복이 밀물 듯이 찾아온단다.

수인아! 엄마가 지난 일들을 얘기하며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 인생의 첫 관문을 통과한 울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야.
어디서 들은 얘긴데..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노력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더라..아이에게는 성공해야 한다면서 부모는 정 반대의 모습으로 행동한다면 어떠겠니..사실 버릇없고 말 안 듣는 아이 뒤에는 교양 없는 부모가 있다는 말도 있잖아. 부모의 언행들이 바로 꼭 그런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제껏 열심히 살아온 성실함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해...부모의 살아있는 행동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지는 삶이라면 바둥바둥 살기보단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며 배우면서 살아 갈려고 한단다. 아직 엄마 나이도 많이 배울 나이고...인생을 논하기엔 너무 젊잖아...적어도 100세인생에 50는 살고 인생을 논해야 되는데...아직 엄마도 많이 배워야 한단다...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스승이 되어 한번 배우고 즐기면서 살아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려면 각자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고민은 해봐야 겠지..
엄마 생각은 그래...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건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라고"**
그걸 첫 번째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오, 그 행복함으로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바탕이 되어 줄꺼란 생각을 한다..
엄마도 엄마가 있고 난 뒤에 남편과 자식이 있는거니까, 울 딸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이야..."자신을 사랑해야만 내 값어치는 급상승을 하는거란다" ㅋㅋㅋ
그러고 난 뒤에 엄마의 생각을 조금 더 말해보자면, 우리 딸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 지키며 알고 살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적어본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텃부친다면
태도를 조심하라 그것은 너의 생각을 지배한다”

자녀의 운명은 부모가 좋지 않는 습관을 물려줄 때 결정될 수도 있대...
그렇지 않을려면 엄마 또한 열심히 배우면서 살아야겠지...ㅎㅎㅎ
매일 보는 너에게 편지를 쓴 다는게 사실 좀 남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글을 쓰는 것 보다는 얼굴보며 얘기하는게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는데 도대체 엄마는 왜 말 대신 편지를 택한 걸까?...ㅎㅎㅎ
때론 말보다 글이 훨씬 전달력이 크다는 걸 엄마는 아는거겠지^^
이제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첫 번째 고민을 신중하게 고민할 울 딸
수인이에게 엄마가 보내는 응원의 글이라 생각하고 10대를 벗어나 내년이면
20대를 살아가는 울 딸에게 인생의 선배로써 하는 말이니 가끔 되새기며
생각해주길 바랄께..

이제껏 엄마의 긴 글을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 인생에...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안에 울 딸 수인이가 함께라서
엄마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이 감사함을 울 큰 딸 수인이에게 보내며 편지의 마침표를 찍어볼까 합니다.

“ 울 딸 최수인!!! 엄마가 진정으로 사랑한다....^^ ”

2021. 11월 어느 가을날에
수인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두 아들에게 쓰는 편지

1B 이상선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요즘은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이 일찍 오려는지 날씨가 제법 쌀쌀하구나.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편지 쓰는 것이 처음인 것 같구나.
두 아들에게 고마운 것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고 감사하다.
두 아들이 있어 정말 든든하구나.
두 아들이 부모 속 안 썩이고 바르게 성장한 것 고맙구나.
무탈하게 대학가고 취직 잘 하고 결혼해서 자식 놓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고 대견스럽구나.

아들들아, 손자 손녀 4명 고맙구나.
꽃 중에 꽃은 손자 손녀의 재롱이 꽃이란다.
너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정말 고맙고 보기 좋구나.
직장에서도 성실과 정직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라.
두 형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라.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라.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엄마가 두서없는 글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 보았구나.

늘 사랑한다. 우리 아들들, 늘 고마워! 안녕!!~**

좋아하는 일 포기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가 다오

1A 권현조

안녕하세요, 권현조입니다.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네요. 저는 오늘 아들에게 편지글로 마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민규야!
지금은 의젓한 군인이 되어있는 내 아들아!
너는 어릴 적 경기와 천식으로 병원도 많이 다녔단다.
심한 경기를 해서 앰블런스 타고 병원 간적도 있었는 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는 했었지.

그렇게 수없이 병원을 다니던 너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팀 에이스로 축구선수를 시작할 때는 엄마 가슴은 너무 벅찼었구나. 축구가 힘든 건 알지만 천식을 앓던 너가 축구선수라니, 그리고 어느 순간 너에게서 경기와 천식이란 단어 자체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해져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단다. 전국축구대회 다닐 때는 엄마는 늘 따라 다니며 경기를 지켜봤고, 같이 다닌 학부모들이 너의 발기술을 칭찬할 때는 엄마는 너무 뿌듯했단다.
하지만 민규야, 엄마는 팀에서 덩치와 키가 제일 적은 너가 늘 안스러웠어.

그러다, 중학교 때 집과 학교 거리 그리고 기숙사 문제로 축구를 그만 두었을 때는 너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 했는데, 축구를 그만 두고는 오히려 키가 쑥 커버리는 너를 보면서 그 동안 축구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하고, 그만둔 걸 잘했구나 여겼단다. 그 후로도 엄마는 너에게 공부는 사치라고 생각했어. 특별히 바랬던 것도 없었지, 그저 건강하기만 바랬단다.

이제는 잘 성장해 군인이 되어 한달전에 첫 휴가를 왔을 때 떡 벌어진 어깨 살찐 너 모습을 안아보면서 너무 기뻤어. 벌써 이렇게 건강하게 군 생활도 잘하고 앞으로는 너가 좋아하는 일 포기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래!!
내 아들 민규야, 사랑한다. 이렇게만 건강하게 열심히 살자.
지금도 엄마는 너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아들 고마워! 늘 파이팅~~

아들에게, 삶의 지혜 7가지를 부탁하면서

1A 윤연희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는 주제로 저희 아들에게 7가지 삶의 지혜를 전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엄마가 다음과 같은 7가지 내용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첫째, 세상을 살다보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단다. 그러므로, 무작정 거절하기 보다는 일단 사람의 부탁 내용을 들어보고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노력을 하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거절하는 연습도 하면서 살았으면 한다.
둘째, 체력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단다. 그러니, 자신의 계좌도 관리하듯 몸도 꾸준히 관리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단다.
셋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사람관계가 많이 악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똑같은 말이라도 가능한 Yes를 부를 수 있는 말투와 행동을 하도록 해하.
넷째, 1분도 아닌 20초의 안부 전화도 참 고마움이 느껴지더라.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생각나는 이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살아라.
다섯째, 돈, 돈,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 없으면 아껴 쓰고 가진 돈에 맞게 살아지더라.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으면 한다.
여섯째, 음악이 좋아 배운 악기들이 창고에서 잠자는 게 안타깝더라. 살짜기 꺼내어 힘들고 지칠 때 술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보다는 악기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단다.
마지막으로, 자식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학우님 글귀가 생각나는구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맘이 어떤 것인지 아는 나이가 되었으니, 너 자신 스스로도 잘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한단다.

사랑하는 우리아들이,
언제나 삶의 풍요로운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엄마가**

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딸에게

1A 손춘옥

안녕하십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 손춘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표하고 싶은 내용으로, 우리 딸에 대한 저의 마음을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딸아,
엄마는 우리 딸을 보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나는 너희들을 키울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육에 신경을 많이 못썼는데 우리 딸은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을 보고 잘 가르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단다. 아이들도 똑똑하고 바르게 잘 키우고 있구나. 특히, 손녀가 영어를 잘해서 유튜브에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올려 놨는데 구독자들도 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 정말 우리 딸이 애들 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생각했지. 어릴 적에 외국 나가서 생활해서 영어가 잘 되는가보다 생각했단다.

그리고, 너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 목사님 남편을 맞이하여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텐데, 그 힘든 일을 잘 견디고 인도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이었단다. 그런데, 우리 딸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 지켜 주실거니 괜찮다'고 나를 안심시켜 놓고 인도로 갔지만 엄마는 너를 보내 놓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먼 타국에 낯설고 물 설은 땅 인도에서 2년을 선교활동 하고 코로나 때문에 결국, 선교활동 그만 두고 한국에 돌아왔잖아.

이제부터는 외국에서 선교생활 그만 두고 우리나라 살기 좋은 한국에서 같이 살면 정말 좋지 않겠니. 이것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지만 우리 딸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활동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줄지 모르겠구나. 엄마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으련만...가슴이 답답하네요.

사랑하는 우리 딸,
늘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너의 행복을 잘 가꾸거라...엄마가

딸아, 동영상 중에서 감동 실화 전하고 싶구나.

1B 배영자

엄마가 점점 나이 먹어가는 것 같은 그날이 오거든 인내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엄마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엄마가 똑 같은 말을 수천 번 반복 한다더라도 '엄마, 그거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라고 잘라서 말하진 말아주렴. 그냥 엄마 얘기를 들어주면 돼. 너가 아주 어렸을 때 너가 잠들 때까지, 엄마가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밤마다 읽어주던 그 때를 기억하렴

엄마가 목욕을 가기 싫어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창피해 하지 마렴.
너가 어렸을 때 목욕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도망다니는 너를, 매일같이 엄마가 쫓아다니던 때를 기억하렴. 엄마가 요즘 나오는 각종 신제품들에 대해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기보다는 엄마에게 배울 시간을 좀 주렴. 너에게 가르쳤던 많은 일들을 말이야. 밥을 먹는 법부터 옷을 입는 법과 머ㅣ를 빗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딸아!
엄마가 점점 나이 먹어가는 것 같은 그날이 오거든. 인내심을 가져주길 부탁하고 싶구나. 엄마가 종종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까먹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 기억할 시간을 주려무나. 만약 엄마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거나 무시하지 말았으면 해. 이 엄마에겐 너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단 걸 진심으로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늙어서 이 지친 다리가 예전만큼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날에는 너의 손을 내밀어 주렴. 너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엄마곁에 머물러 주면 된단다.

엄마가 이 한생을 마무리 하는 시간들을 사랑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너가 나에게 선물한 그 시간과 기쁨을 엄만 소중히 간직학 고마워할거야.
엄마가 언제나 그랬던 거처럼 환한 미소와 큰 사랑으로 이 말을 해주고 싶구나.

사랑한다. 우리 딸아!!~*

오늘이 있어 행복한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1B 김순애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겨울이 눈앞에 왔구나.
날씨는 추워질지라도 든든한 딸이 있어, 엄마는 오늘도 너무 행복하구나.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안평리, 20호가량 되는 조그마한 시골마을. 뒷산 아래는 아주 큰 못이 있고, 앞으로는 비포장도로에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앞을 가렸고 그 앞으로는 맑디맑은 냇물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시골마을에서 섣달 동짓날 너는 까만 털옷을 가볍게 입고 이 지구별에 5억분의 1로 태어났단다. 아들이 아님에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때도 넌 나의 운명이고 엄마를 살아있게 해준 존재였단다.
그러나, 어느 봄날 먼 산에 아지랑이 아물아물 피어오르고 담 밑에는 포도나무 새순이 뾰족이 돋아오던 어느 날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단다. 세상은 오통 암흙 속, 아무것도 보이질 않더구나... 때 아닌 국화향기 속에서 슬픈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너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겨 마냥 즐겁게 뛰고 있었단다.

야속한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고 그래도 딸은 무럭무럭 잘도 자라주었지. 각박한 세월 속에서 어느 날,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소주를 바가지에 부어 들이켜고 반쯤 죽어 있을 때, 밤새도록 엄마 머리맡에 앉아서 토하기만 하는 엄마를 지켜보며 걱정하던 딸, 마음고생 많이 시켰지.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은 그래도 너무도 예쁘게 자라 주었단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똥머리 한 너를 보고 예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순애 언니 딸 예쁘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예뻤단다. 그런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고등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주 고급 속옷과 개량 한복을 사주더니,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지. 그리고, 엄마 노후보장 해놓고 시집가겠다고 결심하더니만, 오히려 일찍 결혼해서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던 딸...

지금은 어느 새 삼남매를 잘 키워서 학부모가 되고 예뻤던 딸의 얼굴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어린 것들은 하나같이 아토피에, 호흡기 질환에, 혈소판증후군에 너무도 힘들었던 딸, 시골 이곳저곳으로 이사 다니면서도 결국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낸 우리 딸, 정말 장하고 자랑스럽구나.

손주들을 벌써 초, 중 고등학생으로 잘 키워서 공부시키기 바쁜 딸, 지금은 자리 잡고 잘 사는 모습이 너무 고맙구나. 가끔 반찬 좀 해달라고 하면 엄마는 무엇보다 즐겁다 못해 행복하단다.
그리고,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배움과 지식에 목말라서 엄마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거금을 보내오면서 대학애 가라고 하던 우리 딸,
이렇게 공부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사랑하는 우리 딸, 더 욕심내지 말고 이대로만 잘 살자구나.
장하고 훌륭한 우리 딸.
시부모 잘 봉양하고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면 행복은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거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어 가길 바란다.
새벽은 새벽에 눈을 뜨는 자만이 볼 수 있다고 하지.
새벽에 눈 뜬 자만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자.

누구보다 장하고 착한 우리 딸,
미안하고, 고맙고, 늘 사랑한단다. 우리 딸 사랑해!!~**

2021. 12. 5 오늘이 있어 행복한 엄마가

아버지의 장점은 본받고 단점은 버리거라

1A 백승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주제인데, 편지 형식이 아닌 수필로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두 딸을 가진 딸딸이 아빠입니다. 제가 딸을 얻었을 때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시기였습니다. 딸을 출산한 산모는 집안 어른들께 별로 환영받지 못했고, 집안 내 분위기도 섭섭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집안의 대, 소사 행사시 어른들께선 저를 위한 덕담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들하나 안놓나? 아들이 있어야지!' 하면서 채근하셨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집사람이었고 두 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가지고 살았으면, 큰 딸이 첫아이 출산해서 하늘 말이 '아버지, 아들 낳지 못해서 미안해요...'하면서 친정 아버지인 저를 보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22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이고 우매한 사고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의 시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두 딸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더구나, 태어난 딸들을 아주 강하게 남자같이 키운다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라고 일으켜 세워 주지 않았고, 사람이 많이 운집한 동대구역에 홀로 두고 뒤에 숨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지난날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두 딸들아, 내가 왜 그랬을까? 진정 너희들이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질곡에 빠지더라도 강한 의지력으로 헤쳐나가는 집념을 너희들의 가슴속에 묻어두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단다.
그래서 결과는,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으냐!
너희가 행복해서 아버지도 행복하다.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장점은 본 받고 단점은 버려라!'

참고로, 저의 두 딸도 모두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낳아서 잘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 딸딸이 아빠가 딸, 딸딸 손녀까지 얻어서 여성상위 시대에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상위 시대 파이팅!! 딸들아,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의 삶을 응원한다.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

1B 장선휘

안녕하세요, 저는 편지 형식으로 아들에게 당부하는 제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우에게!,
아들,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다시 살게 된 한국생활 잘 적응하려고 노력중이란다.
먼저, 한국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엄마는 대학교 입학이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단다.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대세라고 하네.
그래서,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사회 복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단다.

뒤 든게 왠 공부냐고?^ ^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사회에서 나도 멋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비행기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면 우리 아들 보러 갈께!
그리고, 갑자기 왠 편지냐고? 응~ 학교 수업 시간에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주제로 글쓰고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어. 그 참에 너에게 편지를 써 본단다~*

아들, 갑자기 편지를 쓰려고 하니, 지난 날들이 영화처럼 스치는구나.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고, 술 한잔씩 하고, 영화도 보고, 클럽도 같이 가고 너무 재미있었지.
방학과 휴일에... 중국 곳곳을 여행도 다녔지.
이 편지를 써 내려갈수록 너 가 더 많이 보고 싶구나.
가깝고도 먼 중국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갈수가 없네.
곧, 이사도 해야 하고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도와 줄 수가 없어 안타깝구나.
하지만, 엄마도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 할께!

아들,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
늘 너의 삶을 응원하면서... 한국에서 엄마가~*

너는 엄마처럼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1A 강옥화

우리 딸 둘째에게!
엄마, 엄마, 엄마! 늘 기본으로 연속 세 번은 엄마를 불렀던 우리 딸!
그러나, 언젠가부터 말수가 줄어든 너를 보면서 살짝 섭섭함에 옛날이 그리워질 때도 있단다. 대신에 너의 보물들 세연, 서연이가 할머니를 연속 세 번씩 부를 때면 '어쩜, 지 엄마랑 꼭 닮았네' 싶단다.
엄마는 늦은 나이에 꿈을 펼치겠다고 손녀 보물들을 떼어놓고 네가 준 용기로 대학생 할머니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잎이 다 떨어져 나간 가로수를 보면서 울컥할 때가 있단다. '저것이 우리 삶인가. 내가 빈둥지증후군일까? '싶단다. 한 겨울이 지나면 나무는 새싹이 돋겠지만, 너희들은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을테니까 말이다.
그간 손주들을 보면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행복은 화살처럼 지나고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힘도 들었지만, 사위의 직장이 세종이다 보니 나로서는 말릴 수도 없었던 노릇이었단다. 그 동안 주말 부부로 오고 가던 사위도 고생 많았지만. 너는 이제 신이 나서 청주에다 집을 장만하였으니 '잘된 일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달랠 길이 없어, 혼자서 내 마음을 가지고 해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단다. 한번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코로나 19가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또한 어려운 일... 유난히 사계절 중 가을을 가장 힘들어하는 엄마인지라 전함을 달랠 수가 없던 차에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셔서, 엄마 마음에 있는 말들을 두서없이 쓰고 있단다.

민경아, 지나고 보니 엄마로서 자격미달이어서 미안하다.
네가 중2때 힘들어하는 때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해를 다 못했어. 그 상황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제야 그간 '우리 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엄마였구나'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단다. 그놈의 돈이 뭣이라고, 일한다고, 사춘기 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

너는 엄마처럼 일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우리 보물들인, 너희 아이들을 힘들지 않게 세밀하게 챙겨 주었으면 한다.
물론 우리 딸은 엄마보다 잘하리라 믿는단다.
사랑한다, 내 딸!!.....2021년 마지막 달에 엄마가

아들아, 멋지게 잘 자라서 고맙구나

1B 이정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에 엄마로써 몇 가지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본다.

아들아!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아들아!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라. 그 중에 하나, 둘은 말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예쁜 아가씨로 자랄 것이다.

아들아!
목욕할 때는 다리 사이와 겨드랑이를 특히 깨끗이 씻어라. 그래야, 치질과 냄새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들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간단한 메모로 칭찬을 전해라. 주방장은 자기 직업을 행복해 할 것이고, 너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세될 것이다.

아들아!
좋은 글을 만나거든 반드시 추천을 하거라. 너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진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친구가 너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아내가 즐거워 할 것이다.

아들아!
가까운 친구라도 남을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이 바로 너 흉을 보고 다닌 사람이다.

아들아, 나이 들어가는 것도 청춘만큼이나 재미있단다. 그러니, 겁먹지 말거

라, 사실, 청춘은 청춘 그 자체 빼고 별거 아니란다.

아들아,
네가 지금 하는 결정이 당장 행복한 것인지 앞으로도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해라.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을 막상 해보면 그게 더 편하단다.

아들아,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거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 하지 말거라. 너의 처자식이 다른 이에게 천대받는다.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해라.

아들아,
너는 항상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아내에게 사랑 받을 것이다.

아들아,
5년 이상 쓸 물건이라면 너의 경제력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절약하는 것이다.

아들아,
너의 자녀들과는 친구가 되거라.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으면 아버지를 택해라. 아이들의 친구는 너 말고도 많겠지만, 아버지는 너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들아,
네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면서, 네가 웃으며 자라는 모습만으로도 다 받았단다.

아들아! 호준아!
고맙다, 사랑한다.
멋지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맙다.

2021. 11. 28.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늘 감사하며 사랑해라

1A 전희란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바람처럼 구름처럼 한 순간에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구나. 너의 아빠를 만나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큰 애는 벌써 30대 후반, 작은 애도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네.

너희 둘 (창해, 해성) 낳고 키우면서 우울하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아름다운 추억처럼 엄마 가슴에 남아있단다.

이제는 두 아들 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이쁜 가정 꾸려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생각만 해도 엄마는 입가에 빙그레 미소가....

아들들아!
엄마 아빠는 20대 중반에 만나서 지금처럼 넉넉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보니,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그러다보니 어느 듯 60대 후반에 다다랐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좀 더 알차고 시행착오없이 살았을건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너희들은 인생 계획을 알차게 잘 세워서 꿈을 크게 가져서 더 넓은 세상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거라(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 19로 주춤하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어느 기업가의 말처럼 하고 싶은 거, 가 보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나래를 펴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이 세상에 한번 온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가끔씩은 소외된 이웃을 거들떠도 보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주었으면 고맙겠구나.
사랑한다, 나의 아들들아~* 엄마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에도 충실하길 바라며

1A 임영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찬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도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가 보다. 이렇게 올 한해도 저물어 가는가 보다. 어느 듯 엄마 나이가 60대 중반을 코앞에 두고 있고, 우리 아들과 딸도 30대 후반이구나. 하지만, 엄마는 너희들의 어릴 적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작고 어리기만 했던 너희가 벌써 이렇게나 성장해서 한 가정의 아빠로, 엄마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너무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 대견하고 그렇단다.

아들아, 딸아!
먼저 인생을 살아 본 엄마로서 몇 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고 싶구나.
너희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길 바란다.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려, 길가에 파는 붕어빵 한 봉지를 가족들과 오순도순 나누어 먹으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지. 반드시 크고 비싼데 있는 것은 아니거든.
또, 아빠 엄마로의 삶에 충실하며 너희들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란다. 엄마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생업전선에만 몰두하느라, 나 자신의 삶이 없었단다. 너희도 물론 일하랴 육아하랴 정신없는 나날이겠지만 그 와중에도 틈틈이 자기 계발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너희들 스스로를 지키며 살길 바란다. 또한, 남에게 베풀며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길 바란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만큼 너희에게도 돌아 올거라 엄마는 믿는단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써 삶에 충실하길 바란다. 엄마에게 이끌려 성당에 간 너희가 학창시절 신앙의 힘으로 더 밝고 멋지게 자랐다고 엄마는 믿는다. 너희도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더 신선한 믿음으로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길 바란다.
지금껏 별 탈 없이 멋있게 잘 자라준 우리 아들아 딸아!
엄마의 바람은 오직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뿐이란다.
그러니 건강 또 건강하고 많이 웃으면서 기쁘게 우리 살아가자꾸나.
사랑한다. 영원히...
건오성, 권혜정....2021. 12. 5 엄마가

엄마 딸들아, 너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1A 마정희

사랑이라는 말이 부족 할 만큼 소중한 내 딸들에게~~
먼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어느 순간 눈을 한번 감았다 떴더니 너희들은 대학을 가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더구나. 엄마도 너희들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지금 너희에게 닥치는 일들이 힘들고 고민이 되겠지만 그것은 훗날 너희가 이루어낼 좋은 결과물의 과정 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할 많은 시간, 그 시간은 짧지도 않지만 결코 길지도 않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시련도 있을 것이다. 그 시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일수도 있고 가족, 직장 등 여러 가지 일들과 너희가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딸들아~
살아가는 동안 아쉬움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단다. 왜냐하면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란다. 현명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고, 남에게 속지 않는 것은 지혜란다. 청춘을 만끽 할 권리가 있다면 늙음도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의무가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면, 굶주리고 헐 벗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한다.
사랑하는 딸들아~
삶에 있어서 만남과 헤어짐은 다반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또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단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이별이 아니고, 돌아 올 수 없는 인연의 끝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의 끝, 이별은 새로운 삶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과 같단다, 그러므로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란다. 이별도 만남도 사랑만큼이나 아름답게 할 줄 알아야 한단다. 이 세상에 사랑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것은 없단다. 이것은 모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에서 나오는 행동이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너희들 삶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2021. 11. 20일 사랑하는 내 딸들의 삶을 항상 응원하는 엄마가

이웃을 보면 따뜻한 말로 대하거라.

1A 성득순

저는 딸 둘,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첫딸은 옛날부터 살림 밑천이라 했지요. 정말 그런 말을 실감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딸은 제게 엄마이며 딸이고 친구이기도 하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상담하고 수다 떨고 또 가끔 해결도 해주거든요.
고맙다, 딸아...

둘째 ,아들아!
아빠 엄마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아들! 아빠 엄마에게 잘하는 지금처럼 형제간에도 잘하고, 먼 훗날 엄마 아빠가 옆에 없어도 우애있게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언제나 누나와 의논하고 특히, 막내 동생에게 지금처럼 잘 하길 바란다. 엄마, 아빠는 우리 큰 딸이나 아들은 근면 성실하고 든든하지만 한편으로, 해가 갈수록 내 몸에 힘이 없음을 느낄 때 정말 답답하고, 앞으로 너희들을 잘 도와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한단다. 하지만 너희들 모두 오뚝이처럼 잘 헤쳐 나갈 것으로 믿는단다.

우리 셋째 딸,
어려서부터 막내라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애교 많고 욕심 많고, 참 특이한 딸이지. 어려서 키가 작아서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은 150! 큰 키는 아니지만 작은 키도 아니잖니. 어렸을 때는 많이 걱정했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란다. 엄마가 아프다 하면 걱정하며 다가와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하고... 고맙다, 딸아!! 인생은 엄마가 선배지만 학교는 또, 우리 막내딸이 선배잖니! 우리 막내딸과는 대구공업대하고도 인연이잖아.
사랑하는 딸아, 항상 초심을 잊지 말고 용기 내어 살아라.

아들아, 딸들아. 부탁이 하나 더 있다.
너희보다 못한 이웃을 보면 얕잡아 보지 말고 따뜻한 말로 대하거라.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쌀밥을 생각해 봐라. 들에 벼가 익으면 고개부터 숙이지. 알맹이 없는 벼이삭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거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길 부탁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단다... 엄마가.

너의 새로운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1B 노지현

아들에게 쓰는 편지...
사랑하는 아들 시헌아! 오늘이 마침 너 스물세 번 째 생일날이구나.
23년 전 그 날이 불현 듯 떠오르네. 널 낳으려 가기 전날 밤 꾸었던 태몽도 생각이 나고... 역대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님을 앉혀 놓고 잘잘못을 호령하다 깼을 때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 갔었지. 자연분만으로 잘 낳아 길러보리라 맘먹고 16시간 동안 진통을 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로 낳았다. 처음 너를 품에 안아 보았을 때 난 '헉!'하고 숨이 막혀왔단다. 온몸이 빨간 피부에 쭈글쭈글하기만 한 얼굴, 갈색 빛 깻잎 머리를 하고 있던 너가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인건지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어쩜 이리도 못생겼누'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 했단다. 그나마 사내아이라 다행인지 불행인지, 만감이 교차하더구나. 그랬던 네가 너무 멋지게 잘 자라주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할 때 쯤, 학창 시절 내내 여친이 끊이질 않아서 내가 너무 잘 낳아 놓은 건 아닌지 걱정을 할 때도 있었단다.
시헌이 네가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하고 말렸던 것은 예전의 너의 태몽과 사주 때문이었다. 잘 키우면 못되어도 국무총리감이라는 점쟁이의 말에 부모의 욕심으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던 거지. 너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잘하고 좋아해서 사범 자격증도 일찍 땄으니,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 길을 계속 갔더라면 지금쯤 멋진 선수나 체육관 관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그러다 잘 되면 국무총리는 아니더라도 문체부장관이라도 한자리 할지...하며 꿈도 꾸어 보았다. 하지만, 그 때는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너가 너무 운동에만 몰두하고 때론 격하게 운동해서 여기저기 다쳐오는 걸 지켜보며, 하나 뿐인 아들이 혹시 잘못될까 겁이 많이 났거든. 엄마도 아빠도 처음 부모라 그게 최선인 줄 알았었구나. 지금은 조금 후회도 되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구나. 미안했다, 아들아!

하지만 이제는 네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지지하고 응원해줄테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너 건강을 위해 부탁하는 건데 다이어트는 꼭 좀 하렴.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뚱보가 되어가는 널 보니, 운동을 계속 시켰으면 여전히 날렵하고 멋있을텐데..하고 후회가 살짝 되기도 한단다. 항상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밝은 너의 스물세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녁에는 꼭 가족끼리 외식 좀 하자꾸나.
사랑한다. 아들!! 2021. 10. 27. 널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기초와 근본이 단단하고 바른 사람들과 행복하기를

1B 김순애

우리 딸 현영이에게...
지난 주말 김장하려고 엄마 집으로 내려왔었지...우리 딸이 그간 삼남매를 어엿하게 키운 딸의 얼굴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단다.
각박한 세사에서 열심히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인 거 잘 안단다. 엄마가 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너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서 미안하다, 딸아!!
상냥하지도 애교도 없이 묵직하기만 한 우리 딸이지만 참으로 든든하구나. 행복하게 사는 너희 가족을 보면 엄마도 더욱 행복해 진단다.

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몇 가지 바라는 마음을 전해 본단다.
딸아, 엄마는 내 딸이 기초와 근본이 단단하고 바른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또,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 생각한다. 산다는 것이 만난다는 것이니까.
너와 나의 만남, 너의 남편과 자녀 그리고 친구들 등등...
욕심과 욕망이 없는 '긍정과 신뢰의 힘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슬퍼하는 이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 근면하고 진실성있고 언제나 일하면서 운동하는 습간 또, 때대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란다.
엄마는 대학 공부하면서 공자, 맹자, 노자를 생각해 본단다.
남이 나를 몰라줘도 개의치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길 바란다. 인자하고 검소하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늘 배우고 공부하며 살면 좋겠다.

딸아, 행복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엄마는 믿는다.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좋은 말, 좋은 옷, 좋은 것 먹으며 살다보면 그 자리가 꽃자리가 될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행복은 날마다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까.

교수님의 숙제라는 핑계로 우리 딸에게 마음을 전해 본단다.
엄마는 늘 너를 응원하고 사랑한단다.
우리 딸, 사랑해....엄마가...

늘 당당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져라! 우리 딸!!

1B 박경희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하죠, 이 가을 단풍잎처럼 아름답게 잘 익어가고 있는 학우여분 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주제인데, 저는 우리 딸에게 편지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띠리, 띠리~ 전화벨 소리로 맞이하는 아침!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겨운 목소리 " 엄마, 오늘도 쫌 조~은 하루 되어래이~"라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날마다 엄마는 하루의 문을 연단다. 딸이지만 항상 언니 같고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수연아,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우리 수연이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2.1Kg의 아주 작은 엄지공주처럼 태어났지! 아빠 엄마는 너무 예뻤지만 너무 조그마한 우리 수연이는 만지기도 안쓰러웠지. 병원에서 한 달 키워 나왔는데, 철없던 엄마는 수연이가 빨리 자라라고 곰국에 분유 타 먹이고, 이유식 할 때는 매일 소고기에 밥 비벼 먹이고 하면서 너무 과잉되게 먹이다보니 어느 새 뚱보 세포들이 커져 버린 건지, 오늘도 수연이는 매일 다이어트와 전쟁 치르게 되었네. 미안해~~
그때 어른들은 "괜찮데이, 크면 다 키로 간다' 고 하셨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통통했던 수연이는 가끔 뚱보라고 놀림 받았던 탓에 자존감이 점점 떨어졌는지, 성격도 점점 소심한 아이가 되어갔었지.
그래서 엄마는 특단의 조치로 집에 오면 항상 역할 놀이를 하기 시작했었다. 기억나니? 너는 엄마 역할, 엄마는 딸 역할! 너는 선생님, 엄마는 배우는 학생! 너는 언니 역할, 엄마는 동생 역할 등... 이런 놀이를 하면서 수연이로 하여금 막대기 하나 들고 " 얘야, 얘야~ " 하며 흉내를 내며 너의 마음을 표출하도록 했단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맛있는 것 해 먹이고는 항상 수연이가 대장이 되도록 시켰고, 책과 글쓰기 공부에 집중하게 하면서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상을 많이 받게 하여, 여러 친구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께서 "수연이 잘~한다! 역시 글짓기 하면 양수연이 최고다, 잘~했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도록 하였구나, 그것이 엄마 나름대로는 참 잘 한 일인 것 같아.
너무 낮아져 있는 수연이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단다. 그때, 엄마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용기가 있는 수연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한편, 그런 것들이 수

연이를 힘들게는 하지 않았나 걱정도 된단다. 그 후 제 2차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살도 빠지고 너무나 밝고 예쁘게 잘 자라준 수연아, 고맙다!!
넌 언제나 방긋 잘 웃는 밝은 미소와 표정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

지금은 어엿한 숙녀가 되어 아이를 가르치는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되어있는 딸이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단다. 코로나 땜에 실내 운동은 못가도 매일 2시간씩 걷고 있는 수연이가 통통했던 트라우마 때문이지...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걷고, 퇴근이 늦어도 컴컴한 길의 불빛을 따라 걷고 또 걸으며 이제 습관화 되어 그리 매일 걷는 수연이가 대단하다 싶기는 한데, 너무 그렇게 다이어트에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우리 딸, 수연아!! 지금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어! 너무 착하게 또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수연아! 때로는 'Yes"보다는 'No"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단다. 'No"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 찜찜하지도 하고 곤란할 때도 있단다. 하지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단다. 엄마도 이 'No" 연습이 잘 안되어 있지만 살아보니까 나에게 잘 맞지 않은 요청을 말할 때는 'No"라고 말하는 것이 들어주면 안되는 부탁을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우리 딸 수연아!
앞으로 걸어가는 먼 미래의 인생은 긴 여행같은 거란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인생길이기에 완벽한 여행은 될 수가 없어! 불완전하여 실수도 하고 길을 잘 못 찾아 헤매기도 하는 것이니, 인생이란 여행은 즐거운 길이거나 즐겁지 않은 여행길인지만 있을 뿐이야. 가다가 힘들면 의자에 앉아 쉬어 갈 수도 있고, 별다른 일이 없어도 휘청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바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균형을 교정해주는 삶이 아닌가 하고 엄마는 생각한단다. 수연이가 앞으로 좋은 사람, 좋아하는 것들과 좋은 추억들로 많이 채워 나가면서, 수연이의 인생이란 긴 여행이 끝날 즈음 되돌아 볼 때 '참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엄마는 소망한단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한 통의 전화!
"애야, 오늘도 참 수고했데이! 춥다, 옷 좀 따습게 입고 다니레이~"
역할 놀이 덕분인지 늘 언니처럼, 엄마 같은 우리 딸 수연아.
엄마는 오늘도 수연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막을 내린단다.
내 딸 수연아, 늘 고맙고 사랑한다....

멋진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보는 날들이 되길 바라며

1A 임정숙

살아하는 딸, 아들에게
언제나 밝고 든든한 모습은 희망과 믿음이 넘치는구나.

요즘 일하느라 수고가 많아,
자신이 세워 둔 목표르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보람되고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좋은 말과 바른 자세로
늘 그렇게 한결같이 생활하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라

자신들을 위해 투자하는 거지
누굴 위해 한다고 생각말고
멋진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보는 날들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엄마의 딸과 아들로 태어나 준다면
그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마음껏 사랑하고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
못해 준 것이 많은 것 같아 너무 아쉬워!!

하지만,
앞으로는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자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 딸, 아들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님께...

1B 박부건

안녕하세요, 어머니!
군대에서 보낸 편지 후로 처음 편지를 씁니다.
문자나 카톡이 아닌 이렇게 편지를 쓰니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앞으로 자주 쓸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자리 남부럽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저랑 남동생을 이렇게 잘 키워 주신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항상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인지라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의 가족상담 과목에서 표현을 하라고 배우는데,
앞으로는 진짜 잘 표현하고 좀 더 부드럽게 행동하도록 할께요.

우리 어머니!!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이 아들이 성공해서 효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큰 아들 박부건 드림

할머니, 사랑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 드릴께요

1B 김나연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연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부모님께 쓰는 편지'이지만,
저는 할머니께 제 마음의 편지를 전해 드리려 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의 큰 손녀 나연이예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라, 엄마가 일 가시면 늘 저는
할머니께 가서 살고는 하다 보니,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쭉 자랐을 때,
엄마가 저에게 못해준 걸 할머니가 다 해 주셔서,
할머니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얼른 제가 취업해서,
할머니가 제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용돈도 드리고,
그 때의 2배만큼 꼭 보답할께요.

제 밑에 동생이 3명이나 더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동생들만 이뻐 해서 어떨 때는 서운함도 쌓였기에,
저는 할머니께만 더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로부터는 사랑 받은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제가 꼭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좋은 거 사 드릴께요.

할머니, 사랑해요....나연이가

제게는 항상 멋진, 아버지 길 따라갑니다.

1B 권용건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께 편지를 쓰려니 완전 어색합니다.
저에 군대 훈련소 이후로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늘 밑에서 살아온 지 벌써
2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니 인생은 니 것이니 니가 책임지고 살아라'는 아버지 말씀
늘 들으며 살았고, 저는 지금 그대로 실천 중입니다. \

어릴 때 탈선을 하여 음주, 흡연을 하였고
사고를 쳐서 수없이 아버지를 학교에 오게 하였으며,
자존심 강하신 아버지가 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밖는 일만 저지를 저였기에
아버지께 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항상 친구처럼 장난쳐도 잘 받아 주시고
술 한잔 같이 하면 좋아하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 같이 한잔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같이 한잔 하면서 얘기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당신께서 걸어 온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샹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용건 올림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게 제일 우선입니다

1B 조민지

안녕하세요, 조민지입니다.
저는 오늘 어릴 때 저를 키워주신 조부모님께 쓴 편지를 발표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민지예요. 제가 늘 할머니 할아버지께 '나는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는 언제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은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6살까지 이쁘게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돈 많이 벌어서 두 분께 효도하는 것이 제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것 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제게는 우선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늘 수민이랑 말도 잘 안하고 해서 속상하셨죠...
사실 저는 수민이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민이가 할머니 댁을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수민이만 이뻐하는 거 같아서 질투가 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뺏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연이도 너무 밉고 싫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등감으로 변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싶은 데, 마음의 문 열기가 많이 힘들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이뻐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깐 저도 최대한 수민이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해 볼께요. 자를 꼭 믿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 남자 친구 생겼어요. 남자친구랑 3월 27일부터 사귀었어요. 물론 제가 먼저 좋아한 건 맞지만, 고백은 제가 먼저 안했어요. 남자친구가 3월 27일에 톡으로 '혹시, 나 좋아하니?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거가? '라고 남자 친구가 고백했어요. 서로 짝사랑하다가 이루어져서 지금도 이쁜 사랑 하고 있어용. 울 할머니 할아버지 저 남자친구 있다고 질투해두 제 맘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젤 우선이거 알죠?

할머니, 할아버지ㅂㅂ
사랑합니다.
2012. 12. 9 사랑하는 민지 올림

대구신문 기고의 글

(김한식 교수)

대구공업대학교
DAEGU TECHNICAL UNIVERSITY

21세기 장수의 비결—우(友)테크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장수의 시대라고 한다. 장수의 시대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등등. 마찬가지로 단명(短命)하는 사람과 장수(長壽)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미국인 7,000명을 대상으로 9년간의 추적 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흡연이나 음주,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능력, 인간관계 등에 이르기 까지 모두 조사한 끝에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다. 담배나 술도 인간의 수명과 무관 하지는 않지만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상황 등 그 어느 것도 수명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고 한다.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친구의 수'였다고 한다. 즉,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좋은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며, 더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건강 수명을 100세까지 이어줄 좋은 친구란 과연 어떠한 친구를 말하는 것일까?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상담하고 싶어지는 사람,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 쓰러져 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일으켜 주는 사람, 슬플 때 기대어서 울 수 있는 다정한 어깨를 가진 사람,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라도 기꺼이 상대와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최근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인터넷의 발달로 단체 카톡이나 문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을 통하여 글을 쓰거나 자료를 올릴 때 상대가 댓글을 달지 않거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친구관계가 어색해져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 요즘은 각자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의 카톡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쁜 사람들은 일일이 댓글을 달아줄 시간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사이란 친구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기꺼이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서로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그저 옆에 있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최근 TV나 언론에서도 독거노인 100만명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한다. 100

세 시대에 노년의 삶을 외롭고 힘들게 보내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귈 필요가 있다. 그래서 21세기 장수의 시대를 우(友)테크(tech)의 시대라고도 한다. 좋은 친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요즘 점점 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100세 시대는 과학이 가져다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공부 잘 하는 법, 돈 버는 법에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친구 사귀는 법은 등한시했다. '우(友)테크'는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이며,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내 주변의 친구들을 편하게 대해주자.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신의 오래된 경험이 습관이 되고 자기위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와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고 친구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필자가 장군스피치 제자들에게 "이런들 어떠하랴 저런들 어떠하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한다. 친구들 중에는 이런 성격의 사람도 있고 저런 성격의 사람도 있으니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용광로처럼 모두 이해하고 편하게 베풀어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친구에게 연락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먼저 연락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주기를 기다린다. 우(友)테크도 재테크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우연히 마주친 친구와 '언제 차 한잔 하자'는 말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식사나 커피 약속을 잡자. 아니면 그 다음 날 전화나 카톡, 문자로 내가 먼저 연락하자.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유지하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가능하면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어보자. 동성끼리라도 상대에게 주는 매력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오래 간다. 육체적 아름다움만 매력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는 좋은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듣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여야 상대에게 매력 있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장수의 시대, 우(友)테크의 시대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먼저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어서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었을 기꺼이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세 종류의 사람은 쉽게 분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 말고도 누군가가 나서겠지 생각하면서 본인은 전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무언가 나의 의견을 말해야지 하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은 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늘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낸 사람들 대부분은, 소위 교내외적인 민주화 바람에 휩쓸려 한번 쯤 광장으로 나가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불의한 힘에 항거하여 자신의 한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겠다는 각오로 행동했던 젊은 혈기는, 역사에 대한 어떤 평가와 결과와는 다르게 한 개인의 삶의 굳건한 내공으로 쌓였을 것입니다.

필자도 그 당시 고시공부를 위하여 도서관과 집을 오가던 중, 이러한 사회분위기 소식을 접하고 과감하게 책을 던져버린 기억이 납니다. 내 한 몸 잘 살자고 숨어서 공부를 하느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책을 버리고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당시, 필자가 형님에게 공부를 접고 학생운동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니 형님께서는 "네가 꼭 학생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뒤에서 따라다니지 말고 선두에 서서 과감하게 리더로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용기가 없어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아도 젊은 혈기의 제 행동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듯 합니다. 필자는 장군스피치 교육을 통해서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높이 드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손을 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몸 안에서 내공이 쌓이게 되고 점차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어 무었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게 되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나서 결국 자신들

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스승님! 저 해냈습니다! 저도 이루어 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도 자신감과 용기의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어린 제자들 중에는 성격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 필자의 연구실 앞에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필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수업시간 외에 필자의 연구실 문을 과감하게 두드리는 학생들에게는 자신감과 용기의 성적 가점 1점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늘 손을 들고 당당하게 질문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글을 큰 소리로 읽는 학생들에게는 졸업할 때 장군상을 주겠다고도 합니다.

필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나는 낭비한 시간, 잃어버린 기회를 아까워하며 절망의 늪에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나의 미래를 양손으로 움켜쥐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무언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늘 행동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활발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고 늘 미소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결정을 잘 못 내릴 것을 두려워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체질은 강인하고 나의 앞길은 분명하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과감하다. 나는 용감하다.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그만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나는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리더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해 봅니다.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독자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혹시 믿는다면 그 운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운명에 굴복하시나요? 아니면 극복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무었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모든 것이 운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자는 장군스피치리더쉽 훈련수업을 진행하면서 늘 일본의 3대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본의 장군 중에 일본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장군인 오다 노부나가라는 장군은 가장 용맹하고 강력한 장군으로서 새장의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새의 목을 쳐버린다고 해서 용장(勇將)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장군으로 실질적으로 일본 천하 통일을 완성한 장군인데 새장의 새가 울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가 울게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고 해서 지장(智將)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장군은 도꾸가와 이에야스라는 장군으로 새장의 새가 울지 않으면 새가 울때까지 기다려주고 자신의 모든 덕을 베풀어 새장의 새가 스스로 울도록 한다고 해서 덕장(德將)이라고 합니다. 이 세명의 장군 중에 어떤 장군이 가장 멋지고 바람직한 장군일까요?

필자는 일본의 3대 장군의 시대를 넘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4대 장군의 시대로 도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네 번째 장군은 용장과 지장, 덕장을 넘어 운장(運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운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운장은 늘 준비하고 준비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을 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늘 운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철저한 자신의 준비없이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은 늘 자신의 꿈을 꾸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멀리 보고 늘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운이 찾아오면 그 운을 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늘 운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을 잡을 준비가 되어있을 때 비로소 그 운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로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필자가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필자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학교수라는 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운을 잡기위해 먼저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기회가 왔을 때 그 운

을 잡았을 뿐입니다. 21세기의 이 세상은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세상 즉 운장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운장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철저한 자기관리, 강력한 자기강화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필자의 장군스피치 제자 중에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있는데, 그 분은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50대에 새로운 강사의 꿈을 꾸고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군스피치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운장이 되어 전국을 누비면서 강의를 하는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한걸음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었을 시작할 때 오랫동안 망설입니다. 바람의 풍향을 살피면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독자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 비난, 불평, 이 모든 것이 바람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바람의 풍향 따위는 강인한 장군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날에 대한 흥분과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생각하셔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울때마다 오늘하루 여러분 앞에 놓인 산 같은 장애를 모두 다 치웠다고 생각하시고 행복한 생각 속에서 잠을 청하셔요. 그리고 자신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셔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꿈이다. 나는 그 꿈을 꼭 잡고 놓치지 않겠다. 만약 내가 그걸 놓친다면 내 인생은 끝장날 것이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나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라고.

생각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변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운장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면 여러분 모두 운장입니다.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두려울 땐 더 강하게 행동하라

오래전 미국 어느 신문 스포츠 란에 큼지막한 세 단어의 활자가 실렸다. “난 세계 최고다!”라고. 이것은 무명의 젊은 권투선수 캐시우스 클레이가 소니 리스톤과의 큰 시합을 앞두고 신문기자에게 한 말이었다. 그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클레이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신문기자는 그의 건방진 태도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모두들 클레이가 그 경기에서 이길 것이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클레이는 시합도 하기 전에 "난 이 시합에서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죠."라며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기에, 인터뷰를 마친 신문기자는 갑자기 나타난 무명의 권투선수가 건방지게 던진 그 말을 한껏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문에 큼직하게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 열린 시합은 클레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깜짝 놀란 언론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를 비웃는 기사를 쓴 신문기자는 오히려 특종을 잡는 행운을 얻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이에게 매료되었다. 클레이는 세계 순회 경기를 돌면서도 늘 시합 전에 "나는 세계 최고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또한, 자신이 상대방을 몇 회에 쓰러뜨릴 것인지도 자신 있게 말하곤 했다. 한 두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의 예언은 항상 적중했다.

훗날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꾼 이 선수는 정말 자신이 시합에서 이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하마드 알리 역시 시합을 앞두고 무척 두렵지 않았을까? 그러나, 앞선 자기 확신과 자기최면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한 강력한 내면의 힘이 결국 우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알리는 결코 "난 최고의 선수다"라든가 "난 최고에 가까운 선수다"라고 말하기보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난 세계 최고다!"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시합전의 두려움을 강력한 행동으로 대신하여 결국 세계 최고라는 결과를 얻어낸 대표적 인물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장군스피치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높은 단상위에서 두 다리를 벌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 낸다! 난 이 분야에서 최고다!”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 높여 외치라고 주문한다. 자신감과 용기는 자기 확신과 자기극복을 통해 생겨난다고 말한다. 높은 단상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만 있다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나 강인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한 장군은 자신의 마음속에 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먼저 단상에 올라가서는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때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만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중들 앞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그 사람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청중을 대할 때 감동이 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당당하고, 용기 있고, 열정적인 사람을 존경하지만, 나약하고, 수줍음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확인해 보자. 무엇을 하든 두려움을 오히려 강력한 행동으로 이겨내 보자. 약자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더욱 약화시키고, 소심한 성격은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주저하게 만든다. 결국, 이것은 스스로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겁쟁이는 일생동안 수천 번 죽고 또 죽지만 장군들은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으며 늘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다. 오늘 다시 태어난다. 더욱더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라고 외치며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또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장군인가?

필자의 장군스피치 제자 중에도 자신의 환경 때문에 늘 소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낸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17세였지만 아버지는 60대 중반으로,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늘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놀려댔기 때문에 성격이 소심해져 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장군스피치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날 3분 스피치 발표 수업 중에 갑자기 높은 단상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한번 올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하고 나서 당당하게 스피치를 이어나간 적이 있다. 이 학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동안 늘 소심하고 나약한 성격 때문에 컴퓨터와 게임으로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던 학생이, 점점 당당하고 용감해지더니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총 학생회 부회장을 거쳐서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회장이 되었다.

독자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외쳐 보십시오! 난 세계에서 최고라고!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어느 노인의 유서

다음은, 1933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주한미국대사로 근무한 후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한 후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된, 제임스레이니(James T. Laney : 1927~)의 유명한 이야기다. 레이니교수는 건강을 위해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어느 날 집 앞 벤치에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잠시 말벗이 되어주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마당의 잔디를 깎아 주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여 동안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이 보이지 않아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전날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 바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 깜짝 놀라고 있던 중 한 사람이 다가와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며 봉투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는 유서의 내용을 보고 더욱 놀랐는데, “레이니,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 준 친구였소.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 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나는 당신에게 현금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남깁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너무나 큰 액수의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한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저 지나가던 사람에게 그 큰돈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레이니교수는 그 후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의 학생과 학교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내어 놓았는데,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들어 왔지만 그 부에 도취되어 본연의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결국,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고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이다.

사실, 위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라 허구의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떠나 홀로 계신 외로운 노인에게 스스로 다가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마당의 잔디도 깎아주고 이야기 친구가 되어주었다는 레이니 교수의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바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외로운 노인들을 도와주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또 받은 그 큰돈을

모두 세상에 기부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대학에서 장군스피치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조건 없는 봉사의 중요성과 함께 '유서 작성' 해보기도 늘 강조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또한 이득을 따지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먼저 봉사하고 베풀어라' 고 강조한다. 또, '돌아앉은 부처도 내가 진심으로 베풀면 다시 돌아앉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 말은 아무리 상대에게 화가 나있는 사람이라도 그 상대가 진심으로 자기에게 베풂을 보여주면 그동안 쌓여있던 나쁜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린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유서를 한 번 작성해보라고 말한다. 유서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와 함께 내 인생의 정리라는 의미가 있다. 비록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자신의 유서를 작성해본다면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게 되고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증오나 원한 같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하직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죽음의 순간에는 그 동안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두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가끔씩 절친한 친구에게 농담 섞인 말투로 "네가 먼저 죽으면 나는 너에게 부조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절친한 친구를 외롭게 혼자 두고 먼저 가버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부조 대신 네 무덤 앞에 큰 비석을 세워 줄 것이고 그 비석의 비문은 내가 직접 쓰겠다. '살아생전 참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였으며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늘 베풂의 삶을 살았던 사랑하는 내 친구 여기 잠들다' 라고 말이야" 라고 말하곤 한다.

독자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부도, 명예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름 석자만 남겨놓고 갑니다. 먼 훗날 후손들이 자신의 비석 앞을 지나갈 때 "과연 이 사람은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구나! 자기 자신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늘 베풂의 삶을 실천하였던 큰 그릇, 큰 나무의 삶을 살았던 분이구나!"라고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비록, 죽는 순간까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진정한 삶의 행동 철학에 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로 중 '장년층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배사 중에 '9988 123' 이라는 것이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픈 후, 3일 만에 죽으면 참으로 행복하다'는 의미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 건배사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9988 121'로 바뀌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틀 아픈 후, 다시 하루 만에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100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모두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내용이 아닐까 한다. 많은 학자들도 조만간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자 또한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100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TV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면 전 국민이 온통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좋은 공기와 좋은 물,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세 가지 외에 좋은 마음을 하나 더 추천하고 싶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지만 우리의 신체도 마음먹기에 따라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었는데 가끔씩 힘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면 무심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신의 나이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50대 60대 만학도 제자들에게 장군스피치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무엘 올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자주 읽어준다. 그리고 제자들이 강인한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나이에서 10을 빼라고 얘기한다. 현재 본인의 실제 나이가 60이라면 자기 나이에서 10을 빼서 내 나이는 50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생각으로만 50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행동도 50처럼 당당하게 걷고, 큰소리로 당당하게 말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과도 자주 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자주 베풀면서 함께 어울리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또한, 지금의 나이를 향후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한다. 지금 본인의 나이가 50이라면 10년 후에도 50의 나이에 걸맞게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면서 늘 변함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10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갑자기 깜박이도 없이 내 차 앞을 끼워들어도 웃으면서 보내주어야 하고 누가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나에게 달려오면 비록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해버리라고 애기한다. 그래서 10년 동안 늘 변함없는 제자의 모습을 유지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필자는 장군스피치교육에서 크게 3가지의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철저한 자기관리, 강력한 자기강화를 위해 매주 1회씩 훈련 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루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원숙한 철학은 70세 이후에 이루어졌고, 철인 플라톤은 50세까지 학생이었으며,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완성한 것은 90세 때였다고 한다.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80세에 작곡했고, '아베마리아'를 85세에 작곡했으며, 대**문호** 괴테는 대작 '파우스트'를 60세에 시작하여 82세에 마쳤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현대화단에 돌풍을 일으킨 리버맨은 사업에서 은퇴하고 장기나 두려던 차 어떤 아가씨의 충고를 받아들여 81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101세에 스물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는데 평론가들은 그를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 이라고 극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민족 해방의 일선에 섰고, 위대한 학자 아끼바는 50살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입니까?

필자는 제자들에게 공부하는 동안은 결코 늙지 않으며 두뇌가 살아 있는 한 치매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건강한 100세의 삶,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세 종류의 사람은 쉽게 분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 말고도 누군가가 나서겠지 생각하면서 본인은 전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무언가 나의 의견을 말해야지 하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은 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늘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낸 사람들 대부분은, 소위 교내외적인 민주화 바람에 휩쓸려 한번 쯤 광장으로 나가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불의한 힘에 항거하여 자신의 한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겠다는 각오로 행동했던 젊은 혈기는, 역사에 대한 어떤 평가와 결과와는 다르게 한 개인의 삶의 굳건한 내공으로 쌓였을 것입니다. 필자도 그 당시 고시공부를 위하여 도서관과 집을 오가던 중,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소식을 접하고 과감하게 책을 던져버린 기억이 납니다. 내 한 몸 잘 살자고 숨어서 공부를 하느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책을 버리고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당시, 필자가 형님에게 공부를 접고 학생운동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니 형님께서는 "네가 꼭 학생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뒤에서 따라다니지 말고 선두에 서서 과감하게 리더로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용기가 없어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아도 젊은 혈기의 제 행동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듯 합니다. 필자는 장군스피치 교육을 통해서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높이 드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손을 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몸 안에서 내공이 쌓이게 되고 점차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어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게 되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나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스승님! 저 해냈습니다! 저도 이루어 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도 자신감과 용기의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어린 제자들 중에는 성격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 필자의 연구실 앞에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필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수업시간 외에 필자의 연구실 문을 과감하게 두드리는 학생들에게는 자신감과 용기의 성적 가점 1점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늘 손을 들고 당당하게 질문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글을 큰 소리로 읽는 학생들에게는 졸업할 때 장군상을 주겠다고도 합니다.

필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나는 낭비한 시간, 잃어버린 기회를 아까워하며 절망의 늪에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나의 미래를 양손으로 움켜쥐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무언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늘 행동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활발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고 늘 미소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결정을 잘 못 내릴 것을 두려워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체질은 강인하고 나의 앞길은 분명하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과감하다. 나는 용감하다.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그만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나는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리더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해 봅니다.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옛날에 한 목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이제 일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편히 쉬고 싶다고 말했다.
주인은 훌륭한 일꾼을 잃게 되어 극구 말렸지만 그는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주인은 할 수 없이 훌륭한 일꾼을 잃게 되어 유감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줄 수가 있는지 물었다. 목수는 "물론입니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일에서 멀어져 있어 그는 형편없는 일꾼들을 급히 모으고 조잡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엉터리 집을 지었다.
집이 완성되자 주인이 집을 보러 와서 집을 한번 둘러보고 그 목수에게 열쇠를 주면서, "이제 이 집은 자네 집이네. 오랫동안 일해 준 보답이네" 라고 말하였다. 목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커다란 충격에 빠져버렸다. 만일 목수가 그 집이 자신을 위한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대충대충 엉터리 집을 짓는 대신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100년이 지나도 수리할 필요가 없는 튼튼한 집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주인이 집을 한 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집은 내가 살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면 집을 짓는 동안 보람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고 튼튼하게 집을 지었을 것이다. 물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이익부터 생각한다. 내가 상대에게 얼마를 주었으니 나도 상대에게 그 이상의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준 만큼의 이익을 받지 못하면 화를 내게 되고 결국 상대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내가 남에게 준 것은 기억하지 말고 조건 없이 베풀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상대에 대한 용서나 배려의 마음을 닫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희생의 마음을 가지도록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학교가 있다. 학교에

서는 늘 상대를 배려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상대에 대한 가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진정하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모든 행위의 결과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지금의 결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나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면….지금 이 곳이 내가 평생동안 지켜가야 할 소중한 곳이라면…그리고 아직 미래가 있고 자존심과 열정이 남아 있다면…사회의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자기노력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꿈과 열정이 없다고 탓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꿈을 찾아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몇날 몇시간의 수고쯤이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졸고 수업에 소홀히 한다고 탓하기 전에, 즐겁고 유익한 수업자료를 만들고 찾아내기 위한 몇날 몇일의 노력쯤이야… 학생들이 많아 이름외우기가 힘들다고 탓하기 전에, 다정하고 정감있게 이름을 불러주기 위한 몇날 몇일의 노력쯤이야…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내가 주인이고 나는 대부분의 이기적인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비록 국가나 조직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나의 열정과 노력에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내 인생의 멋진 추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과 조국을 위해 지금 내가 속해있는 조직이 최고의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밤을 세워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들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내 가슴에 가득한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의 힘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우리의 삶이 더욱 더 풍족해지리라. 그 모든 것의 출발점도 나 자신이고 결과도 책임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엉터리 집을 지은 목수처럼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바보 빅터 이야기

한 아이가 있었다. I.Q 73, 소심한 성격에 어눌한 동작, 가끔씩 말을 더듬었고 가끔은 혼자서 알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기도 했으며, 자신을 돌고래보다 못하다고 놀리는 친구의 돌고래 성대모사에 주눅이 들어버리는 이 아이를 모두 바보라 놀렸다. 그리고 “바보에게 공부는 필요 없어”라고 호통치던 선생님의 권유로 이 어린 소년은 15세에 학교를 자퇴하고 만다. 이후, 17년여간 온갖 잡일을 하며 살던 이 아이는 32세에 우연히 천재 암기왕으로부터 자신이 바보는커녕, 오히려 I.Q 173의 천재라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된다. 이후, 아이는 스스로 천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공부하여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모두에게 천재라고 인정 받으며 사회에서 큰 성공도 거두게 된다.

이 이야기는 세계 맨사협회 회장에까지 오른 “빅터 세리브리아크프”의 삶을 엮은 책 <바보 빅터>의 내용으로서, 빅터는 원래 정상적 I.Q가 173이었지만 초등학교 담임선생이 실수하여 I.Q를 73이라고 기재한 것을 믿고, 스스로를 그저 I.Q 73의 바보라고 생각하고 바보처럼 행동하고 바보로 17년을 살았지만 나중에 I.Q가 173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괴력의 천재성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적혀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한 빅터 회장의 사례는 바로 긍정적 “자기 믿음”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 책은 지금도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겠는가? 자신속의 천재성을 모른 채, 주어진 여건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바보라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나이 때문에...배움이 짧아서...집이 가난해서...등등 수많은 자기비하로 자신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위대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책하여 평생 소심하게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렇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내면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바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매사

에 성실하고 부지런하지만 자신의 최종학력이 초등졸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46세가 될때까지 적극적으로 세상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늘 소심한 성격으로 남의 뒤에서만 조용하게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46세가 되던 해 우연히 필자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찾아 인생의 2막을 준비하면서 놀랍도록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명강사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는 데,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른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라고 말했을 때, “그래...맞아! 나는 못해! 난 안돼! 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Why not! 왜 못해! 내 비록 나이는 많지만...배운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해 낼거야! 기다려봐! 6개월만...1년만 기다려봐! 내 반드시 해 낼거야!”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자기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이 바보에서 천재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바보 빅터”란 책에서 빅터는 “저는 17년동안 바보로 살았습니다. 17년동안 IQ는 제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도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셔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 만드는 룰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절대 자신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위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는 주변에서 천재로 변한 수많은 바보 빅터를 보게 된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여학생은 어릴적 화상으로 얼굴반쪽에 큰 반점이 있어 첫 수업시간에 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참으로 가슴

이 아팠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을 불러 그동안 참으로 마음이 아팠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두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늘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말했다.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평생 마스크를 끼고 바보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천재로 세상을 살아갈 건지 두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지 무슨 행동을 하던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닭의 삶이 아니라 독수리의 삶으로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하느님은 공평하니까 너에게도 틀림없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비상한 능력을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주었다. 다음날 아침 그 여학생은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어버렸고 자신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능력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9년의 시간이 흘러 어느날 TV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동안 그녀는 그녀 안에 숨어있었던 천재성 즉 재능을 찾아내어 바보 빅터가 아니라 천재 빅터로 성공한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바보는 없다. 다만 자신이 스스로 바보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 것이다. 100세 시대, 앞으로 당신은 바보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재로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벼룩과 코끼리 이야기

요즘 우한폐렴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 하루빨리 이 위기가 끝날 그날만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사태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습관이 유행처럼 생겨났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습관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집이나 사무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특히 외출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만약 코로나가 끝났을 때도 마스트를 사용하는 이 습관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습관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과거의 기억이나 습관은 때로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벼룩이라는 높이뛰기 선수인 곤충이 있다. 벼룩은 세계적으로 약 1500여종이 있으며, 자기 몸의 100배가 넘는 높이로 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영국의 그레고리 스톤 박사에 이어 벼룩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내용이다. 벼룩 한 마리를 병에 넣고 처음에는 병뚜껑을 열어두었다. 그랬더니, 높이뛰기 선수답게 벼룩은 자기 몸의 수십 배나 높이 뛰어 올랐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병뚜껑을 투명한 유리로 살짝 덮어두었는데, 벼룩이 여러 번 튀어 오르다가 유리 덮개에 걸려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번 실험하고 난 뒤 실험자가 이번에는 유리 덮개를 치워버렸다. 그랬더니, 벼룩은 신기하게도 높이 뛰어 오르지 못하고 계속 유리덮개 근처 높이에서 뚝 떨어져버리곤 했다고 한다. 아마 그 벼룩은 이 전 단계의 반복된 실패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 전에 수십 배의 높이로 뛰었던 능력을 회복해 내지 못한 채 스스로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안돼! 더 높이 뛸 수 없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안되었어! 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더 높이 뛰는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았을까.

한편, 박영택 교수의 《이노베이션 스토리》 라는 글 중에는 코끼리 훈련법에 관

한 이야기가 있다. 코끼리를 노동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복종과 훈련' 과정을 거친다. 어린 코끼리를 밝은 오렌지색 줄로 나무에 묶어두면 처음에는 줄을 끊으려 안간힘을 쓴다고 한다. 하지만 수많은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나면 어린 코끼리는 포로가 된 현실을 인정하는지 어느 순간부터 안간힘을 쓰지 않고 온순하게 오렌지색 줄에 묶여 지낸다는 것이다. 그러다 코끼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힘도 100배 이상 증가하고, 때때로 자신을 묶고 있는 체인을 물어뜯고 마구 날뛰기도 하는 데 이때, 코끼리를 묶어놓은 나무가 뿌리째 뽑힐 지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황이 이쯤 되면 주인은 코끼리를 다스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는 데 바로 어린 새끼였을 때 묶어두었던 오렌지색 줄인 것이다. 거대한 코끼리일지라도 포로가 된 현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는다. 코끼리는 어릴 때 경험한 오렌지색 줄의 위력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 중 대다수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벼룩의 유리컵이나 코끼리의 오렌지색 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어떤 기억이나 습관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체념하게 만드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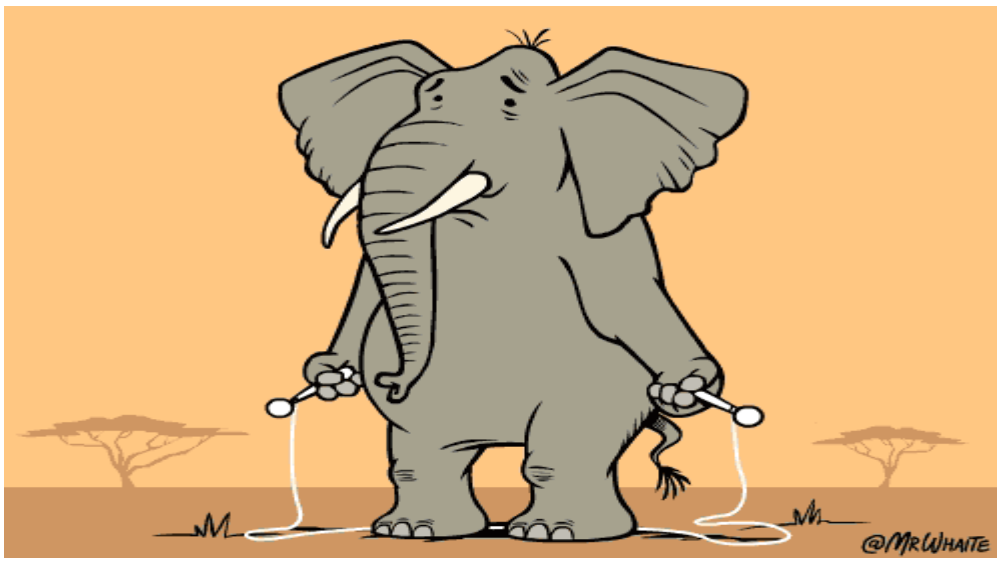
필자는 그동안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실패경험 때문에 용기나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을 자주 보게 되었다. 어떤 여학생은 중학교 때의 왕따 경험 때문인지 늘 소심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한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몇 번이나 연구실로 불러 “ 과거의 경험은 과거일 뿐이다. 그동안 시간이 흘렀고 환경도 바뀌었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널 괴롭힐 사람이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해봐!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께!”라고 말해 주었다. 필자는 많은 어린 제자들이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그냥 난 안돼! 난 할 수 없어! 옛날에도 해보았지만 안되었어! 역시 난 안돼!”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자주 코끼리와 벼룩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해 준다. 하지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를 반드시 함께 주면서 말이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나 또,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어 낸 사람이나 사업계의 영웅, 위대한 작가나 예술가, 국가적 지도자 등 비범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난 틀림없이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성공을 믿으며 전진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도 분명 어쩌면, '벼룩의 뚜껑'이나 '코끼리의 오렌지색 줄'과 같은 심리적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끊임없는 자기훈련으로 마음속 장애물을 뛰어 넘어 반대로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해낼 거야!"라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코끼리의 오랜지색 줄'과 같은 심리적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과감히 그 줄을 끊어 버리십시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김한식교수>



지도 후기)

인연에 대하여, 함께 울었던 시간에 대하여,

김경숙
(사회복지경영계열 교수)

익어 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먼저 황토 빛으로 변한다. 서리 맞은 감이 떠오르고, 싸리 빗자루로 마당을 쓸던 아버지가 떠오른다. '이 놈의 가시나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며 책만 읽고 있으면 뺏어다 불 지르며 고래고래 헛 고함을 쳐대시던, 아버지의 숨은 울음이 이제야 노을빛으로 눈가에 맺히기도 한다. 그 가을, 담장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노란 단추국화의 꽃망울만 손톱으로 비비다가 눈물 젖은 눈가를 비비다가, 하염없이 하늘 뭉게구름만 쳐다보다가 하던 추억은 그렇게 세월 따라 익어가고 있었다. 삶의 시간은 어느 듯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문집은 그렇게 익어 온 삶의 추억 이야기이다. 사랑보다는 미움, 이해보다는 자격지심으로, 참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게 눌러 앉아 결코 밖으로는 나가고 싶지 않으면서, 그저 어둠속에만 눌러 앉아 꺼이꺼이 울기만 해대던 '마음속의 어린 나'를, 수십 년이 지난 이제야 꺼내 다독이는 이야기이다. '괜찮아, 이제 너 밖으로 좀 나와! 너 울고 있는 이유 좀 말해 봐'하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와 용기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주름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청순함이 변치 않은, 예쁜 소녀들의 아득한 추억 이야기이다.

한 순간,
어찌 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모여
삶은 또 이렇게 흘러가네

울기도 하네 웃기도 하네
강아지 한 마리의 재롱처럼
시간은 오늘도 까불며 흘러가고 있네

곁에 잠시 머물다 쉽게 사라져간
털과 같은 수많은 시간들이여
이제야 뒤 돌아 보니
그 또한 사랑이었네

인연에 대한 정의를 아름답게 표현한 말은 많지만, 나는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 선생 역할을 맡은 이병헌이 학생들을 만나는 첫 시간에 칠판 위에 분필로 가로줄을 쫙 그으며, '인연이란 수천피드 하늘 위에서 바늘을 하나 톡 떨어뜨렸는데 그 바늘이 하필이면 땅위에 있던 밀알 위에 꽂힐 확률이야, 너희와 내가 만난 것도 그런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을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던 장면이 가장 소중한 정의로 가슴에 남아있다.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학우들을 만나 함께 공부한 일 년이 나에게도 그런 소중한 인연일 것이다.

『화술과 스피치 리더십』 수업 시간이니만큼 나는 무엇보다 학우들과 많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부분 나의 일방적인 설명이나 주도적 방법으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글쓰기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발표하는 것이 너무 떨려요' 'O(서론)-S(본론)-C(결론)에 맞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등등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도적인 수업시간은 계속되었고, 다행히 학우들이 점점 잘 따라와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글쓰기와 가장 좋은 강의는 경험사례를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자신의 경험이면 더욱 감동적이다' 라고 다독인 것은 정말 잘 한 것 같다. 과제라서 할 수 없이 한다던 분들까지도 어쩌면 모두 그렇게 글을 잘 쓰시고 발표도 점점 잘 하시던지... 그런, 감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글을 발표하는 동안, 참 많이 함께 울고 웃었다. 그 감동의 시간은 이 문집과 함께 나에게도 잊히지 않는 순간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 나'가 한명씩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쯤은 우리 모두 당당하게 세상에 설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가끔씩 서로 서로 그 어린 아이를 꺼내 보이고 또, 이야기 하고 들어주는 시간을 많이 만들며 사는, 앞으로도 늘 따뜻한 삶이길 바란다.

고마운 학생들께,
함께 한 시간동안 나 또한 여러분께 너무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인생길 위에도 늘 꿈이 피어나고 결실이 맺히는 나날이 되시길
빌어드린다.

▣ 저자약력 ▣

김 한 식

-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보험학 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수료(보험학 박사)
- 자동차보험 국가공인 손해사정사(제3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교육과장, 보상과장, 지점장 역임
- (현재) 한국스피치리더쉽교육협회 회장
- (현재)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마케팅분야) 출재위원
- (현재) 스피치지도사, 심리상담사, 국가공인 손해사정사
- (현재)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부 교수

김 경 숙

- 세종대학교(수도여자사범대학) 졸업
- 울산대학교 대학원 수료(교육학 석사)
- 울산여중, 울산학성여중 등 음악교사
- 울산교육청 장학사, 교감, 교장 역임
-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외래교수

따뜻한 흔적 Ⅱ

2022년 2월 8일 초판인쇄
2022년 2월 9일 초판발행

저 자 **김한식, 김경숙**

발행인 김 영 화

발행처 도서출판 한솔사

ISBN 978-89-963927-7-4

[정가] 10,000원

이 책의 무단전제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9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